

최 기 엽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농업생산양식과 농촌사회구성의 재편  
-서울근교 양평지역을 사례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 리 학 과  
정 부 매

# 농업생산양식과 농촌사회구성의 재편

-서울근교 양평지역을 사례로-

최 기 엽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정 부 매

# 인 준 서

정부매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오늘날 농촌공간은 단순히 도시에 대비되는 전근대적 공간이 아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보다 농촌공간 사이의 차별화가 더욱 커지면서 다양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성(rurality)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는 논의가 농촌공간 인식논리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과거 농촌공간을 도시에 대비해 기능적이고 기술적(記述的)으로 바라보던 관점은 이후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재현된다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촌공간은 현실적으로 농업생산공간의 질적인 전환을 시대적으로 요청받고 있으며, WTO체제하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위치에 놓였다. 생산주의철학(productivism)은 퇴조하고 관행농법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생산공간은 소비공간을 창출하면서 농촌공간의 상품화를 지향하고 있다. 농업생산과정을 비롯해 농촌공간이 보유하고 있는 생태·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이 출현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압축적인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은 이분론적 또는 연속체론적 관점에서 개발에서 소외되거나 반대로 도시화되어야 할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근대적 공간에 대한 한계가 회자되고 자연과 전원 담론이 등장하면서 ‘개발이 덜 된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대도시 중산층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를 이끌었다. 2000년대에 와서는 삶의 질 추구가 확산되면서 안전한 먹거리, 웰빙(well-being) 그리고 여가의 욕구가 늘어나 친환경농산물과 관광소비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공간 인식논리와 생산주의철학의 변화는 오늘날 농촌공간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동인(動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초해 우리 국토의 농촌공간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본 논문은 우리 국토의 농촌공간에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농촌성은 무엇이며, 농촌공간을 변화시키는 동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우리 농촌공간의 주요 변화를 다시 읽고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I 장의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연구 지역 그리고 연구 방법과 연구 절차에 대해 기술하였다. VI 장에서는 본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밝혔다.

본론은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II 장에서는 농촌공간 인식논리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후에 국지적 공간 구성에 대한 쟁점 및 농촌성(rurality)과 자연(nature)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III 장에서는 II 장에서 검토한 농촌공간에 대한 인식론 변화에 토대해, 우리 국토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농촌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도출하였다. 농업생산양식의 변화, 즉 친환경농업공간의 지역적 전개와 농촌관광과 연계한 녹색소비공간을 창출하는 과정을 전국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정책의 추진과정을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시도별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와 인증면적 변화 및 작물별 인증농가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후, 지도화하여 그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친환경농업 생산공간이 체험의 장으로서 소비공간을 창출해 상품화하는 경향을 고찰하였다.

IV 장에서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여겨지고 있는 경기도 양평지역을 사례로, 국지적 맥락에서 이 지역이 친환경농업정책을 선택, 수용하는 과정과 그 안에 내재한 자연과 환경의 지방 정치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지역 인사와의 심층 면담 및 읍면별친환경농업인대표자회의 참관과 환경농업대학

청강 내용을 정리하여 활용하였다.

양평지역 친환경농업의 공간적 실천 내용을 읍면별 실천농가 및 인증농가, 인증면적 변화, 그리고 작물별 인증농가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지도화하여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식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양평환경농업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양평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이 갖는 가치, 지역 이미지 그리고 거주만족과 지역 정체감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의 담론이 지역안에서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친환경농업과 농촌관광을 연계한 농촌관광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농업생산공간이 녹색소비공간으로 확장해가는 공간 실천 과정을 탐색하였다.

V장에서는 양평지역에서 ㄹ단위의 2개 마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m)와 친환경농업정책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농촌성 구현 과정을 국지적 맥락에서 확인하였다. 용문면 화전 2리는 친환경농업의 수용과 농촌사회구성 재편 사례로, 친환경농업 선도마을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로의 변화에 주목하였고, 청운면 신문1리는 녹색소비공간 창출과 농촌사회구성의 재편 사례로, 전형적인 밭작물 재배 중심의 한적한 산지촌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의 이행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두 사례 마을의 현지 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선택과 수용과정 및 소비공간 창출을 통한 새로운 농촌성 창출에 있어, 마을 리더들의 역할과 주민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 아울러 농촌공간의 전통 경관과 청정한 자연이 사회적으로 재현됨으로써 새로운 농촌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맥락을 확인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2.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	4
3. 논문의 구성 .....	8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검토 .....	10
1. 국지적 공간 구성에 관한 주요 쟁점 .....	10
2. 농촌공간의 인식논리 변화 .....	13
1) 기능론적이고 기술적인 공간으로서의 농촌 .....	15
2) 정치경제학과 로컬리티 연구에서의 농촌 .....	20
3)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으로서의 농촌 .....	21
4) 사회적 재현으로서의 농촌 .....	22
3. 자연과 농촌성의 사회적 구성 : 사회적 자연 .....	23
1) 근대적 공간의 한계 .....	27
2)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공간의 어메니티 .....	30
3) 도시와 농촌공간의 공생 모색 : 이분론과 연속체론을 넘어 공생론으로 .....	31
III. 친환경농업의 전개 과정과 녹색소비공간으로의 확장 .....	36
1. 농업과 농촌공간의 변화 국면 .....	36
1) 농업생산양식의 변화 : 농업 생산주의에서 탈생산주의로 .....	39
2) 서구 환경농업정책의 전개 특성 .....	44
3)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시기별 주요 변화 .....	46

2.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출현 배경 .....	49
1) 친환경농업의 개념 .....	49
2) 친환경농업의 논의 과정 .....	50
3)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전개과정 .....	52
4) 우리나라 농업·농촌공간의 위기와 그 대안으로서의 친환경 농업 .....	56
3. 친환경농업의 지역적 전개 특성 .....	60
1) 친환경농업의 성장추이 .....	61
2)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분포 특성 .....	64
4. 친환경농업의 녹색소비공간으로의 확장 .....	75
1) 농업생산과정의 상품화 .....	75
2) 농촌다움을 간직한 농촌마을 만들기 : 농촌성의 사회적 재현 .....	76
IV. 녹색담론을 통한 농촌공간의 사회적 재구성 .....	78
1. 양평지역의 역동성 .....	78
1) 인구·가구수의 시계열적 변화 .....	78
2) 차별적인 생활권의 내재 .....	82
3) 제약받는 경제 활동 .....	86
2. 양평 지역 국지성과 환경의 지방 정치화 .....	88
1)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자연 보전권역, 양평 .....	88
2) 한강 상수원으로서의 양평 지역 .....	89
3) 환경갈등과 지역 맥락에서의 대응 .....	97
4)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환경의 정치화 .....	100
3. 양평지역 친환경농업공간의 확대과정 .....	103
1) 친환경농업의 단계별 전개과정 .....	103
2) 친환경실천농가의 추이 .....	106
3) 읍면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인증농가의 분포특징 .....	109

4)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생산작물 분포 .....	115
5)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서의 이미지 고양과 지역정체성의 재구성 .....	116
6) 친환경농업 지식네트워크 형성 .....	117
4. 친환경농업공간에서 녹색소비공간 창출로의 확장 .....	119
V. 마을 단위의 국지적 농촌사회구성의 재편 과정 .....	122
1. 친환경농업의 수용과 농촌사회구성 재편 사례 :	
용문면 화전2리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사례로 .....	122
1) 마을 경관 구성 .....	122
2) 주민 구성의 특징 .....	128
3) 친환경농업의 선택과 수용 과정 .....	132
4) 친환경농업생산과정과 마을전통의 결합이 빛나는 새로운 농촌마을 만들기 .....	142
2. 녹색소비공간 창출과 농촌 사회구성 재편 사례 :	
청운면 신문1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사례로 .....	145
1) 마을 경관 구성 .....	145
2) 주민 구성의 특징과 새로운 생활 공동체의 등장 .....	147
3) 산촌 청정자연의 상품화 .....	149
3. 농촌사회구성의 재편 흐름 .....	150
VI. 결론 .....	152
참고문헌 .....	155
ABSTRACT .....	168
부록 .....	171

## I. 서론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980년 중반 이후 영미를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환기되면서 신지역지리학(new regional geography)이 등장하였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논쟁과 쟁점의 중심에 로컬리티(locality ; 국지성) 연구가 자리하고 있으며, 장소(place)와 공간성(spatiality)의 문제는 더욱 보편적인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공간과 장소를 ‘공간화된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논의의 주축을 이루며, 이는 신지역지리학의 흐름에서 뿐 아니라 공간과 장소가 어떻게 재현되고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재형성해 가는가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지역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혹은 또 다른 주체들과 시공간 프레임상의 ‘지금, 여기 안에서’ 생성되는 구축물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들의 축적물인 것이다. 더욱이 지역의 정체성(regional identity)은 ‘다른’ 지역들과 상호관계를 통해 구축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담론화되면서 ‘장소지위진’ 역사들과 조우하게 된다.<sup>1)</sup>

이는 우리들의 생존과 역사, 그리고 일상의 생활이 공간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계기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해독, 즉 공간에 대한 인식지평의 확대를 요구한다. 여러 수준에 걸친 사회의 구성과정은 필연적으로 각기 독특한 공간적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 공간적 관계를 생성시킨다. 사회는 공간적인 것이며, 공간적인 것은 사회적이다. 공간이 사회 구성과 연루되는 다양한 계기에 대해 감지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지리학의 출발선이 되어야<sup>2)</sup> 함

---

1) John Allan, Doreen Massey and Allan Cochrane, 1998, *Rethinking the region*, Routledge, London & NY, pp.vi~13.

2) 최기엽, 1997, 사회구성과 공간·시간적 맥락,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0, pp.210~230.

은 물론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농촌공간은 지역 변화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지리학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계량혁명 이후 논리실증주의 조류에 편승하여 일반화와 범칙화를 지향하는 계통 지리적 연구가 도시연구를 중심으로 팽창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촌지리학은 과거와는 달리 침체 국면을 맞이하였다.<sup>3)</sup>

우리 국토공간에 있어서도 1960년대 이후 발전주의적 개발논리에 따라 압축적인 공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도농분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대)도시중심의 성장을 도모하여 농촌공간을 낙후 혹은 소외지역으로 결과지웠다.<sup>4)</sup>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도 도시에 우선적으로 주어진 까닭에 농촌지역에 관한 관심은 도시못지않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해 왔음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편이다.<sup>5)</sup>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에 대한 인식론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후 왕성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에 있어 농촌성(rurality)의 본질 및 농촌공간의 사회적 구성 그리고 농촌공간의 사회적 재현(social representation of rural space)에 관한 개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sup>6)</sup>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농촌공간의 다면적인 가치와 변화 양상에 주목하게 되면서, 관련 분야-사회학, 인류학, 농촌경제학, 여성학 등-에서 농촌공간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sup>7)</sup>을 꾀하는 의욕적인 연구물들이 발표되고 있다.

---

3) Cloke, P., 1985, Whither Rural Geography, *Journal of Rural Studies*, 1(1), pp.1~9.

4) 조명래, 1997, 도시 농촌 통합의 정치경제학적 독해, *공간과 사회* 8, 한울, pp.21~24.

5) Clout, H., 1977, Rural Settle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 pp.475~480.

이재덕, 2003,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연구 성과의 검토, 서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p.103.

6) K. H., Halfacree, 1993, Locality and Social Representation: Space, Discourse and Alternative Definition of the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9(1), pp.22~37.

오늘날 농촌공간은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공간으로서의 장을 넘어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생태·문화 공간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농촌공간이 생산주의(productivism)에서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m)로의 재편 과정을 밟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농촌적 전원풍경(rural idyll)이 농촌성(rurality)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재평가되고 이로써 농촌 어메니티를 주요 지역 자산으로 삼아 농촌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향하는 새로운 농촌성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제 농촌은 도시에 종속되고 대비되는 전근대적인 농촌공간이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가치가 충만한 새로운 생산·소비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촌공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 마을 경관은 단순한 물리적 실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실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나아가 1995년 이래 우리 국토공간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방정치 과정을 계기로 농촌공간의 상품화를 창출하는 주요 지역자산으로서 그 의미를 재평가받고 있다. 결국 농촌성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은 농촌발전정책과 지역적 맥락이 결합하여 공간상에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이에 본 연구는 우리 국토의 농촌공간이 친환경농업공간의 전개와 녹색소비공간의 창출 과정의 기술을 토대로 농업생산양식과 농촌사회구성의 재편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농촌공간이 국지적 공간의 맥락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되어 가는지를 구명하려는 것이다.

---

7) 임형백·이성우, 2003, “농촌과 도시의 공존을 위한 인식론적 전환 : 근대화론 비판, 농촌사회 13(2), pp.41~73.

8) Brian Ilbery ed., 1998, *The Geography of Rural Change*, Longman, pp.1~6.

## 2.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 1) 연구지역 개관

오늘날 농촌공간의 변화는 매우 다차원적이다. 교통·통신의 급격한 발달이 가져온 시공간압축의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을 ‘분리된 실체(a separate entity)’로 설정하고 도시에 대비되는 고정된 입지(site)로서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라지고 있다. 농촌공간은 급격한 변화를 매우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동시에 일상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sup>9)</sup>

이에 이 연구는 전개 내용에 따라 지역의 스케일을 달리하였다. 즉, 전국적, 지역적, 국지적 스케일을 유연하게 동원하였다.

표 1-1. 연구 지역의 수준

지역 스케일	관련 특징		
전국적 차원 national scale	· 1960년대 이래 급격한 공업화·도시화를 경험해 온 국토공간 근대적 공간의 한계 표출		
지역적 차원 regional scale	· 수도권, 서울 근교		
국지적 차원 local scale	사례 마을	용문면 화전2리 (벼농사중심지역)	친환경 오리농산물 생산단지 농촌전통테마마을(2004)
		청운면 신문1리 (산촌지역)	산촌 청정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2003)

9) Copp J. H., 1972, Rural Sociology and Rural Development, *Rural Sociology* 37, p.159.

Paul Cloke & Nigel Thrift, 1994, Refiguring the 'Rural', *Writing the rural : Five Cultural Geographies*, p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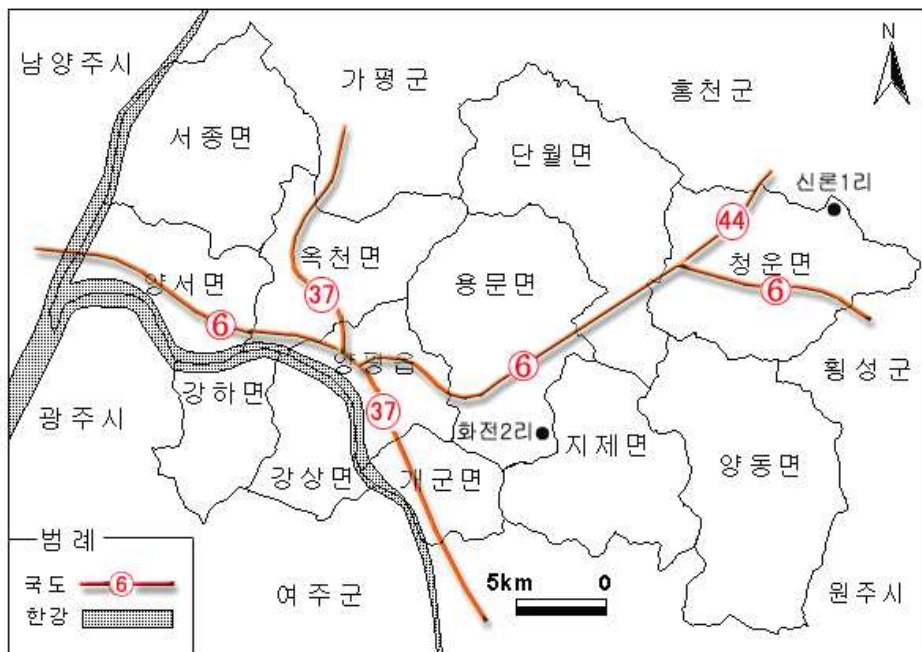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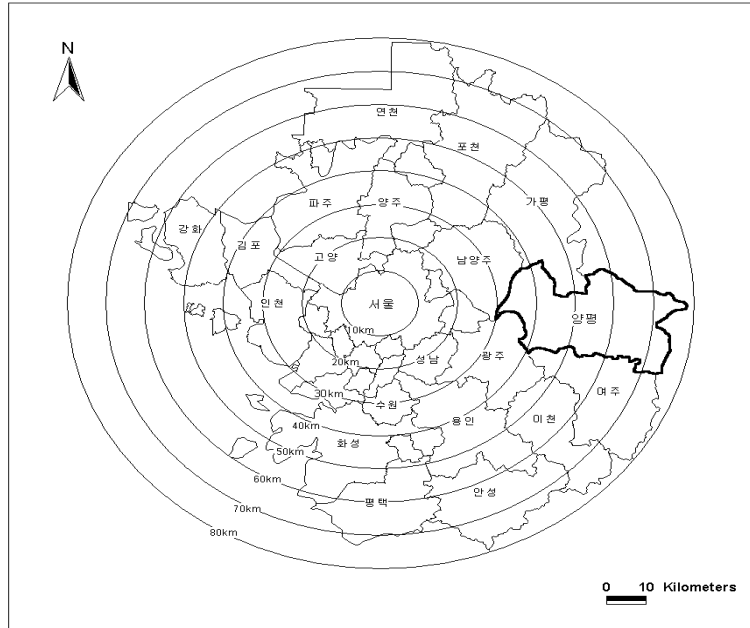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지역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878.13km<sup>2</sup>, 서울시의 1.45배)을 갖고 수도권 동부에 위치해 있다. 행정적으로 2개 도(경기도, 강원도)와 3개의 시(남양주시, 광주시, 원주시), 4개 군(가평군, 여주군, 홍천군, 횡성군)과 접해 있다. 중앙선 철도가 양평-용문-지평-양동을 거쳐 원주시로 향한다. 가평-양평-여주를 수직으로 잇는 국도 37번과 남양주-양평-횡성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국도 6번<sup>10)</sup>이 주요 교통축을 이룬다. 서울 중심부로부터 반경 30~8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60~90분 정도의 시간거리를 갖는다.

현재 양평군의 행정구역은 양평읍(楊平邑)과 강상면(江上面)·강하면(江下面)·양서면(楊西面)·옥천면(玉泉面)·서종면(西宗面)·단월면(丹月面)·청운면(靑雲面)·양동면(楊東面)·지체면(砥堤面)·용문면(龍門面)·개군면(介軍面) 1읍 11면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1)</sup>

양평군은 중서부와 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산지지형과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 및 하천 연변의 충적지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서부와 남부의 하천지형은 그 발달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규모가 작아 전체적인 지세는 산지지형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다.

한편 마을 수준에서 지역민들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자신의 국지적 환경을 어떻게 새롭게 조성하면서 대응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2개의 행정리 마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용문면 화전2리는 전통적인 벼농사 중심지역이다. 1997년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정책 실천 초기에 선도마을로 지정되어 오리농산물 생산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2004년 농업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었다. 청운면 신문1리는 전형적인 산지촌이다. 2003년 농림부가 주관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으며, 인근의 신문2리, 도원리를 합쳐 청운향토정보화마을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표1-1, 그림

---

10) 청운면 다대리에서 홍천 방면의 44번 국도로 갈라진다.

11) 양평군지 편찬위원회, 1991, 양평군지, 양평군.  
양평군청 [www.ye21.net](http://www.ye21.net).

1-1).

##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농업생산양식의 변화와 친환경농업 그리고 농촌관광에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통계청,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청, 양평군청을 비롯한 관련 해당 기관에서 간행하는 지면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활용하였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친환경농업정책과 공무원, 양평친환경농업-21(YP-21)관계자, 농업기술센터와 환경농업대학 관계자분들과 수차례에 걸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읍면별친환경농업인대표자회의 참관과 환경농업대학 수업을 청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군 단위 이하의 수준에서 일관성있는 통계자료 즉,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실제조사를 통한 1차 자료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했다. 면사무소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여 인구 구성과 세대별 가족구성 및 거주이동 특성을 파악한 후, 마을리더 및 주민들과의 면담내용을 심층 기술하였다. 양평환경농업대학 6기(2005학년도) 수강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양평 지역에 대해 지역민이 갖고 있는 대체적인 이미지 및 개인 생활사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지역의 답사는 2001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 먼저 양평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을 인지하고, 관련 지역 자료의 수집을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업과 녹색소비공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용문면 화전2리와 청운면 신론1리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3. 논문의 구성

논문의 내용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I 장의 서론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배경과 함께 연구 목적, 연구 지역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론은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II 장은 농촌공간 인식논리의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국지적 공간 구성에 대한 쟁점 및 농촌성과 자연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III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우리나라 농촌공간 변화의 구체적 양상 즉, 친환경농업의 전개와 녹색소비공간으로의 확장에 관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IV 장에서는 양평군을 대상으로 국지적 맥락에서 농업생산양식과 농촌사회구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에 주목하였다. V 장은 오늘날 농촌개발의 단위가 되고 있는 마을 규모의 수준에서, 지역민들이 자신의 국지적 환경에서 농촌성을 새롭게 구축해 가는 동인과 과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VI 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양평지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새로운 농촌성의 구축 과정이 우리 국토의 농촌공간 더 나아가 국토 전반의 발전적인 표상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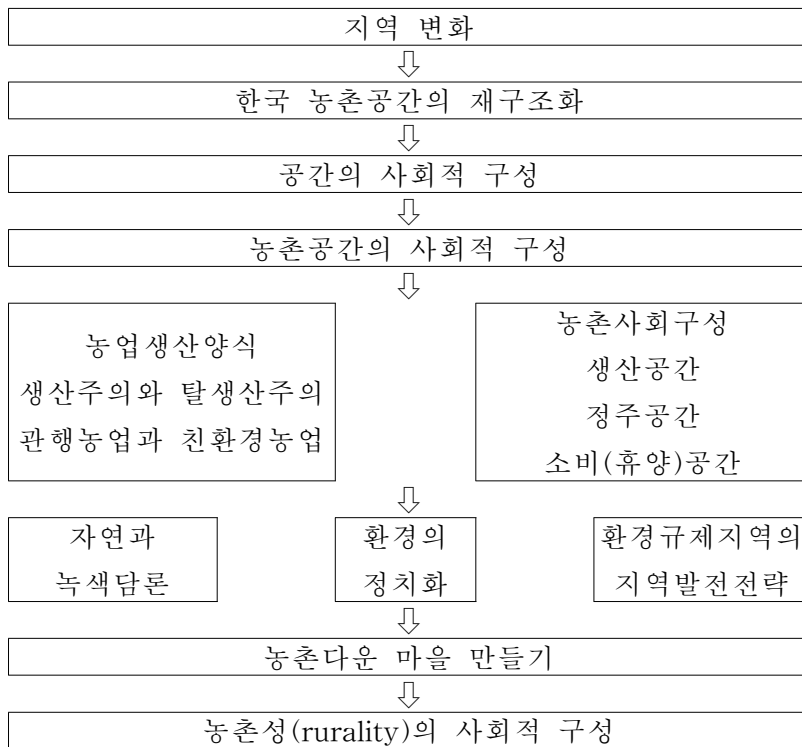


그림 1-2. 논문 내용의 주요 흐름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검토

### 1. 국지적 공간에 대한 주요 쟁점

1980년대 중반 이래 최근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신지역지리학은 국지적 공간에 대한 연구를 강조해왔다. 국지성(locality)에 관한 논쟁은 198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변화를 연구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영국 경제사회연구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는 세 가지 국지성 연구 프로그램을 입안·운영하였는데, 그 연구수행 및 발표과정에서 국지성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세 가지 연구는 각기 상이한 주장을 펼치며 국지성을 개념화하였다. 즉, 첫째 국지성은 일반적 법칙 또는 보편성에 대한 잔차 변인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주장, 둘째 국지성은 사회적 과정이 상이한 공간 상황에서 매우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 셋째 공간 중심 연구에서도, 국지성이 조작적이고 개념적인 분석 단위가 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도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공간적 객체로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국지성에 관한 논쟁은 세 번째 주장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sup>12)</sup>

한편 이 논쟁은 국지성 개념에 관한 것과 실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 즉 재구조화 과정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개념적인 부분, 즉 국지성이라는 사고의 개념적 위상에 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

Cooke는 우선 Giddens의 개념을 빌리지만 그가 원용한 용어 현장(locale)은 공간적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기각하고, 단순한 장소나 지역사회

---

12) 최병두, 2002, 국지적 사회공간의 발전과 한계, 현대사회지리학, pp.147~148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Duncan, S., 1989, What is Locality, in R. Peet and N. Thrift(eds.), *New Models on Geography*, Unwin Hyman, pp.222~252.

Jonas, A., 1988, A New Regional Geography of Localities?, *Area*, 20(2), pp.10~29.

(communities)가 아닌 사회적 힘과 행위의 합으로서 국지성(locality)을 강조한다.<sup>13)</sup> 그러나 이 개념에 기초한 연구에 대해 Smith는 이 연구가 통계적 자료의 나열이며 특정 장소에 대한 초기 경험주의적 연구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판했고,<sup>14)</sup> Cochrane과 Duncan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도 이러한 비판에 동조하는 의사를 *Antipode*지에 발표했다.<sup>15)</sup>

이들의 비판을 정리하면, 첫째 국지성 연구가 경험주의에 빠져있으며, 둘째 국지성의 범위가 모호하고, 셋째 사회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넷째 따라서 공간적 물신론 내지 결정론에 빠졌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Cooke는 다시 자신의 입장 즉, 국지성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뒤이어 *Environment and Planning A*지의 ‘로컬리티 논쟁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new perspectives on the locality debate)’이라는 특집호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하고자 했다.<sup>16)</sup> 이러한 논쟁은 국지성의 특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새롭게 유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등장하도록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비록 방법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풍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개념적 입장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장소(place)’를 새롭게 강조하는 일단의 지리학자들의 등장했다.<sup>17)</sup> 그러나 그 이후 국지성에 관한 개념과 장소를 강조하는

---

13) Cooke, P., 1989, *localities: The Changing Face of Urban Britain*, London, Unwin Hyman.

14) Smith, N., 1987, Dangers of the Empirical Turn: the CURS Initiative, *Antipode* 19(3), pp.111~118.

15) Cochrane, A., 1987, What a Difference the Place Makes: the New Structuralism of Locality, *Antipode* 19(3), pp.354~353.  
Duncan, S., 1989, *ibid.*, pp.221~252.

16) Pratt, A. C., 1991, Discourses of loc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2), pp.257~266.

17) Agnew, J. and Duncan, J. eds., 1989, *The Power of Place: Bringing together the Geographical and Sociological imagination*, Boston, Unwin Hyman.

방법론은 점차 맥락적 배경에 관한 관심을 소홀히 하여 탈맥락화하고, 국지적으로 드러난 특수한 경관들 또는 일시적으로 형성된 스펙터클화(spectacularization)에 관심을 두면서, 결국 포스트모던에 관한 논쟁으로 흡수되게 되었다고 비판된다.<sup>18)</sup> 특히 기존의 논쟁에서, 국지성이라는 개념은 주체와 주관성을 결여한 채 '구조의 승리'를 강조했다고 비판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개연성(contingency)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문제에 봉착했다고 비판되받기도 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개연성이라는 용어는 행위의 제약 조건이나 강화 조건으로서의 맥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sup>19)</sup>

하지만 최근 국지적 공간에 대한 쟁점은 농촌공간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이끌면서 새로운 인식론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가 하면, Halfacree는 국지성(locality)라는 뚜렷한 형태에 따라 농촌을 정의하려는 문제 지향적 경향이 오늘날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

18) Thrift, N., 1990,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4(2), pp.273~277.

19) Warde, A., 1989, *Recipes for a Pudding: A Comment on Locality*, *Antipode* 21(3), pp.274~281.

20) Halfacree, K. H., 1993, *ibid.*, pp.23~37.

## 2. 농촌공간 인식논리의 변화에 관한 논의

...누가 지금 '도시'와 '농촌'이라는 단어의 유용성을 주장하는가? 기술적인 용어(descriptive terms)에 대응하여 이론적(theoretical)인 것으로서 '농촌'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있는가? 또한 누가 '도시'와 '농촌'에 대한 정의적 논쟁(definitional debates)안에서 사회-공간 이슈(socio-spatial issues) 논의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보는가? 분명 무엇이 '농촌'을 구성하는가라는 일반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편의상의 문제(a matter convenience)이며, 이 무미건조하고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활동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21)

Newby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도시와 농촌은 이원론적 관점에서 대조적으로 정의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의는 매우 추상적이고 편의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다. Mormont는 농촌공간(rural space)이라는 용어의 출현 자체가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22)

1990년대 초두에 Hoggart는 앞으로의 농촌 연구의 방향이 지금까지 행하여 왔던 분석 범주로서의 농촌 혹은 도시 대 농촌이라는 관계 설정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23)고 주장함으로써 농촌지리학 분야의 독립성에 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이와는 달리 Cloke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농촌 연구자들은 농촌성에 관한 정치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프로세스를 더욱 심층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농촌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리학계에서는 농촌성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rurality)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농촌 연구의 새로운 방향

---

21) Newby, H., 1986, locality and Rurality: The Restructuring of Rural Social Relations, *Regional Studies* 20, pp.209~215.

22) Mormont, M., 1990, Who is Rural? or How to be Rural: towards a Sociology of the Rural in T. Marsden, P. Lowe and S. Whatmore eds., *Rural Restructuring: Global Processes and their Responses*, David Fulton, p.31.

23) Hoggart, K., 1990, Let's Do Away with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6, pp.245~257.

들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행해졌다. 그 결과 농촌은 뚜렷한 분석 범주로서 소생하게 되었고 농촌 연구의 중요성도 다시금 일깨워지게 되었다.

여기에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경제의 역학들(dynamics)은 각기 농촌 공간에 기대하는 역할들이 상이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농촌 로컬리티를 재구성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각 수준에서 기대되는 농촌공간의 역할들은 농촌적 전원풍경(rural idyll)을 둘러싼 지배 문화를 반영하면서 농촌의 사회적 재현(social representation of rural space)과 관계를 맺는다.<sup>24)</sup>

오늘날 영국 농촌지리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농촌성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주제는 새로운 농촌연구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농촌성의 사회적 구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농촌 로컬리티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사회안에서 사회경제정치적 움직임이 문자를 통하여 농촌의(농촌스러운, 농촌다운)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차원과, 둘째 농촌 로컬리티의 제 속성이 특정한 사회안에서 우세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해석되는 농촌(의 표상/재현·이미지)의 창출 차원이다. Cloke과 Thrift<sup>25)</sup>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최근 구미사회에서 뚜렷하게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농촌지역이 농업의 재편성, 새로운 환경정책, 중산층 계급의 유입을 통한 커뮤니티의 재편, 관광정책의 부흥 등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둘째 신문이나 잡지, TV프로그램 등, 농촌적인 것에 관한 사회적 사색, 특히 농촌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려는 텍스트의 범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셋째 학술 분야에서도 농촌에 관한 관심이 성장하고 있어, 1970년대 이래 농촌 세계에 관한 시리즈 책이나 논문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

24) 高橋 誠, 1998, 空間としての「農村」から農村空間の社會的表象-農村性の社會的構築に關するノート(1), 情報文化研究 7, p.97.

25) Cloke, P., 1994, (En)culturing Political Economy: a Life in the Day of a 'Rural Geographer', in P. Cloke, M. Doel, D. Mathless, M. Phillips and N. Thrift, *Writing the Rural: Five Cultural Geographers*, Paul Chapman Publishing, pp.149~190.

있는 것이다. Cloke<sup>26)</sup>은 농촌연구에 있어 기존의 개념 틀로는 급격한 농촌 변화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까닭은 사회과학에 나타난 철학적 사고의 영향이 그 움직임에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서, 실증주의적 관점이 선정한 지표에 따라 농촌성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던 방법은 이제 인간주의적 관점이 강조하는 장소성이나 정치경제학의 비공간성에 그 자리를 양도하였고 최근에는 포스트모던적 또는 포스트구조주의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농촌성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된 장소(site)로서의 농촌이라는 사고방식은 사라지고 있다. 대신 농촌은 이제 더욱 유동적인 용어<sup>27)</sup>가 되어가고 있다. Cloke과 Goodwin 그리고 Halfacree<sup>28)</sup>가 주장한 바를 기초로, 농촌 공간에 관한 인식논리의 변화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1)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공간으로서의 농촌

농촌을 도시에 뚜렷이 대비되는 특수한 공간으로 간주하는 기능론적 관점은 공통적으로 농촌지역을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정의하는데, 첫째 낮은 인구밀도와 조방적 토지이용, 둘째 주변의 조방적 경관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소규모 저차 취락, 셋째 조방적 경관의 일부로서 행동적 특성에 기반한 일체적인 생활양식(환경 및 행태, 행위의 질을 존중하는 핵심적 정체성으로 특징지워지는 생활양식)이 그것이다. 더불어 농촌 지역의 변화나 지역차 요인이 그 내부에 있다고 여긴다.<sup>29)</sup> 농촌성은 정량적 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

26) Cloke, P., 1996, Rural Life-style: Material Opportunity, Cultural Experience, and How Theory can Undermine Policy, *Economy Geography* 72, pp.433~499.

27) Cloke, P. and Thrift, N., 1994, Refiguring the 'Rural'. in P. Cloke, M. Doel, D. Mathless, Phillips and N. Thrift: *Writing the Rural: Five Cultural Geographers*, Paul Chapman Publishing, p.1.

28) Cloke, P. and Goodwin, M., 1993a, Rural Change: Structured Coherence or Unstructured Incoherence?, *Terra* 105, pp.166~174  
Halfacree, K. H., 1993, *ibid.*, pp.23~37.

다는 입장에서 농촌성의 지표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를 풍미하던 사회과학의 계량적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농촌을 전체적으로 정의해 보려는 시도로 많은 변수들을 선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차후 결과를 미리 앞서 계산하고 있다는 지적<sup>30)</sup>을 받았다.

한편, Halfacree<sup>31)</sup> '농촌(the rural)'의 정의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이 최근의 '농촌' 관련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논의에서 두 가지 주요 관례적 접근은 농촌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또는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공간에 대해 부적절한 개념화(a false conceptualization)를 채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론적 견지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의 관례적 접근 중에서, 첫 번째 기술적 관점은 '도시지역' '거주지역' '교외지역' 등의 여러 지역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을 사회·공간적 특성들에 따라 정의하는 방식으로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속성들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주의는 농촌을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선택한 지표에 비추어 농촌을 정의하고 판단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Cloke(1977)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농촌성 지표'인데, 이것은 영국 환경국(DOE, 1971)에 의해 고안된 분류틀을 개발한 것으로 고용, 인구, 이주, 주택상태, 토지이용 그리고 원격성 등의 16개 변수들을 선정했다. 농촌성 정도는 변수들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점수들을 획득했다. 이 지표들은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농촌성의 특성들을 구분한 것이었다.

#### 표 2-1. 농촌에 대한 기술적 정의들

29) Cloke, P. and Thrift, N., 1994, *ibid.*, pp.1~5.

30) Cloke, P., 1994, *ibid.*, pp.149~190.

31) Cloke, P. and Goodwin, M., 1993a, *ibid.*, pp.166~174.  
Halfacree, K. H., 1993, *ibid.* pp.23~37.

지표	주장한 대표적 학자
통계적인 the statistical	Cloke, 1977, 1978; Cloke & Edwards, 1986; Openshaw, 1985 Harper, 1987a; Donnelly & Harper, 1987
행정적인 the administrative	Stevens, 1946 Lassey, 1977 OPCS in Openshaw, 1985
건조지역 the built-up area	Cherry, 1976 Denham, 1984 OPCS, 1986 Craig, 1987
기능지역 functional regions	Coombes et al., 1982; CURDS, 1983-84; Champion & Coombes, 1984; Champion et al., 1984, 1987
농업적 the agricultural	Vince, 1952 Robertson, 1961 Wibberley, 1972 Newby, 1977, 1978, 1979, 1980, 1987; Newby et al., 1978; Newby & Buttle, 1980 Friedland, 1982 Gilbert, 1982
인구규모/밀도 population size /density	Clout, 1972 Lewis, 1979 Urry, 1984 Fothergill et al., 1985

표 2-1은 농촌에 대한 기술적 정의들을 목록화한 것이다. 저자들마다 농촌 정의 '정수(essence)'라고 여기는 사회·공간적 환경들의 상이한 양상들에 초점을 두고 농촌을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기술적인 (technical) 고려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정의들이 계속적으로 생산되었고, 동시에 많은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기술적 정의들은 역사적 상대주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농촌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변수, 데이터, 통계적 기법의 선택과 정의가 민감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농촌을 정의할 때 고려되어야 할 맥락의 중요성과 정성적인 자료들의 활용이 배제되었다.

표 2-1에 나타난 정의들은 전문화된 영역과 관련하여 유용할 수는 있지만,

농촌성의 일반적 도구는 아니다. 즉 사회경제적 연구와 통계적 정의, 정치 연구와 행정적 정의, 토지이용연구와 건조지역 정의, 경제적 연구와 기능적 정의, 토지이용 및 사회관계연구와 농업적 정의 그리고 서비스영역연구와 인구밀도 정의와 같이 농촌에 대한 기술적인 정의들은 서로 다른 전문 분야에 활용 가능한 상태로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농촌에 대한 기술적인 정의는 모두 다양한 지역 계획과 학술적 목적을 위해 제어된다. 기술적인(technical) 수단들은 단지 농촌을 기술할 뿐, 농촌 그 자체를 정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회문화적 정의는 농촌을 규정하는데 있어 거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의 유형을 변화시킨다는 가정하에 그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요컨대 Louis Wirth(1938)가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농촌성을 제시한 것은 바로 도시와 농촌을 이분론적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기초한 것이다. Wirth의 이분론은 20세기 초반 급격한 사회 변화를 지도화하기 위해 도시와 비도시 사회를 구분한 여러 시도 중의 하나였다

도시-농촌에 관한 이원론의 원리는 표 2-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도시 범주는 세속적이고 유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접촉에 기초하고 도시적, 산업적이며 합리적인 이익사회로 정의된다. 이에 반해 농촌에 해당하는 비도시 범주는 성스럽고 기계적이며 지위에 기반한 민속적, 군사적인 공동사회로서 전통적 속성을 중시한다.

표 2-2. 몇 가지 도시/농촌 이분론적 관점들

저자	도시 범주	비-도시 범주
Becker	세속적인	성스러운
Durkhiem	유기적	기계적
Maine	접촉	지위
Redfield	도시적	민속적
Spencer	산업적	군사적
Tönnis	이익사회	공동사회
Weber	합리적	전통적

이러한 도농 이분론적 관점은 ‘농촌’ 공동체에 관한 초기 연구들에 영향을 끼쳤지만, 농촌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이후 도전을 받게 되었다. 농촌과 도시 지역이라는 단순한 이분론은 없다고 깨닫게 된 연구자들은 대신 도시성과 농촌성의 다양한 수준에서 공동체의 다양성이 확인되는 것을 인지했다. 이로써 농촌-도시 연속체론이 고안되었다. 취락은 원격지 농촌지역에서 점이지역으로, 다시 근대 도시로 스펙트럼을 따라 자신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Pahl<sup>32)</sup>은 영국 사례를 제시하면서 농촌-도시 연속체론 원리를 반박했다. 그는 이 원리가 농촌사회에서의 도시 양상을 무시했으며 농촌내의 다양한 사회집단의 특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촌을 정의하는데 있어 농촌-도시 이원론과 농촌-도시 연속체론은 농촌을 도시생활에서 결핍되어 보이는 안정감, 조화로운 공동체,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유한 것으로 묘사하고 상징화함으로써 농촌 자체를 고립시켰다. 이것은 신화였으며, 결정론들은 공간과 시간을 오해했다.<sup>33)</sup>

따라서 우리는 경험적 구조를 우선시하는 것도, 공간과 사회사이의 그릇된 이분론에 의존하는 것도 아닌 농촌공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게 되었다.<sup>34)</sup>

32) Pahl, R. E., 1966, The rural-urban continuum, *Sociologia Ruralis* 6, pp.299~327.

33) John Cater and Trevor Jones, 1989, Contemporary Rural Society in *Social geography-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issues*, Edward Arnold, p.194.

## 2) 정치경제학과 로컬리티 연구에서의 농촌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기능적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의문시한다. 이 관점은 농촌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측면은 물론이고 농촌 사회경제변동의 요인도 보통은 국지적 공간의 외부에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도시-농촌 시스템은 국가-지역-국지시스템으로 치환된다. 공간적으로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공간에서 전개되는 경제 역학들, 구체적으로는 근대화를 통해 도시에 집적한 자본이 최근 재편성의 과정에서 더욱 양호한 축적환경을 요구하면서 농촌의 국지적 자원을 주목하게 되었다. 도시의 축적된 자본이 농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농산물, 노동력, 토지, 환경 등의 국지적 자본들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는 과정이고, 정치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기능으로서 농촌정책과 농촌계획들이 중앙 대 지방의 권력 시스템을 통해 농촌의 국지적 공간을 '통치'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sup>35)</sup>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중첩하는 노동의 공간분업,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장소로서의 로컬리티, 국지적인 사회구조에 나타난 변화 등과 같은 여러 비판적 개념은 독특한 '농촌' 로컬리티가 있다는 점을 문제화하여<sup>36)</sup>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어떤 종류의 장소라도 광범한 재편성 과정속에서 국지적 사회로부터 이끌어낸 특이성을 갖는 것처럼 농촌공간 역시 전체로서의 '농촌'이라고 하는 한 가지로 합치될 수 있는 장소성을 보이지는 않는다<sup>37)</sup>는 것이다.

---

34) Halfacree, K. H., 1993, *ibid.*, pp.23~37.

35) Cloke, P., 1989, Rural Geography and Political Economy, in R. Peir and N. Thrift(eds) *New Models in Geography: the Political-economy Perspective*, Unwin Hyman, pp.164~197.

36) Urry, J., 1984, Capitalist Resturcturing, Recomposition and the Region, in T. Bradley and P. Lowe eds., *Locality and Rurality: Economy and Society in Rural Regions*, Geo Books, p.59.

결국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농촌공간을 폐쇄되어 있는 독립적 개체로 간주하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농촌공간을 끊임없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집단들로 구성된, 매우 유동적인 존재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Halfacree는 최근 국지성(locality)이라는 뚜렷한 형태에 따라 농촌을 정의하고 농촌 공간을 문제 지향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8)</sup>

### 3)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으로서의 농촌

Mormont<sup>39)</sup>는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가 이제 농촌공간과 도시공간, 읍과 시골, 국지적 커뮤니티와 외부 세계와의 구분을 함축하는 전통적 패러다임에 따라 구명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오늘날 전원 지역과 관련한 사회-공간 관계를 다음 5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람·재화·메시지의 기동성 증대로, 국지적 커뮤니티는 사회 전반에서 독자의 조직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제 활동의 탈국지화 결과로 이제 경제적 의미에서 동질 지역은 정의될 수 없다. 셋째, 관광산업, 자연공원 개발 등 전원 지역을 새롭게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분야는 제 관계의 특수한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전원 지역의 다양한 주체도 국지적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넷째, 농촌지역 연구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인구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외부에서 농촌 지역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주체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농촌공간이라는 단어는 전원 지역이 도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갖게되는 제 기능을 언급할 때 사용되지만, 농촌 지역의 실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추상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sup>40)</sup>

---

37) Newby, H., 1986, *ibid.*, pp.209~215.

38) Halfacree, K. H., 1993, *ibid.*, pp.23~37.

39) Mormont, M., 1990, *ibid.*, pp.30~31.

이제 농촌공간은 단일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농촌공간은 하나의 지리적 영역에 있어 자신의 독자 논리와 조직원리 그리고 여러 주체의 네트워크를 가진 다양한 사회적 공간이 중첩되어 있다. 매우 다양한 모습의 이질적인 농촌공간이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농촌적인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은 오히려 농촌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촌을 느끼고 있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 농촌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가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sup>41)</sup>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는 농림업의 전반적 위기가 언급되는 가운데 농촌공간은 농림업생산 차원에서 자연과 환경 소비가 지닌 의미로 그 강조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환경의 정치화 혹은 정치의 공간화 문제가 새로운 농촌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sup>42)</sup>

#### 4) 사회적 재현으로서의 농촌

Halfacree가 농촌공간에 대한 관례적 접근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사회적 재현 이론(theory of social representation)의 이해와 함께 학술적인 것과 비학술적인 것 사이의 대조적 담론들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다.<sup>43)</sup>

농촌공간에 대한 사회적 재현 이론에서 기호(농촌성)와 의미(농촌성의 의미 내용)는 주요 개념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농촌에 관한 사회적 표상과 해석의 레파토리는 점차 단절되고 있다. 게다가 기호와 의미 또한 지시 대상(농촌 로

---

40) Mormont, M., 1990, *ibid.*, pp.21~44.

41) Mormont, M., 1990, *ibid.*, pp.1~44.

42) Marsden, T., 1994, Opening the Boundaries of the Rural Experience: progressing Critical Tensio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 pp.523~531.

-----, 1996, Rural Geography Trend Report: The Social and Political Bases of Rural Restructuring,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 pp.246~258.

43) Halfacree, K. H., 1993, *ibid.*, pp.23~37.

컬리티)에서 분리되고, 농촌성에 대한 언설을 횡단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표상으로서 농촌의 일상적 의미가 로컬리티로서의 농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다시 말해서 Hoggart는 자신이 말하는 언설 대상이 로컬리티로서의 농촌인 것에 반해, 보통사람들의 언설에 나타난 대상은 농촌성의 사회적 표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농촌공간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언설이 신화에 근거하지 않고 구체성에서 나온 것인데도, 농촌의 사회적 표상으로부터 추상적으로 이끌어져 나온 해석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폄하된 것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공간에 대한 사회적 재현 이론의 관점을 통해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농촌과 구체성을 지닌 로컬리티로서의 농촌을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 3. 자연과 농촌성의 사회적 구성 - 사회적 자연

전통적으로 자연은 지리학에서 주요 연구대상이었다. 지표를 환경(environment), 지역(region), 기하학적 공간(euclidean space) 그리고 사회공간(social space) 및 장소(place)로 해석하면서, 자연은 지리학의 발달과정에서 항상 중심에 있었다.

Massey<sup>44)</sup>도 ‘인문지리학’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세 가지 관련성 중

---

44) 손명철 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pp.79~96.

Massey, D., 1984, Introduction: Geography matter, in Doreen Massey and John Allen, eds., *Geography matter! A rea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0.

Massey는 인문지리학이 전통적으로 세 가지 관련성, 즉 첫째 사회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 둘째 사회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의 관련성, 셋째 경제 사회구조 정치 등 상이한 요소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하나가 사회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다시 말해 사회와 ‘환경’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주장한 사회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논리는 사회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논리와 유사하다. 실제로 이들 두 가지 관련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장소가 가지는 상징은 종종 자연적 특색과 직접 연결되기도 하며, 공간에 대한 질문은 곧 영역과 토지라는 개념속에 한정되기도 하고, 어떤 장소가 지니는 고유성의 일부는 물리적 특성들, 즉 지형이나 기후의 산물이기도 하다.

물론 현대 지리학에 와서 인간과 사회를 자연보다 우위에 두게 됨으로써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의 이원성이 표출되는 경험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지역지리학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내재한 문제들에 관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 규명은 (지역)지리학의 전통에서 오랜 과제였지만, 공간 과학적 지리학의 등장으로 인해 그 의미를 점차 상실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문제의 심화와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이 과제는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상품화 과정에 의해 야기된 자연에 대한 파괴 위협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지리학에서 장소 특정적인(국지적) 자연환경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sup>45)</sup>

이 때 자연환경은 종래의 자연 지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따라 그 의미가 만들어지는 ‘사회적 자연’을 가리킨다.

Fitzsimmons이 고안한 개념인 ‘사회적 자연(social nature)’<sup>46)</sup>은 추상적 공간으로 간주되어 온 자연을 구체성을 띤 사회적 구축물로 논의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물리적, 실제적, 개념적 재구성물인 역사, 지리, 공간처럼 사회적 관계성

---

45) 최병두, 2002, 전계서, p.151.

Mctaggart, W. D., 1993, Bioregionalism and Regional Geography: Place, People, and Networks. *Canadian Geographer* 37(4), pp.307~319.

46) Sarah Whatmore and Susan Boucher, 1993, Bargaining with nature: the discourse and practice of ‘environmental planning gain’, *Trans Ins. Br Geogr* N.S. 18, pp.166~178.

을 통해 구체성을 갖게 되는 자연을 보려고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지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연구의 성과에 힘입어 자연과 지역 및 공간 등 지금까지 인간 인식의 외부에 실재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실체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가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이 인간사회 외부에 따로 떨어져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이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자연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이 최근의 환경문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sup>47)</sup>

생태계와 사회의 상호작용, 즉 사회에 의한 자연의 전유(appropriation)는 경제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 차원(상징적 차원이나 상상적 차원)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다.<sup>48)</sup>

자연과 사회는 분리된 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공간의 차이에 따라 변증법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통합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자연은 사회에 의해서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상이한 방식으로 통합되며 이 과정은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차 있다. 자연과 사회의 이러한 시공간적 변증법적 통합을 ‘자연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말하게 된다.<sup>49)</sup>

한편 지리학에서는 공간이나 지역도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논리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공간과 장소도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인간 사회와는 떨어져 물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인간 또는 사회에 의해 구성된 산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간과 사회의

---

47) 이상현, 2000, 자연의 합리적 재마법화를 위하여, 공간과 사회 14, pp.185~212.

Hannigan, J., 1995, *Environmental Sociology: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London and NY, Routledge.

48) 이진아, 2000,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p.14.

49) 이영민·허남혁, 2001, 농촌지역 환경갈등과 농촌주민 환경운동의 역할과 의미: 양평군 팔당지역 유기농업운동을 사례로, p.20.

구성을 개인의 심리학적 경험과 주관성에 토대한 것으로 보는 행태주의적 접근법, 해석학적 상호주관성을 강조하는 인간주의적 접근, 그리고 사회적 권력 관계에 의해 공간과 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주목하는 구조주의적 방법을 들 수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동일한 물적 토대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지역정체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sup>50)</sup> 즉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에 장소와 지역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Keith & Pile, 1993),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구성된 공간성(spatiality)이 인간생활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1)</sup>

이와 같이 자연과 지역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그러한 장은 서로 상이한 권력관계에 의한 담론들의 투쟁의 장이 된다. 그러한 경쟁적인 담론들이 경합되고 갈등을 벌이면서 자연과 지역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환경정치를 담론정치로 파악하고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투쟁을 통해 자연이 구성되는 것을 환경갈등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 정치의 장이 대개는 환경문제의 특성상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권력관계와 지역이미지에 따른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갈등이 여기에 다시 개입하게 됨으로써 환경담론과 지역담론은 서로 얽혀드는 가운데 담론정치는 더욱 복잡하게 구성된다.

농촌공간은 자연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전통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식되어 온 농촌공간에서의 환경, 즉 쾌적성 요소(amenities)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경제성장과 여가시간의 증대라는 사회변화에 따라 시장에서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녹색 공간,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수려한 경관, 전통문화 등과 같이, 기존의 시장체제하에서 무임승차가 가능한 재화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개별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 현실화될 때만 이러한 재화의 소비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

50) 정근식, 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 30, pp.140~166.

51) 박영민, 1995, 자치시대 지역운동과 장소의 정치, 공간과 사회 5(2), pp.185~212.

것이다.<sup>52)</sup>

#### 1) 근대적 공간의 한계

전통적으로 농촌을 도시의 상대적 개념으로 규정하는 주장들의 공통점은 농촌과 도시의 대립 구도 속에서 도시를 근대적인 공간으로, 근대화과 도시화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농촌은 그 반대로 전근대적인 공간으로 인식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래 압축적인 공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해 오면서 오늘날 그에 수반한 도시 과잉화라는 근대적 공간의 한계가 출현함에 동시에 농촌공동화로 대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표 2-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도시화 과정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관계와 공간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 그리고 탈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작용한 사회구성기본원리가 발전주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물질적 필요의 충족에서 물질적 및 생태적 평등과 환경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도시화 과정이 전환하면서 궁극적으로 강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할 때, 농촌공간이 갖는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재음미하고 도시와의 공생 방향을 모색해야 시대적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3. 도시화 과정의 전환에 따른 사회·도시·환경의 특성 변화

---

52) 임형백·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출판부, p.vi.

구분		근대적 도시화	후기-근대적 도시화	탈-근대적 도시화
사회 구성 기본 원리	특성	산업사회	후기(late) 산업사회	탈(post) 산업사회
	기본 지침	발전주의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강(強)지속가능한 발전
	기본 관심	물질적 필요(need)의 충족	물질적 욕구(want)와 생태적 필요의 충족	물질적 및 생태적 평등과 환경정의
사회	경제	포드주의 경제	포스트포드주의(I : 경제중심적 위기 극복)	포스트포드주의(II : 생태중심적 위기 극복)
	정치·정 책	케인즈적 산업복지 국가와 정책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 국가와 정책	네트워크의존 협치 (거버넌스)국가와 정책
	사회문화	소품종 대량소비와 물질적 문화	소비 품목의 확대와 상징적 문화	소비절제(사용가치중심)와 생태적 문화
도시	특성	산업중심 도시	서비스중심 도시	생태중심 도시
	도시공간	광역도시화	세계(첨단기술)도시화	네트워크 도시화 (도시 분산화)
	도시내부	도시 재개발	도시 재활성화	도시(생태적) 복원
환경	특성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심화	자연환경 파괴 중단 및 가시적 환경오염 완화	파괴·오염된 자연 환경 복원
	환경정책	정책부재 또는 명목적 정책 (자연보호 운동 등)	사후적 통제와규제정책 (환경오염 규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사전적 관리와 복원 정책(수요관리정책 및 생태적 복원 사업 등)
	환경운동	주민환경운동 (보상중심)	시민환경운동(자연파괴 및 환경오염 반대중심)	생태환경운동 (생태환경 복원 중심)

주) 최병두·홍인옥·강현수·안영진, 2004,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도시화 - 개념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39(1), p.71에서 인용함.

한편,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이전의 단계와는 상이한 가치의 지

향점 변화도 표 2-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4. 후기 산업사회로의 과정에서 지향하는 가치의 변화

근대화 모델 → 산업화 단계			탈근대화 모델 → 후기 산업사회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낙후	→	발전	자연	←	문화
빈곤	→	부유함	마음, 정신	←	물질
촌, 시골	→	도회지	고향	←	도시, 낯선 곳
촌스러움	→	세련됨	소박함(인간적)	←	똥아빠짐(비인간적)
미신	→	과학	성스러움	←	세속적
비합리성	→	합리성	공동체 정신	←	개인주의, 자본주의
무지	→	문명	정통성, 고유성	←	변질된 것
전통	→	현대	전통	←	현대
한국적인 것	→	서양적인 것	한국적인 것	←	서양적인 것
동질화 운동			문화적 차이의 재발견, 지방성의 강조		

주) 문옥표, 1991,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농촌의 위상, 농촌사회 창간호, p.242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본적인 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대체함.

농촌이 갖고 있는 자연, 마음, 정신, 고향, 인간적이고 소박함, 성스러움, 공동체 정신, 정통성과 고유성, 전통 등과 같은 지향점은 산업화 이전으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닌 문화적 차이의 재발견을 통해 지방성, 다른 의미로 지역의 로컬리티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Cloke은 농촌연구에 있어 철학적 지향이 강조되면서 사회와 공간,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농촌연구를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농촌성의 사회적 구축은 일반적으로 첫째, 농촌 로컬리티를 포함하는 거대한 사회공간에서 사회경제정치의 움직임이 농촌의 농촌다운 물리적 환경을 형성하는 차원과 둘째, 농촌 로컬리티의 제 속

성이 농촌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고, 여러 형태로 농촌의 표상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차원과의 상호작용에서 이해되어진다.<sup>53)</sup>

## 2)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과 농촌공간의 어메니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지역발전의 토대로 인식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익과 정당성 담론이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과 결합되면서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바로 자산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은 환경이 된다. 자연 자원을 잘 보전함으로써 이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논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생태관광(ecotourism)을 등장하게 하였다. ‘녹색 황금’을 보전하고 또 선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 있어 이것을 ‘녹색발전주의(greendevlopment)’로 부르기도 한다.<sup>54)</sup>

어메니티(amenity)는 후기산업사회의 전원지향의 인구이동, 대도시권 구조 변화에 깔려있는 핵심적 동인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가장 유력한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어메니티 개념은 주로 도시의 주거환경에 적용되어 온 개념이다. 농촌의 어메니티도 이것과 완전히 다를 수는 없지만, 장소적 특수성이 고려되어 그 내용이나 강조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최근에 들어 지역개발, 계획분야에서 농촌 어메니티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농촌 어메니티를 주거만족도 차원을 넘어서 지역개발수단 혹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상품으로 평가하는 까닭이 담겨져 있다.<sup>55)</sup>

---

53) Cloke, P., 1997, Country Backwater to Virtual Village? Rural Studies and 'the Cultural Turn', *Journal of Rural Studies* 13, pp.367~375.

54) 이영민·허남혁, 2001, 전계논문, p. 22.

55) 조영국·박창석·전영욱, 2002,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2), pp.158~160.

### 3) 도시와 농촌공간의 공생 모색: 이분론과 연속체론을 넘어 공생론으로

... '농촌'은 없다. '농촌 경제'도 없다. 단지 우리의 분석적 구별, 우리의 수사적인 고안(rhetorical device)만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신이 만든 용어의 이중성(terminological duplicity)에 희생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전체 경제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촌락 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의미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촌락 부문을 비촌락 부문이 항구성을 갖는 사이에 개발될 수 있는 분리된 실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사고는 우리 자신의 어휘에 올라가며 씩씩진다<sup>56)</sup>...

농촌과 도시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크게 이분법적 접근(dichotomy approach), 연속체론적 접근(countinuum approach) 그리고 공생적 접근(symbiotic approach)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57)</sup>

이분법적 접근(농촌-도시 이분설)은 지역사회를 농촌과 도시라는 두 종류 또는 자기 완결적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본질을 고찰하려는 접근이다. 이는 농촌과 도시를 폐쇄되어 별개의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체계로 규정한다. 농촌과 도시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대표적인 특징을 상호 비교하여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도시 이분설은 농촌과 도시의 각 특징을 추상적으로 고찰하는데 유효성을 지니는 이론으로, Sorokin과 Zimmerman이 대표적인 학자군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은 도시적 요소와 농촌적 요소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실 분석에서 반드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우리나라도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적 구분은 점차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오히려 도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러면서도 동질적인 농촌의 유지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속체론적 접근(농촌-도시 연속설)은 농촌-도시 이분설의 이분법적 구분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즉 농촌과 도시를 양분하지 않고, 농촌적 요소와 도시

56) COPP, J. H., 1972, *ibid.*, pp.515~533.

57) 홍동식, 1988,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p.17.

적 요소의 정도 차이로 둘을 인식한다. 농촌적인 특성이 강한 극(極)으로부터 도시적 특성이 강한 극에 이르는 연속체적 척도를 설정한다. 즉 연속체론적 접근은 공간적·지리적 여건이 농촌·도시간에 사회·문화적인 상대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지역사회는 농촌성(rurality)과 도시성(urbanity)을 양극으로 하는 선의 한 부분에 위치하며,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농촌-도시 연속설은 도시화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농촌이 도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변동을 해석하는데 일정한 유효성을 지니는 이론으로 Redfield가 대표적인 학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상적인 파악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농촌의 변동을 가져오는 변인을 고려한 동태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농촌-도시 척도의 이론적 타당성의 결여가 지적되어 오기도 했다.

농촌사회학에서는 오랫동안 농촌-도시 연속체설에 집착하여 왔지만 Pahl이 '농촌'과 '도시'라는 개념이 설명 변수도 아니고 사회학적 범주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특히 Pahl은 유럽과 미국의 지역사회 연구에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예를 제시하였다.<sup>58)</sup> 그의 이러한 주장은 농촌연구에서 Tönnis, Galpin, Sorokin과 Zimmerman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개념 구도를 파괴했다. 뒤이은 일련의 비판 이후 농촌-도시 연속설은 쇠퇴하였지만, 농촌사회학에서는 아직 이론적 공백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생적 접근(농촌-도시 공생설)은 농촌과 도시의 상호의존적이며 유기적 인 관계를 강조한다. 생물학의 공생 개념을 차용하여 사회적 공생으로 사용한다.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을 공생관계에 입각하여 지역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상호의존적으로 구성된 인구라고 본다. 이는 농촌과 도시의 상대적 차이는 인정하되, 역동적인 상호관계로 맺어 있는 더욱 큰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anders는 농촌과 도시를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한다.

---

58) Pahl, R. E., 1966, *ibid.*, pp.299~327.

즉 농촌은 도시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회학자들은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하나의 개념적 틀 속에서 고찰하면서, 단지 특정 사회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학자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왔다는 것이다. 나아가 Sanders는 농촌에 대한 연구는 도시의 농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농촌의 도시에 대한 영향도 고려한다. 현대에 이르러 과잉도시화와 농촌의 공동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농촌과 도시의 문제를 어느 일방의 시각만 가지고는 충분히 고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촌-도시 공생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아직 이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태이다.<sup>59)</sup>

결과적으로 산업화 이전에는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였다. 농촌은 농업을 통하여 유지되며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이었고, 도시는 이를 소비하는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이었다. 농업이란 산업을 통하여 존속하는 농촌이라는 공간과 농업 이외의 산업을 통하여 존속하는 도시란 공간의 구별이 쉬웠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농촌과 도시의 구분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급격한 공업화 과정속에서 도시화를 통한 근대화를 겪은 나라에서는 더욱 어렵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농촌은 도시에 흡수되거나 도시화 과정 중에 있다. 이 경우 농촌은 농촌과 도시의 성격이 공존하게 된다. 농촌이라도 전적으로 농업에만 의지하여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며, 농촌의 특성도 많이 희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에 가까운 농촌일수록 강하다.

광범위한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농촌사회 가운데는 지속적으로 인구감소를 겪어 사회유지가 위협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도시주변의 농촌들처럼 도시화의 압력을 받아 농촌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곳도 나타났다. 산업사회에서 도시화는 농촌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이며, 도시화는 인구유출, 인구유입, 그리

---

59) 왕인근, 1983, 현대 농촌사회학, 법문사, pp.105~109.

임형백·이성우, 2004, 전계서, pp.8~11.

고 인구환류의 세 가지 인구이동 형태로 표출된다. 인구이동에 참여하는 집단의 경우, 연령, 직업, 생활방식 나아가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유입이나 유출에 따라 농촌의 성격도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은 주로 2·3차 산업에 종사하며 상대적으로 젊고 부유한 집단이다. 이들은 비록 농촌에 거주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원주택 거주자와 같은 경우에도 농촌에 거주하지만 직업, 생활방식, 가치관 등은 도시적이며 농촌보다는 도시와 관련이 깊다. 환류인구의 경우, 이들은 은퇴 후 노년을 보내기 위하여 농촌으로 유입한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적으며, 농업에 종사한다 하여도 취미 혹은 소일거리 정도의 수준이지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서의 의미는 드물다. 이들은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촌주민들과는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가지며, 농촌보다 도시와 더 빈번하게 교류하는 행동양식을 가지며 농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과거 도시의 상대적 개념으로 농촌을 규정하던 주장들은 공통적으로 농촌과 도시의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도시를 근대적인 공간으로, 근대화와 도시화를 동일시한 것으로 인식하고, 농촌은 그 반대로 전근대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특히 농업의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보편타당한 농촌 개념의 정의보다는, 그 지역에 적합한 농촌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형태의 농촌을 유지하여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농촌을 전통적인 관념대로 정의하고 동질적이고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전형적인 농촌에 도시적 요소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을 규정짓고 농촌의 안락함과 도시의 편안함이 공존하는 농촌의 모습을 유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농촌이 도시와는 구별되는 공간이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고 과잉도

시화와 농촌공동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농촌의 건설이 바람직하다. 즉 농촌을 더 이상 지리적이고 고정적으로 개념 규정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각각의 지역과 상황에 적합하게 농촌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 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sup>60)</sup>

### Ⅲ. 친환경농업공간의 전개과정과 녹색소비공간으로의 확장

#### 1. 농업과 농촌공간의 변화 국면

60) 임형백·이성우, 2004, 전계서, pp.11~22.

20세기 들어 선진시장경제체제에서 농촌은 두 가지 큰 사회변화를 겪었다. 전(前)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의 핵심은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탈바꿈한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에서는 대규모 인구유출이 이루어졌고,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대도시(권)의 발달이 두드러졌다.

산업화 초기에는 남아도는 과잉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비로소 농업의 근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인구의 유출을 반드시 나쁘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농촌의 낙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소득의 탓이고, 낮은 농업소득은 전근대적 농업구조 때문이라고 진단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도 농업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 과학적 영농기법의 도입, 농장의 규모 확대 등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행해왔다. 즉,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도 다른 산업에 못지않은 소득과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농업확장주의(agricultural expansionism)’ 또는 ‘농업에 있어서 생산주의(productivism)’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만성적 과잉공급과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 현상은 계속되었다. 이는 농촌인구 감소와 도시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농촌가운데는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를 겪어 사회유지가 위협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도시 주변의 농촌들처럼 도시화 압력을 받아 농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곳도 나타났다. 즉 도시화 영

향으로 농촌 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Lewis와 Maund<sup>61)</sup>는 도시화를 농촌변화의 핵심적 요인으로 보고 모든 농촌이 인구유출(depopulation), 인구유입(population) 그리고 인구환류(repopulation)의 단계를 차례로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험의 시기는 그 사회의 도시화 정도와 개별 농촌의 인접한 도시의 규모와 그 도시로부터의 거리라고 하는 입지 특성에 관련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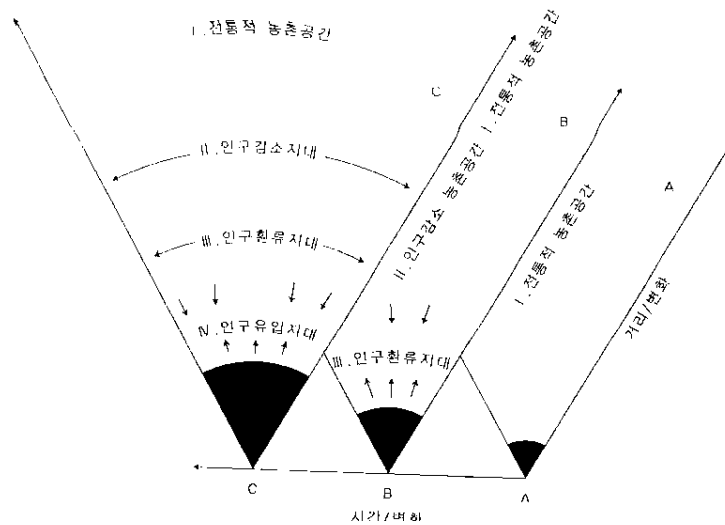


그림 3-1. 도시화와 농촌 공간의 변화

출처: 박영한 · 조영국, 2002; Lewis and Maund, 1976.

그림 3-1은 이 가설을 바탕으로 도시화 진행에 따른 농촌 공간의 시공간적 변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화 또는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의 A단계는 도시(검은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전체가 전통적 농촌 모습을 가진다. 그리고 도시화·산업화의 초기 B단계에 오면 도시와 가까운 농촌에서 인구유출이, 도시에 바로 인접한 농촌 일부에서 인구환류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전통적 농촌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된다. 그러나 원격지 농촌에서는 여전히 폐쇄된 농촌

61) Lewis, G.J. and D.J. Maund, 1976, The Urbanisation of the Countryside: a Framework for Analysis, *Geografiska Annaler* 53B, pp.17~27.

으로 존재한다. 더욱 도시화가 진행하는 C단계에 오면, 팽창하는 도시 주변의 농촌에는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그 외곽으로 인구환류지대, 인구유출지대가 넓게 발달하며, 극히 일부의 원격지역만이 전통적 농촌으로 남아있게 된다. 서로 다른 인구가동이 진행되는 농촌들끼리는 유입되는 혹은 유출되는 인구집단에 의해 농촌 공간의 성격도 달라진다.<sup>62)</sup>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화 단계에서의 농촌변동논리는 오늘날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대도시권 그리고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인구 및 고용 감소가 일어나며 원격 농촌지역에서 오히려 인구 및 고용증가가 나타난다. 그 까닭은 오늘날 농촌변동이 산업화 단계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63)</sup>

첫째, 농업에 있어서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m)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대규모의 전문화, 현대화된 농업생산방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점차 이러한 농업생산방식을 추구하는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대안농업으로서 환경친화적 농업, 조방적 농업, 다각화된 농업경영을 추구하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선진국의 정부들은 후자의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농업 현대화가 농업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문제는 물론 농촌사회의 존립 문제까지 심화시켜 왔다는 정부 스스로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정보화는 농촌과 외부세계 사이의 연결을 공간적으로 확장시키고 시간적으로 동시화하고 있다. 어디에 있는 농업인들은 국가 또는 세계시장과 직접 연결할 수 있고, 반대로 도시의 입장에서조차 가까이 있는 농촌과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진 농촌과도 손쉽게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의 변화가 농촌도시연속체론이 주장하는 바처럼, 주변 중심도시로부터 도시화 영향을 받는 정도와

---

62) 박영한·조영국, 2004, 산업화·탈산업화가 농촌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지식정보 사회의 지리학 탐색, 한울아카데미, pp.146~151.

63) Ilbery, B. eds., 1998, *ibid.*, pp.1~10.

여부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정보화의 영향은 과거 도시화·산업화 단계의 농촌변화를 설명하는 논리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이다.

셋째, 레저·관광·환경 등 농촌공간을 둘러싸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촌에는 이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 기회가 생기고, 농촌경제의 모습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서구 농촌에서 순수한 형태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농촌공간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변화의 압력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오늘날 농촌은 과거와 같이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며, 정치적으로 동질적인 지역사회'라고 보기 힘들어졌다. 오히려 도시만큼이나 최근 농촌공간들도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 성격이 다양해졌다. 게다가 과거와 같은 방식의 도시규모와 도시로부터의 거리 요인으로는 오늘날의 농촌공간이 표출하고 있는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힘들어졌다.

#### 1) 농업생산양식의 변화 ; 생산주의(productivism)에서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m)로

##### (1) 선진시장경제체제에서 농업생산양식의 변화

2차대전 이후 선진시장경제에 있어 농업은 다른 부문과 함께 재구조화를 경험하였다. 두 가지 변화의 국면, 즉 1980년대까지의 생산주의(productivism)와 1990년대 이후의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m)로 구분된다.

전자는 식량자급을 위하여 농업생산의 증대를 강조한 생산주의 시기로 농업의 지속적인 현대화와 산업화라는 특징을 갖는다. 후자는 Lowe(1993)에 의해 탈생산주의라고 명명된 단계로 농산물 생산량을 줄이고, 넓은 의미에서 농촌경제와 환경친화적 목적을 농업과 통합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후기에는 유럽

과 미국의 국제적인 농업정책의 흐름을 바탕으로 1992년의 유럽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의 제2차 개혁, 1993년 체결된 세계농업교역에 대한 GATT의 협약, 1992년의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천명된 Agenda 21에서 볼 때, 국가의 농업개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모두 농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의해 정책을 통한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생산주의가 완전히 탈생산주의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공존하고 있다. 식량의 양적 생산을 강조한 집약적이며 고도의 투입-고도의 산출 농업은 여전히 장려되는 한편 오늘날 농업생산에 있어서 저투입-저생산 방식의 농업형태가 보완되고 있다. 이 방식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과 식량의 질(quality)에 강조점을 둔다.

농업생산주의 단계에 있어 선진시장경제의 이론적 개념은 신고전적 이론을 바탕으로 상업화(commercialization), 정치경제구조적인 접근법을 원용한 상품화(commoditization), 그리고 이들 두 학파의 개념을 종합한 산업화(industrialization)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산업화 이론은 주로 식량공급체계에 관한 것으로 경험한 농업 변화는 농업의 투입재 조달 방법,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에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한 것이다.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영농규모 확대에 따라 농가경제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농업 부문, 특히 농기계, 비료 제조업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투입재가 노동재에서 자본재로 대체되면서, 기계화, 노동의 전문화가 나타났다.

생산주의 농업의 경험적 증거로 첫째, 생산주의 농업에서 세 가지 구조적 차원으로 집약화(intensification), 집중화(concentration), 전문화(specialization)가 전개되었다. 집약화 과정은 영농 투입재를 농업의 부문으로부터 구입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화는 경쟁력이 약한 농민이 농업에서 축출되면서 경쟁력이 있는 대농 중심으로 농지가 집중되는 현상이다. 전문화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농

산물의 종류를 줄이는 것이다. 농장이 특정 영농기술로 전문화되고 이것이 인근 농장에 확산되면 지리적으로 전문화된 농업지역이 형성된다. 이 전문화는 농장 설비와 함께 토지이용의 경관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식품생산 체인과 외부 자본의 출현 셋째, 농업생산주의의 외부 비용 발생 넷째, 국가의 개입과 농업 생산이라는 측면을 들 수 있다.<sup>64)</sup>

아울러 이와 같은 농업의 흐름은 대부분 국가 농업정책에 의해 조정되어 왔다. 2차 대전 이후 식량수급의 안정, 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역할 증진과 함께 농가 소득의 지지를 위해 국가가 농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개입의 타당성에 대한 주장과 정책 수단의 목표는 대부분 경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개입의 기본적 이념은 사회적·공간적 균등의 실현이다. 따라서 농업정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농업인구에 적절한 소득을 지지해 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고 또 하나는 경제부문에서 영농부문의 역할 증진을 위한 경제적 가치의 실현으로, 이 둘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농업정책의 수단은 대개 농산물의 국가 구매, 수출보조정책, 또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정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다시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비공간적인 정책과 특정지역에서만 실시되는 공간적인 정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이익 혹은 불이익을 주는 공간적인 측면을 지닌다. 따라서 농업정책은 영농규모와 형태 및 대상 지역간의 차이를 통해 농업지역의 지리적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sup>65)</sup>

탈생산주의로의 변화 경향에는 첫째, 잉여 경지의 발생과 휴경화 정책의 실시 둘째, 복합 활동의 증가 셋째,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우선, 휴경화 정책은 조방화의 한 예이며, 복합 활동의 증가는 농가 세대 가구원을 기준으로, 일차적인 농업으로 얻어진 수입뿐 아니라 농업 또는 비농업적인 활

64) Brain Ilbery and Ian Bowler, 1998, *From agricultural productivism to post-productivism*, Ilbery, B., eds, *The Geography of Rural Change*, pp.57~84.

65) 김기혁, 1999, 영국의 농업정책이 지리적 전문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1), pp.101~102.

동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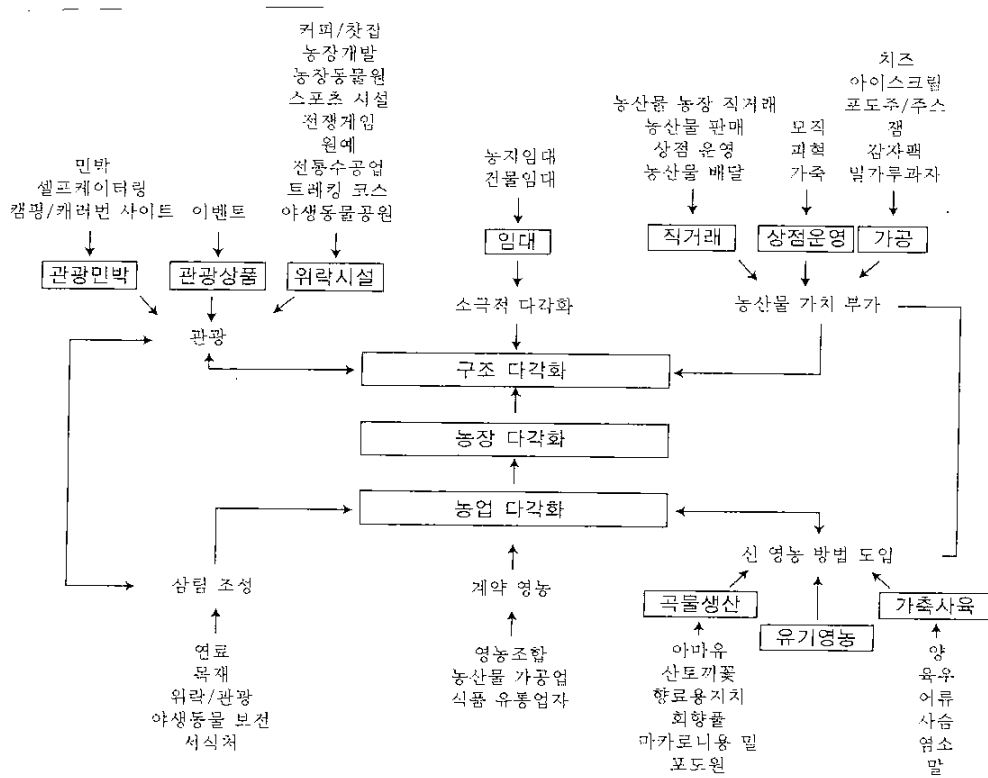


그림 3-2. 농업과 농촌공간의 다각화 방식

출처 ; 박영한 · 조영국, 2004, p.166 ; Bowler, 1996, p.92.

최근 선진국 농장경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로 널리 재배되는 일반 작물이 아닌 특별히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거나, 레저활동, 민박과 같은 농외 활동을 통해 농장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복합활동(pluri-activity)은 종래의 겸업(part-time farming)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농장 다각화(farm diversification)라고 한다. Bowler(1996)는 크게 농업 다각화와 구조 다각화로 구분하였는데, 농업 다각화는 삼림조성, 계약영농, 새로운 작물재배나 재배방식의 도입을 가리키고, 구조 다각화는 관광민박, 체험관광, 레

저활동, 직거래 및 가공 등 농업생산 이외 활동을 도입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한편, 농업에 있어서 탈생산주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경험적 사례가 바로 환경친화적 농업내지 유기농업의 확산이다. 물론 환경보호와 농촌관리의 목적으로 정부가 장려 및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영향도 있지만, 농업인 스스로 환경친화적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확산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초기에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인식에 토대해 환경친화적 농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가 늘면서 유기농산물내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늘고 있다. 생산자의 측면에서 볼 때, 관행농업을 멈추고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사실 생산량 감소분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점차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참여가 늘고 있다.<sup>66)</sup>

친환경농업실천은 탈생산주의로의 변화에 있어 핵심 개념인 지속가능농업과 연결된다. Brklacich(1990)는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에 대해 세 가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은 지나친 오염없이, 고갈 또는 토양, 물, 공기와 같은 자연상태 혹은 반자연상태의 서식 등과 같은 자연 자원의 기계적 파괴없이 농업체계의 용량이 지속되어 미래에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socio-economic sustainability)은 생산시스템에 고용된 용량에 대한 수용할만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농업시스템의 용량을 의미한다.
- 생산적 지속가능성(productive sustainability)은 비농업인구를 부양할만한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시스템의 용량을 의미한다.

탈생산주의 단계에서 소수 농업인들만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이상적

---

66) 박영한·조영국, 2004, 전계서, pp.166~168.

모델을 추구하였다. 가장 먼저 유기농(organic farming)이 논의되었다. 농화학 또는 무기질 비료의 제거와 농업 노동력의 수요 창출이라는 이점을 제공했지만, 단위경지면적당 낮은 생산성과 함께 유기질 영양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이 문제화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농업인들은 국가가 제시하는 농업개발의 규제 사항을 따르는 기구주의자들의 모델을 따르게 되었다.<sup>67)</sup>

## 2) 서구 환경농업정책의 전개 특성

서구에서 농업정책과 관련한 환경에 대한 논의는 매우 오래되었다. 낭만주의에 바탕을 둔 자연(nature)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에 출현한 환경주의 이전에 이미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수자원과 토양자원을 보전하고, 경관과 야생식물의 보호, 생물종의 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Potter, 1998). 하지만 ‘환경농업’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시행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와서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2차 대전 후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각은 매우 긍정적이어서, 농업활동이 생물의 다양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농업 경관은 준자연적(semi-natural) 경관인 동시에 문화적 경관으로 여겨졌다. 전통농업체제를 유지한 지역은 보호를 받았고, 농가건물, 경지관리울타리, 수로, 연못 등 농업활동을 위해 형성된 경관들은 심미적 가치까지 부여받았다. 농업의 포기나 농지의 전환은 자연 경관의 질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대 들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전후 30여년동안 이뤄졌던 농업의 현대화와 근대화로 인해 지금까지 농업과 환경의 긍정적 상호관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기존의 농업 정책에 대해 환경보전론자들이 반기를 들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농업에서의 환경적 사고가 적극적으로 돌아섰고 범위도 더욱 확대되었다. 농업을 통해 잃어버린 것들을 재창조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Bowler, 1997). 환경주의자

---

67) Brain Ilbery and Ian Bowler, 1998, *ibid.*, pp.57~84.

들의 보전 개념은 소극적인 토양보전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수질과 습지의 보호문제 등으로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환경농업정책의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생산성 향상 위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환경보전 측면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서 농업지원과 환경보전사이의 균형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의 1985년 식품보호법 개정은 환경보전론자들에게 특히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환경농업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돌출된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Sierra Club 등 환경단체들의 노력과 로비를 통해 보전유보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Potter, 1998). 이 프로그램에서는 농민이 침식되기 쉬운 토지에서 농업을 중단하고 목초나 나무를 심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Potter, 1998).

유럽에서는 1983년과 1984년 농업구조정책의 재검토 과정에서 환경농업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조건불리지역 규정의 수정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자연적인 장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보전단체들은 ‘이들 지원금은 농업에 장애가 있는 지역의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며 이로써 이 지역에서도 영농이 지속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고, 농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환경농업정책이 구체적으로 실시되면서 선진국들은 농업과 환경관련 정책을 정비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보전유보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수정하였는데(Potter, 1991), 1930년대와 1950년대의 휴경 보조금제도를 부활시킨 것이 그 한 예이다. 새로운 농업환경정책이 스위스, 영국, 네델란드 등의 서유럽 국가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이 정책은 유럽연합과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 채택되기 시작했다(김은순, 1998). 환경농업정책은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보상정책, 장려정책, 규제정책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Bowler, 1997).<sup>68)</sup>

---

68) 김기혁, 1999, 영국의 환경농업정책과 농민의 태도 연구,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지원

### 3)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시기별 주요 변화

해방 후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주요 변화는 크게 여섯 시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sup>69)</sup>

건국이후 혼란기(1949-1960)는 격동기로 1950년 ‘농지개혁’을 통한 자작농 창설, 농업증산계획과 잉여농산물 도입 등을 통한 식량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산업성장기(1961-1976)에는 농지개방 및 농업생산기반 투자 확대와 통일벼 보급의 증산노력으로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고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새마을운동, 고미가정책이 추진되었다.

전환기에 해당하는 산업성장촉진기(1977-1988)에는 상업농 시대에 부응한 농업소득원의 다각화와 식량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 및 도·농 균형개발을 위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역점을 두었다.

국제화시대(1989-1995)에는 개방화·국제화의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통한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었다.

1997년 IMF 이후 국민의 정부(1996-2002)가 들어서면서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적인 구조 개선이 단행되어 농촌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가 1999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제 2단계 농업·농촌투자 및 용자 계획을 수립하고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농가의 부채 규모를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을 뿐 농촌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적 농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어 국내에서도 무공해 농산물, 친환경 농법 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친환경농업

---

대학해외파견교수 연구보고논문, pp.7~11.

69) 농림부([www.maf.go.kr](http://www.maf.go.kr)) 자료.

김병택, 2002, 한국의 농업정책: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한울아카데미, pp.53~114.

렌릉시·정지웅·박덕병, 1996, 한·중 농업정책변화(1948-95)의 비교연구, 농촌사회 6, pp.247-266.

육성법이 제정되고, 1998년에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무공해 농법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분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었다.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이래, 매년 대풍작을 이루는 농촌에 생산량 대비 고소득을 보장하는 무공해 농산물 확산과 각종 농약으로 악화된 농촌지역의 환경보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2003-현재) 시기에 들어와서는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부터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균형발전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틀 마련으로 농업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데 이를 위해 경영규모 확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출확대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로서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확충하는 것으로 농업구조개편과 선순환 관계가 되도록 연계성장화에 중점을 두어 영세·소농의 경영 및 소득구조, 복지실태를 조사,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도이다.

이 시기의 핵심 과제는 농가부채경감, 직불제 확충, 농촌 활성화, 농촌복지개선, 협동조합개혁 등이다. 이 중에서 직불제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직불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대폭 보완하는 한편 무차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친환경농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농촌 활성화 과제를 위해서는 전통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편익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도시민 등의 외부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주5일 근무와 농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 등의 여건 변화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유치센터 운영과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2.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출현 배경

1990년대 리우 회담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서 확대 심화되고 있다. 과거 고투입-고산출의 생산주의에 따른 집약적 농업생산 시스템이 가져온 환경문제가 심화되었고 이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숙고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 1) 친환경농업의 개념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환경친화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농업의 한 형태로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농업이다. 친환경농업의 기본 패러다임은 자연 순환의 원리가 지켜지는 농법을 실천함으로써 농지를 둘러싼 물질순환-유기물의 환원-살아있는 흙, 안전한 농작물-건강한 인간이라는 범칙에 따르는 것이다. 장기적인 농업이익의 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순환적인 종합영농체계, 생태계의 순환과정을 활용한 고도의 농업기술 등을 지향한다.<sup>7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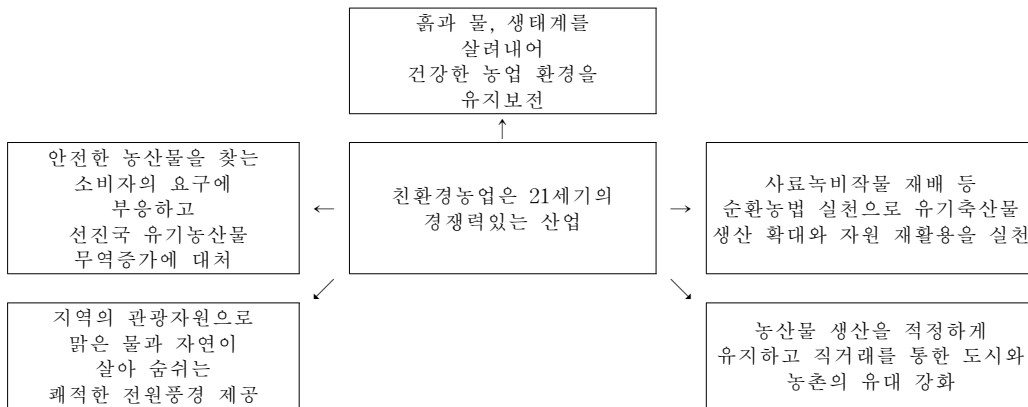


그림 3-3 친환경농업 자연순환원리

출처 : 농림부, 2001, 친환경농업과.

## 2) 친환경농업의 논의 과정

우리나라에서 환경농업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으며, 1997년에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에서 환경농업의 개념이 규정되었다. 2000년 초반부터 ‘환경농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좀더 적극적인 환경친화적인 농업이라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sup>71)</sup>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 정립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도 ‘지속가능한 농업’ 또는 ‘환

70) 농림부, 1996,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

71) 「친환경농업육성법」은 1997년 12월 제정되어 2002년 12월 개정되었으며, 2005년 3월 현재 새로운 개정안 내용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경보전형 농업’, ‘환경조화형 농업’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렇듯 친환경농업에 관한 개념은 각 국가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고, 더욱 보편화된 개념 정립을 모색하는 중에 있다.

표 3-1. 친환경농업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

용어	주요 사항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은 Sustainable Agriculture의 번역용어로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적 농업, 지속형 농업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
저투입 농업	미국의 1985년 농업법(the Food Security Act of 1985)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저투입을 기초로 한 지속가능 농업, 저투입형 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
균형투입 지속가능농업	유기물질의 균형투입을 기초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균형투입 지속가능농업(Balanced Inputs Sustainable Agriculture)이라 하는 바 FAO에서 종합적인 식물영양시스템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임.
친환경농업	환경친화적인 농업 또는 축약하여 환경농업(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e)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거의 의미가 같음. 즉,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환경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의미함. 일본에서는 ‘환경보전형농업’이란 용어로 불리고 있음.
대체농업	관행농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대체농업(Alternative Agriculture)이란 용어로 사용된 적이 있으며 현재에도 쓰이고 있음.
유기농업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이라 부르고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유기농법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생명동태농업	작물 윤작, 가축분뇨의 재활용, 경종과 축산의 연계 등 토양과 작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연순환형 생산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생명동태농업(Bio-dynamic Agriculture)으로 불림.
자연농업	토착미생물을 활용하여 토양활력을 되살려 강건하게 작물을 생산하

	는 경우 자연농업(Natural Agriculture)으로 불리고 있음, 자연농업협회가 정의한 용어로 국제적으로는 통용되지 않음.
특수농업	친환경농업의 실천농법의 유형으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미꾸라지농법, 활성탄농법, 키토산농법, 쌀겨농법, 참깨농법 등 여러 가지 농법을 총칭하여 특수농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정밀농업	인공위성이나 센서를 이용한 자동위치측정장치(GPS)를 활용하여 비료나 투입물을 정밀하게 적용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농업자원을 관리하는 경우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이라 칭하고 있음.

출처 : 김창길, 2004,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주요 실천과제, p.24의 내용을 인용함.

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은 농업생태계의 순환원리와 공생원리에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토양· 대기· 물· 에너지 등을 이용해 오고 있고, 영속을 위해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고 공생자라는 입장에서 자연환경과의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이 결합된 산업으로서 자연생태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존공생의 원리와 생명순환원리에 기초를 둔 친환경농업을 지향하게 된다. 그 까닭은 친환경농업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초적인 식량을 생산하고, 식량으로 이용되는 동식물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관점을 갖고 생명순환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간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중시하는 공존공생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기<sup>72)</sup> 때문이다.

유기농업(organic farming)은 사전적 의미로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생장조정제,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업”으로 정의된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유기농업’과 유기농산물‘이라는 용어를 각각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의 하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 ‘친환

72) 최양부, 2001, 친환경농업의 철학적 기초 : 자연과 농업, 인간의 올바른 관계설정, 진안환경농업대학 특강자료.

경농업'은 화학자재를 적정수준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를, '유기농업'은 일체의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업의 개념은 우리나라 친환경육성법<sup>73)</sup>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 3)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4년 12월 농림부에 친환경농업과가 신설되었고, 1996년 7월에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였다. 1997년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이후,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에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1년-2005년)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표 3-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달단계는 크게 5단계 즉 자생적 태동기(1970-1985), 자생적 성장기(1986-1990), 정부 제도화기(1991-1994), 정부 육성기(1995-2000), 국제적 표준화기(2001-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2. 유기농업의 발달단계와 주요 친환경농업 정책의 추진내용

---

73) 1997년 12월 제정되어 2002년 12월 개정됨.

시기	주요 내용
자생적 태동기 (1970-1985)	· 1976년 정농회, 1978년 한국환경농업연구회(현 한국유기농협회) 등 자생적 유기농산물 생산 및 소비단체의 결성과 토착적 유기영농기술 개발
자생적 성장기 (1986-1990)	· 한국자연농업중앙회(현 한국자연농업협회)의 결성과 일본의 유기농법 보급 · 유기농업이 자생적 농민운동으로 성장
정부 제도화기 (1991-1994)	· 1991년 3월 농림부에 “유기농업발전기획단” 설치 · 1993년 정부 유기농산물품질인증제 실시 ·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소비단체들이 참가하여 환경보전형소비단체 협의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결성 · 1994년 12월 농림부에 환경농업과 신설
정부 육성기 (1995-2000)	·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 · 1996년 10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의 세부실천계획 수립 (친환경농업의 추진을 위한 청사진 제시) · 1997년 12월 “환경농업육성법” 제정·공포 · 1998년 12월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정 · 1998년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 시행 · 1998년 친환경농업원년 선포 · 1999년 1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의거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도입
국제적 표준화기 (2001-현재)	· 2001년 1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 친환경농산물 관리 제도를 전문인증기관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로 통합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01-2005) 계획수립과 육성법 개정 · 2001년 IFORM기본규약과 Codex유기식품규격에 맞는 유기농산물 품질 인증기준의 마련과 의무인증제 실시 · 일반 품질인증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구분 시행 · 2003년 5월 친환경농업육성 시행규칙 개정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규정 및 친환경자재 관리기관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하고 천적을 친환경농자재로 규정 · 2004년 4월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대표의 친환경농업 실천다짐대회 개최

출처 : 김창길, 2005, p.12; 정희선, 2003, p.332; 손상목, 2002b, p.71의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여년 동안의 시기에는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태동하여 성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시작되고 1997년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공포하고 이듬해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1998년

을 친환경농업 육성의 원년으로 공포했다. 생산자를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시행되었다.

2001년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국제적 표준화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면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2005년 5월 15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 유기농산물로 4단계 구분하던 것을 전환기유기 품질인증을 제외한 3단계로 간소화하였고, 생산 측면에만 국한하던 품질인증을 유통 부문에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점차 생산에서 소비 유통부문까지 확대되고 국제 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무르익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친환경’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삶의 문화가 1970-80년대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1980-90년대의 웰빙(wellbeing) 그리고 1990-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로하스(LOHAS; Lif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문화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동인을 이룬다고 여겨진다.

덧붙여 그림 3-4에서 보여지듯이,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온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으로는 환경오염부하 경감대책,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및 유통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 등과 친환경농업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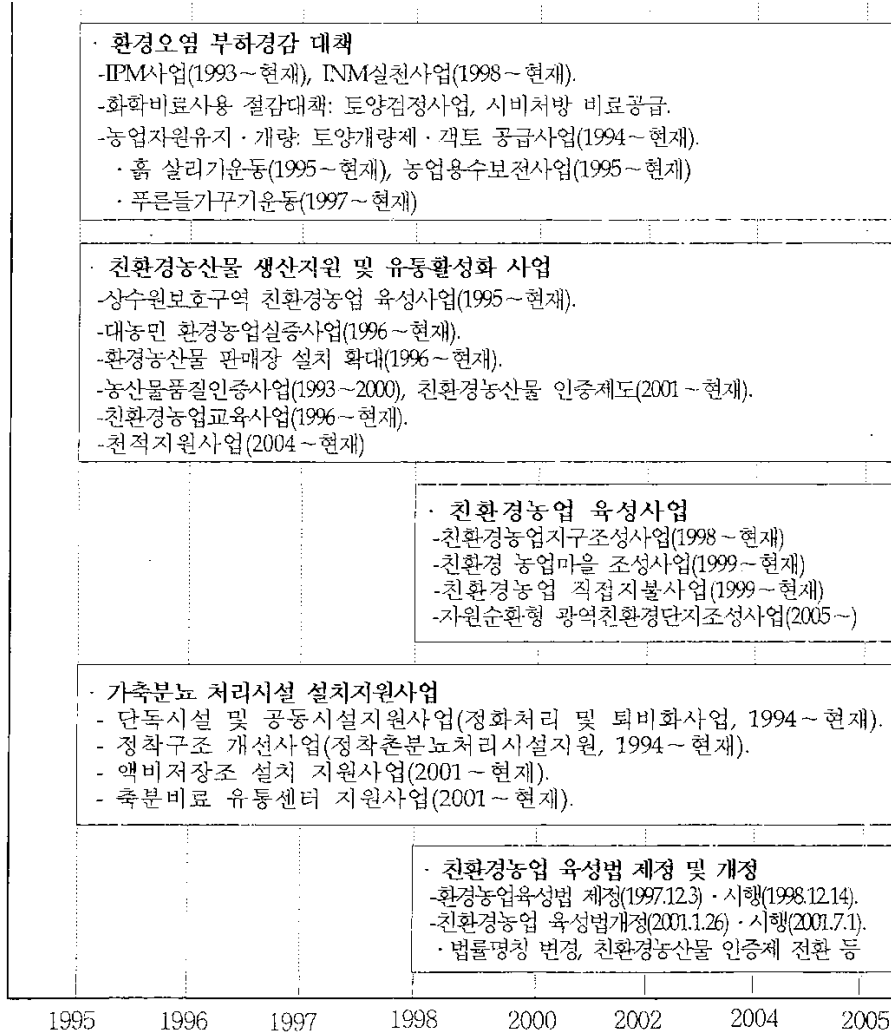


그림 3-4.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의 추진 내용

출처 : 김창길, 2005.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p.13의 내용을 인용함.

4) 우리나라 농업·농촌공간의 위기와 그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의 역할

오늘날 전환기에 놓인 한국 사회문제 중에서, 농촌이 직면한 문제로 시·공간의 압축과 농업의 글로벌 경쟁, 과학 기술혁명과 한국 농업과 농촌, 주

변화되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생활공동체의 위기 등이 지적되고 있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어 그 산물로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었다. 농업의 자유무역을 선언한 교역체계가 확립되면서 1990년대 들어 해외농산물의 수입이 본격화되었다. 더불어 정보사회의 도래는 Toffler가 그의 저서 『권력이동』에서 언급했듯이 ①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이 정보기술을 통해서 제조업자에게 연결되고 ②상품의 이동 시간을 단축, 이는 Harvey도 정보사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들면서 농산물의 생산과 교역이 국제화, 지구화 되고 ③다국적 기업들이 농업시장에의 침투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혁명은 농업 부문에 있어, 바이오테크놀로지 혁명을 이끌게 되는데, 이는 과거 녹색혁명이 공공투자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농민층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선진국 대자본이 독점하고 소농이나 후진국 농민은 접근이 불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후진국과 선진국간의 농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과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유연적 생산(flexible production)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농민 계층이 전반적으로 하강이동하고 농민층의 사회적 구성에 있어 독립자영농 대 농촌하류계급(소작농 또는 영세농)이라는 농민층 분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농업과 농촌에 있어 빈곤의 누적, 즉 경제적 빈곤 → 교육에서 소외 → 의료시설에의 접근 불리 또는 이농과 도시유학 → 기존 학교의 통폐합 → 원거리 통학 → 지불비용 증가 → 빈곤 누적이 연쇄 작용하게 되어 중심에서 멀어져 주변화되고 생활공동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한다<sup>74)</sup>.

---

74) 한도현, 1996, “농촌문제 : 정보사회, 글로벌 사회 그리고 한국의 농업”, 권태환 외, 1996, 전환기 한국의 사회문제, 민음사, pp.95~126.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농업·농촌공간의 위기 국면은 향후 농정과제 도출을 위한 SWOT 분석에서 약점과 위협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점과 기회 요소가 제시되었다. 우선 우리나라 농업·농촌공간이 지닌 약점은 높은 생산비용 규모의 영세성 등 전반적인 농업경쟁력 약세, 정부 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인한 농업의 자체 성장 동력 미흡, 농가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농업과 농촌의 활력 저하,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식품산업 간의 연계 미약, 농업인 농민단체의 농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상존이다. 또한 WTO/DDA 협상, FTA의 확산 등 수입개방이 가속화하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내시장 잠식 등 악영향과 비관세 장벽에 따른 무역 분쟁, 정보화 지식기반 경제화 진행으로 산업기반의 혁명적 변화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도시민이 농업과 농촌을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전환되지 않으면 강력한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약점과 위협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농가소득의 재고 및 소득 안전망 마련, 농촌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의 증진, 농업인 농민단체를 농정에 적극 참여시켜 농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동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도 새로운 무역쟁점에 대한 대응(GMO,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 등)과 농업·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우리 농업·농촌공간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기회에는 경지정리 도매시장 RPC 등 농업 SOC 시설은 상당 수준 정비되어 있고, 선진경영체와 영세농 고령농의 세분화 및 농정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신선 친환경농산물 외식산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관광 등 여가 수요가 창출되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대일본·중국 등 수출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강점과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국제적 규범에 따른 시장 지향적 산업정책, 경쟁력있는

농업중심으로 구조 조정 촉진, 농업과 IT산업의 접목 등 타산업과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및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 대책, 시장개방에 대응한 적극적인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sup>75)</sup>

우리 국토 공간상에서 농업과 농촌공간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즉 농업에서 농업·식품·농촌으로 정책대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전체농가·평균적 농가에서 농가유형별 정책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 생산 기반 등 SOC에 투융자를 집중하던 방향도 소득·복지·지역개발로 전환하고 있다. 소득안정수단은 가격지지에서 소득보전의 측면으로, 정책의 중점도 생산중심에서 소비자안전과 품질중심으로 변화했다. 궁극적으로 농촌의 성격은 이상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농업생산공간에서 생산·정주·휴양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sup>76)</sup>

이와 같이 농업·농촌공간은 대내외적인 위기와 위협의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고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해 극복하여 가고 있다. 특히 산업화 단계의 관행농업은 생산주의철학에 기반하여 의존, 집중화, 경쟁, 자연의 지배, 전문화, 착취와 같은 심각한 위기의 특성을 산출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농업은 탈생산주의철학에 입각해 독립, 탈집중화, 지역사회, 자연의 조화, 다양성, 삼가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농업과 환경 그리고 인간과 자연 및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가고 있다(표 3-3).

표 3-3. 대안농업과 관행농업간의 특성비교

75) 농림부, 2004.12,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p.9.

76) 농림부, 2004.12, 상계서, p.13.

구분	관행농업	대안농업
의존 대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자본-집중적인 생산단위와 기술</li> <li>· 에너지, 투입, 신용 등 외적 자원에 강한 의존</li> <li>· 소비주의와 시장에 의존</li> <li>· 과학, 특수인, 전문가 우선적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자본-낮은 생산단위와 기술</li> <li>· 에너지, 투입, 신용 등 외적 자원에 의존의 감소</li> <li>· 더 많은 개인적, 지역적 자기 충분성</li> <li>· 개인적 지식, 기술, 지역의 지혜에 관한 우선적 강조</li> </ul>
집중화 대 탈집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혹은 국제적 생산, 가공 판매</li> <li>· 인구집중, 소수농민</li> <li>· 집중화된 토지, 자원, 자본의 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국소적, 지역적 생산, 가공, 판매</li> <li>· 분산된 인구 ; 더 많은 농민</li> <li>· 분산된 토지, 자원, 자본의 통제</li> </ul>
경쟁 대 지역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의 부족 ; 자신의 이익</li> <li>· 농장전통과 농촌문화를 구시대적 것으로 봄</li> <li>· 농업에 필요하지 않은 작은 농촌사회</li> <li>· 농장 일은 단조롭고 고된 것 ; 노동과 투입 최소화</li> <li>· 농업은 오직 상업임</li> <li>· 속도, 양, 이윤 우선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가된 협동</li> <li>· 농장전통과 농촌문화의 보존</li> <li>· 농장에 필수적인 작은 지역사회</li> <li>· 농장 일은 의미 있음 ; 노동은 의미를 만든데 필요함</li> <li>· 농사는 삶의 양식임</li> <li>· 영구성, 질, 미 우선 강조</li> </ul>
자연의 지배 대 자연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어 있으며, 자연보다 우월함</li> <li>· 자연은 우선적으로 사용될 자원임</li> <li>· 생태주기 불완전 ; 죽음(재순환 쓰레기) 무시</li> <li>· 인간이 만든 시스템 자연에 부과</li> <li>· 농화학으로 유지되는 생산</li> <li>· 고도로 가공된 영양풍부한 식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은 자연의 부분, 자연에 종속됨</li> <li>· 자연은 우선적으로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가치 있음</li> <li>· 생태주기 완전 ; 성장과 죽음 균형</li> <li>· 자연의 생태시스템 모방</li> <li>· 비옥한 토양으로 유지되는 생산</li> <li>· 최소가공, 자연 영양식품</li> </ul>
전문화 대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은 유전적 기반</li> <li>· 대부분 식물 단일 기반에서 성장</li> <li>· 지속적인 단작화</li> <li>· 가축과 곡물의 분리</li> <li>· 고도로 전문화된 환원적 과학과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넓은 유전적 기반</li> <li>· 대부분 식물 다양한 기반에서 성장</li> <li>· 상보적 윤작에 의한 다양한 곡물</li> <li>· 가축과 곡물의 통합</li> <li>· 지역으로 적응된 생산 시스템</li> </ul>
착취 대 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적 비용 종종 무시</li> <li>· 단기적 이익을 장기적 결과보다 중시</li> <li>· 비재생자원의 과도한 사용에 기반</li> <li>· 과학과 기술의 상당한 신뢰</li> <li>· 경제성장의 유지를 위한 고도의 소비</li> <li>· 재정적 성공 ; 바쁜 생활주기 ; 물질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적 비용 고려</li> <li>· 단기, 장기적 결과 동등하게 중시함</li> <li>· 재생가능한 자원에 기초 ; 비재생 자원 보존</li> <li>· 제한적인 과학과 기술의 신뢰</li> <li>·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소비 삼가</li> <li>· 자기발전 ; 더 단순한 생활주기 ; 비물질주의</li> </ul>

주) 김종덕, 2002, 농업의 세계화와 대안농업운동, 농촌사회 12(1), pp.143~144에서 인용함.

### 3. 친환경농업공간의 지역적 전개 특성

2001년 7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을 ‘유기재배농산물’ ‘전환기유기재배농산물’ ‘무농약재배농산물’ ‘저농약재배농산물’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각 인증종류별 생산조건은 표3-5와 같다.

표 3-4.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별 생산조건

구분	생산 조건
유기재배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li> <li>·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함</li> <li>·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함</li> <li>· 축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함</li> <li>· 재배 포장은 다년생 작물의 경우는 최초 수확하기 전 3년의 기간, 그 외의 작물은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의 전환기간 이상 동안의 재배방법을 준수한 포장이어야 함</li> </ul>
전환기 유기재배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li> <li>·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함</li> <li>·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함</li> <li>· 축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함</li> </ul>
무농약 재배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이하를 사용하여야 함</li> <li>·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li> <li>·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함</li> <li>· 축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야 함</li> </ul>
저농약 재배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비료는 농업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이하를 사용하여야 함</li> <li>·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이하,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시기의 2배수를 적용하여야 함</li> <li>·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함</li> <li>· 축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함</li> </ul>

출처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의 내용을 기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의 내용을 첨부하여 필자가 재구성.

1) 친환경농업의 성장 추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현실적으로 1999년까지는 875ha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4년 말 현재 약 3.37배 증가한 29,519ha로 전체 농경지면적의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증 유형별로 보면, 1999년에 유기재배가 26.3%, 무농약이 30.0%, 저농약이 43.7%를 차지했으나 2004년에는 유기재배가 12.6%, 전환기 7.2%, 무농약 28.8%, 저농약 51.4%로 나타나 유기재배 인증면적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전환기 유기재배 및 저농약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인증면적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수준은 최근 급속한 성장세에 있지만 아직은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정도인 초보적인 수준이다.

표 3-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면적 및 비중

단위 : ha, %

구분	전체 인증 면적					전체 경지면적 (천ha)	인증면적 ----- 전체경지면적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1999	875 (100.0)	231 (26.3)	0 (0.0)	262 (30.0)	383 (43.7)	1,899	0.05
2000	2,039 (100.0)	296 (14.5)	0 (0.0)	876 (43.0)	876 (42.5)	1,889	0.15
2001	4,553 (100.0)	448 (9.8)	2 (0.0)	1,293 (28.4)	2,811 (61.7)	1,876	0.24
2002	11,240 (100.0)	1,062 (9.5)	539 (4.8)	3,727 (33.2)	5,911 (52.6)	1,863	0.60
2003	22,237 (100.0)	1,894 (8.5)	1,433 (6.4)	6,756 (30.4)	12,155 (54.7)	1,846	1.21
2004	29,519 (100.0)	3,712 (12.6)	2,117 (7.2)	8,515 (28.8)	15,175 (51.4)	1,846	1.60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http://www.naqs.go.kr))과 농림부([www.maf.go.kr](http://www.maf.go.kr))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친환경농업의 국제적 흐름에서,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은 100여개 이상의 국

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북미와 서부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 유기농업 실천 현황을 경지면적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오스트리아(11.6%), 스위스(10.0%), 이탈리아(8%) 순이다(표 3-6).

2002년 기준 세계 유기농산물 시장에서 거래액(유기가공 농식품 포함)은 약 230억 달러(약 23조원)로 추정되고 있다. 아시아의 유기농 시장은 아직 일본, 싱가포르, 한국,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일로에 있고 거래 규모는 약 3.5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수년 내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국도 유기농식품 수출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sup>77)</sup>

표 3-6. 세계 유기농업의 실천 현황

---

77) 김창길·신용광·김태영, 2005. 1, 친환경농업의 현실과 비전, 농업전망2005(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25~129.

국가	조사년도	유기농업면적 (ha)	경지면적 대비 비중(%)	농가수 (호)
<b>한국</b>	<b>2003</b>	<b>3,326</b>	<b>0.17</b>	<b>2,748</b>
오스트레일리아	2002	10,000,000	2.20	1,380
아르헨티나	2002	2,960,000	1.70	1,779
이탈리아	2002	1,168,212	8.00	49,489
미국	2001	950,000	0.23	6,949
브라질	2002	841,769	0.24	19,003
영국	2002	724,523	4.22	4,057
독일	2002	696,978	4.10	15,628
스페인	2002	655,055	2.28	17,751
프랑스	2002	509,000	1.70	11,177
캐나다	2002	478,700	1.30	3,510
중국	2001	301,295	0.06	2,910
오스트리아	2002	297,000	11.60	18,576
칠레	2002	285,268	1.50	300
멕시코	2002	215,843	0.20	53,577
스웨덴	2002	187,000	6.09	3,530
덴마크	2002	178,360	6.65	3,714
핀란드	2002	156,692	7.00	5,071
스위스	2002	107,000	10.00	6,466
헝가리	2002	103,672	1.70	1,116
포르투갈	2002	95,912	2.20	1,059
뉴질랜드	2002	46,000	0.33	800
네델란드	2002	42,610	2.19	1,560
인도네시아	2001	40,000	0.09	45,000
노르웨이	2002	32,546	3.13	2,303
그리스	2002	28,944	0.86	6,047
벨기에	2002	20,241	1.45	700
쿠바	2002	10,445	0.16	5,222
일본	2003	8,471	0.15	3,993
이스라엘	2002	5,030	0.90	420
태국	2002	3,993	0.02	1,154

출처 : IFORM.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04.

주) 한국의 유기농업 현황에는 전환기 유기채배 농가가 포함됨.

## 2)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분포 특성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활동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1970년 50.4%에서 2004년 현재 8.8%로 급격하게 감소해왔다. 총가구수 대비 농가의 비중도 42.4%에서 8.3%대로 크게 감소해왔다. 1차 산업과 농촌공간이 처한 위기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더욱이 1990년대 들어서 이러한 위기감은 농촌공간 내부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공간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해지는 WTO체제하 농산물시장개방과 얽혀 더욱 확연해졌다. 환경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고민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은 농업과 농촌공간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3-7. 전체 농가수와 친환경인증농가 추이 비교

연도	1차 산업 구성(%)	전체 농가수 (호)	총가구수 대비 농가(%)	친환경 인증농가 (호)	전체농가수 대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호)
1970	50.4	2,483,000	42.4	-	-
1975	45.7	2,379,000	35.2	-	-
1980	34.0	2,155,000	27.0	-	-
1985	24.9	1,926,000	20.1	-	-
1990	17.9	1,767,000	15.6	-	-
1995	11.8	1,501,000	11.6	-	-
1999	11.3	1,382,000	10.2	1,306	0.09
2000	10.6	1,383,000	9.7	2,448	0.18
2001	10.0	1,354,000	9.1	4,678	0.35
2002	9.3	1,280,000	8.5	11,892	0.93
2003	8.8	1,264,000	8.3	23,301	1.84
2004	8.8	1,264,000	8.3	28,987	2.29

출처 : 농림부([www.maf.go.kr](http://www.maf.go.kr))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or.kr](http://www.naqs.or.kr))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 이뤄졌던 관행농법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농업과 환경이 함께 고려되는 친환경농업은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와 함께 대두되기 시작했다. 2000년 농어업총조사 결과, 전체농가 1,383,468호에 대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60,275호로 4.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 와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품질인증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전까지 신고제로 이루어지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농산물을 4단계로 구분하여 품질인증을 시행하기 시작했다.<sup>78)</sup> 품질인증제의 시행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인증농가의 수치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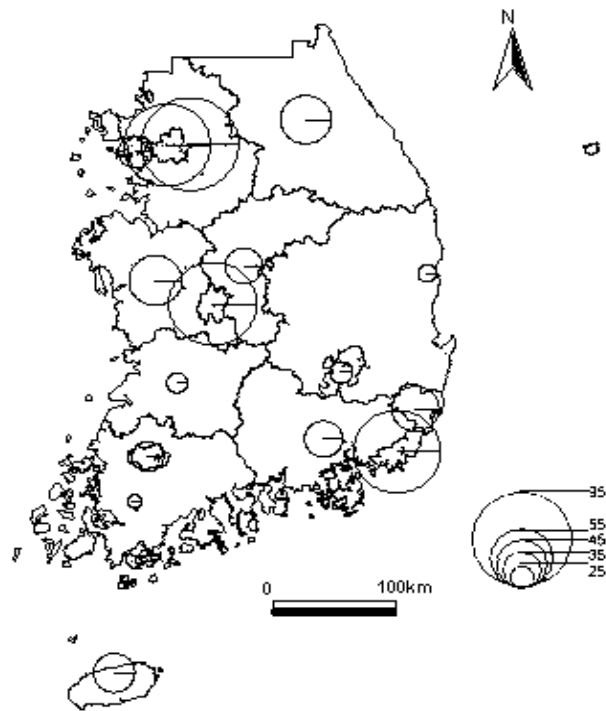


그림 3-5 시도별 전체농가대비 실천농가(%)  
출처: 농림부, 2000, 농업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2000년 농업총조사 결과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시도별 분포 특징을 살

78) 2005년 5월 15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단계는 3단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의 3단계로 간소화되었다.

펴보면, 시도별 전체 농가수 대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비중은 경기도가 10.62%로 가장 높다. 대전(9.36%), 부산(9.26%), 서울(9.22%)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며 뒤를 잇고 있다. 대도시 및 수도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실천 작물별로 보았을 때, 논벼(68.84%)와 채소(31.15%)가 친환경농업 실천의 중심 작물이 되고 있다는 점은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지역에 분포하는 벼농사지대 그리고 대도시 시장수요를 지향하는 채소 작물의 특성과도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 3-5, 표 3-8).

표 3-8.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실천작물별 농가

단위 : 호, %

구분	전체농가 C	실천농가 D	D/C*100	실천작물별								기타작물 N	N/D*100
				논벼 F	F/D*100	과수 H	H/D*100	채소 J	J/D*100	특용작물 L	L/D*100		
전국	1,383,468	60,275	4.36	41,494	68.84	7,886	13.08	18,776	31.15	1,993	3.31	2,718	4.51
유기		(3,327)		1,057		526		1,275		254		215	
무농약		(7,688)		3,115		408		2,744		671		750	
저농약		(55,596)		38,322		6,952		14,757		1,068		1,753	
서울	2,115	195	9.22	53	27.18	8	4.10	148	75.90	2	1.03	6	3.08
부산	8,408	788	9.26	358	45.43	59	7.49	491	62.31	5	0.63	28	3.55
대구	12,886	365	2.83	148	40.55	55	15.07	211	57.81	2	0.55	3	0.82
인천	15,357	572	3.72	438	76.57	46	9.04	228	39.86	4	0.70	5	0.87
광주	11,960	420	3.51	215	51.19	56	13.33	225	53.57	4	0.95	4	0.95
대전	7,075	662	9.36	231	34.89	304	45.92	158	23.87	20	3.02	29	4.38
울산	12,307	605	4.92	457	75.54	91	15.04	166	27.44	5	0.83	4	0.66
경기	148,504	15,767	10.62	12,560	79.66	843	5.35	4,511	28.61	528	3.35	871	5.52
강원	77,444	4,066	5.25	2,881	70.86	189	4.65	1,171	28.80	135	3.32	373	9.17
충북	92,132	3,703	4.02	2,614	70.59	965	26.06	583	15.74	103	2.78	101	2.73
충남	179,550	9,786	5.45	7,623	77.90	671	6.86	3,383	34.57	516	5.27	370	3.78
전북	137,417	3,692	2.69	2,510	67.98	517	14.00	975	26.41	133	3.60	124	3.36
전남	232,634	5,121	2.20	3,235	63.17	695	13.57	1,647	32.16	244	4.76	434	8.47
경북	236,222	5,928	2.51	3,150	53.19	1212	20.45	2,261	38.14	159	2.68	155	2.61
경남	170,343	6,911	4.06	5,015	72.57	822	11.89	2,289	33.12	95	1.37	139	2.01
제주	39,114	1,694	4.33	3	0.19	1,353	79.87	329	19.42	38	2.24	72	4.25

출처 : 농림부, 2000, 농어업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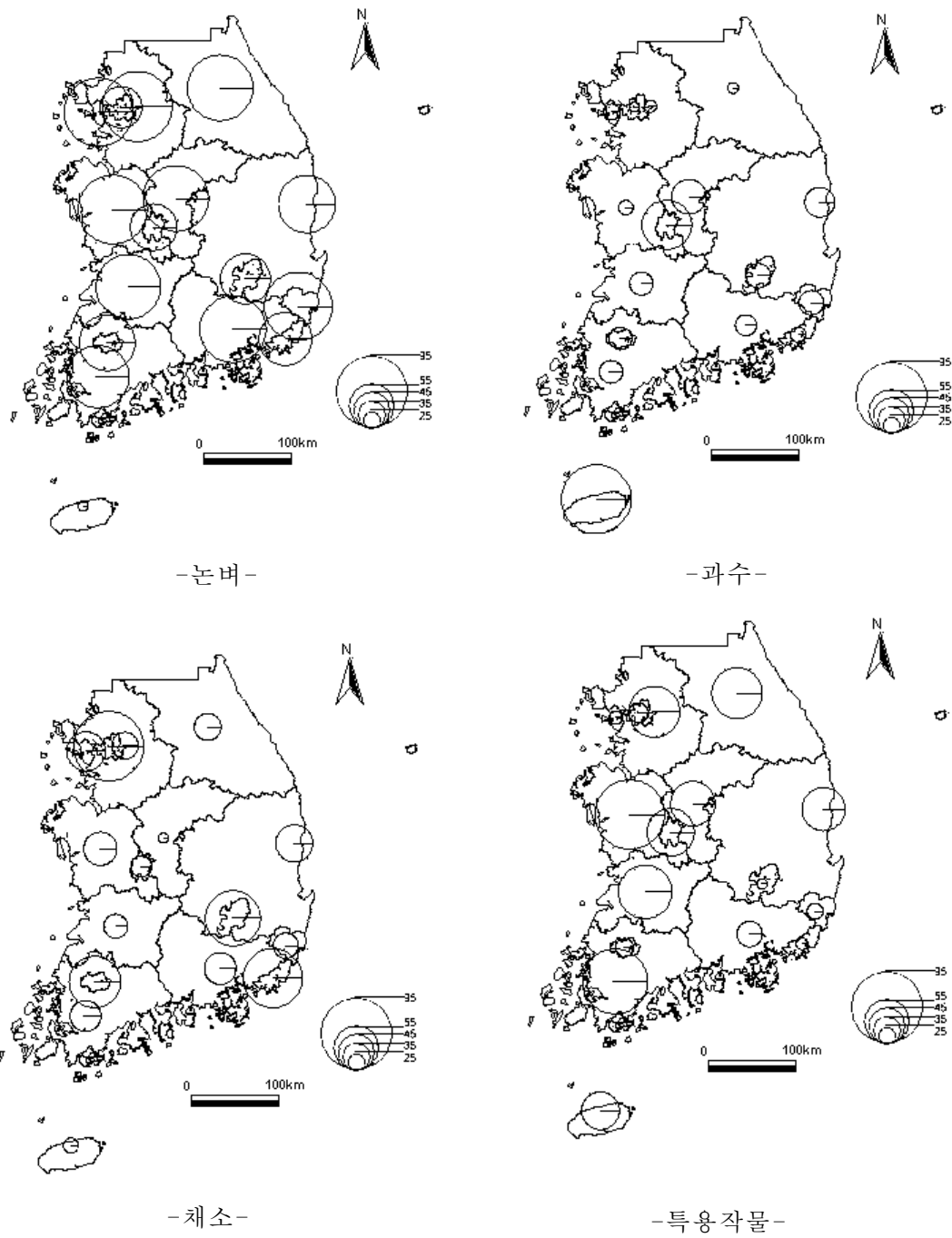


그림 3-6.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작물별 비중(%)  
출처 : 농림부, 2000, 농어업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그림 3-7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작물별 비중을 시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논벼의 실천농가 분포는 전통적인 벼농사 지대와 일치한다. 채소류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광역시의 비율이 높고, 과수류는 충남의 비율이 눈에 띈다. 특용작물의 비율은 충남, 전남, 강원도의 높은 비율이 확인된다.

대체로 전국적인 양상에서 공통적으로 논벼와 채소류의 실천농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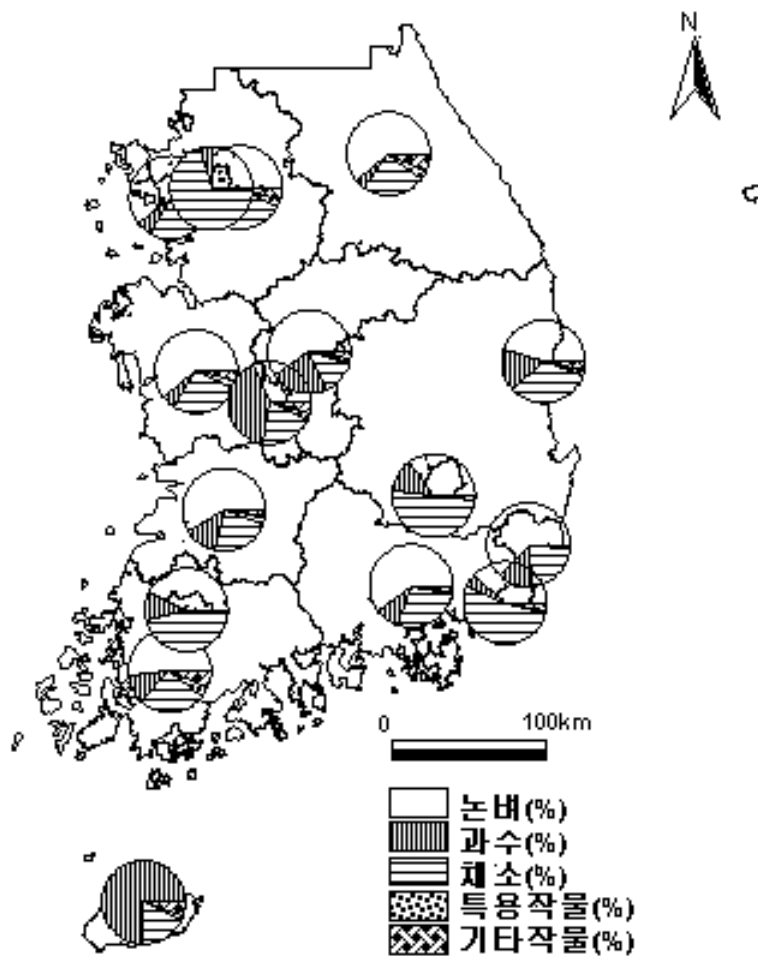


그림 3-7 시도별 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작물별 비중  
출처 : 농림부, 2000, 농어업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한편, 친환경농업의 지역별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해 작물별 재배농가에 대한 입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9. 입지계수에 의한 친환경농업의 집중도<sup>79)</sup>

작물	LQ	지역
논벼	0~0.50	전라북도, 전라남도
	0.51~1.00	경상북도
	1.01~1.50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1.51~2.00	강원도
	2.01<	경기도, 제주도
과수류	0~0.50	경상북도
	0.51~1.00	경상남도
	1.01~1.50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1.51~2.00	경기도, 충청남도
	2.01<	강원도, 전라북도
채소류	0~0.50	충청북도, 제주도
	0.51~1.00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1.01~1.50	—
	1.51~2.00	충청남도
	2.01<	경기도
특용작물류	0~0.50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0.51~1.00	강원도, 경상남도
	1.01~1.50	전라남도, 제주도
	1.51~2.00	충청남도
	2.01<	경기도

주) 정희선, 2003, “한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p.339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시 계산함.

농림부, 2000, 농어업총조사의 재배농가수로 계산함.

79) 친환경농업의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한 입지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것이다.

$$LQ = \frac{E_{iz}}{E_z} / \frac{E_i}{E} = \frac{\text{전국 } i\text{친환경농작물에서 지역 } i\text{친환경농작물 재배 농가수}}{\text{전국 친환경농업 재배 총 농가수}}$$

LQ > 1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지역해당 친환경농작물이 특화되어 있다.

LQ = 1 입지계수가 1이면 지역해당 친환경농작물의 특화도는 전국 수준이다.

LQ < 1 입지계수가 1보다 작으면 지역해당 친환경농작물은 전국에 대해 특화되어 있지 않다.

산출된 입지계수는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지역을 구분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작물별 입지계수 구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벼는 경기도가 2.01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강원도, 충북, 충남, 경남이 논벼의 입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서의 논벼 재배 농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과수류는 강원도, 전북이 입지계수 2.01이상으로 친환경실천 농가율이 높았으며 경기도와 충남 역시 상대적으로 과수의 친환경실천 농가율이 높았다. 경북은 입지계수 0.50이하로 실천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채소류는 경기도, 충남이 전국 평균이상의 친환경실천농가 집중을 나타내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율이 낮다. 넷째, 특용작물류의 실천농가는 경기도와 충남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반면에 충북, 경북, 전북의 입지계수가 낮아 이들 지역의 친환경실천농가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00년 농어업총조사 당시의 재배농가수를 기준으로 할 때, 각 작물별 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의 분포는 논벼의 경우 경기도, 과수류는 강원도와 전북, 채소류는 경기도와 충남, 특용 작물류는 경기와 충남에 집중되어 각각의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논벼의 경우 미곡 주산지인 전북과 전남, 과수류는 경북으로 나타났다. 즉 논벼와 과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작물별 주요 재배산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작물별 주산지에서는 기존의 확립된 생산·유통 과정이 유지되고 있어 새로운 친환경농법의 시행이 정착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까지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적었던 상황에서 종교단체나 생활협동조합이 주도가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방식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지계수 계산 결과 이와 같은 생산·연구·소비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유기농업이 자생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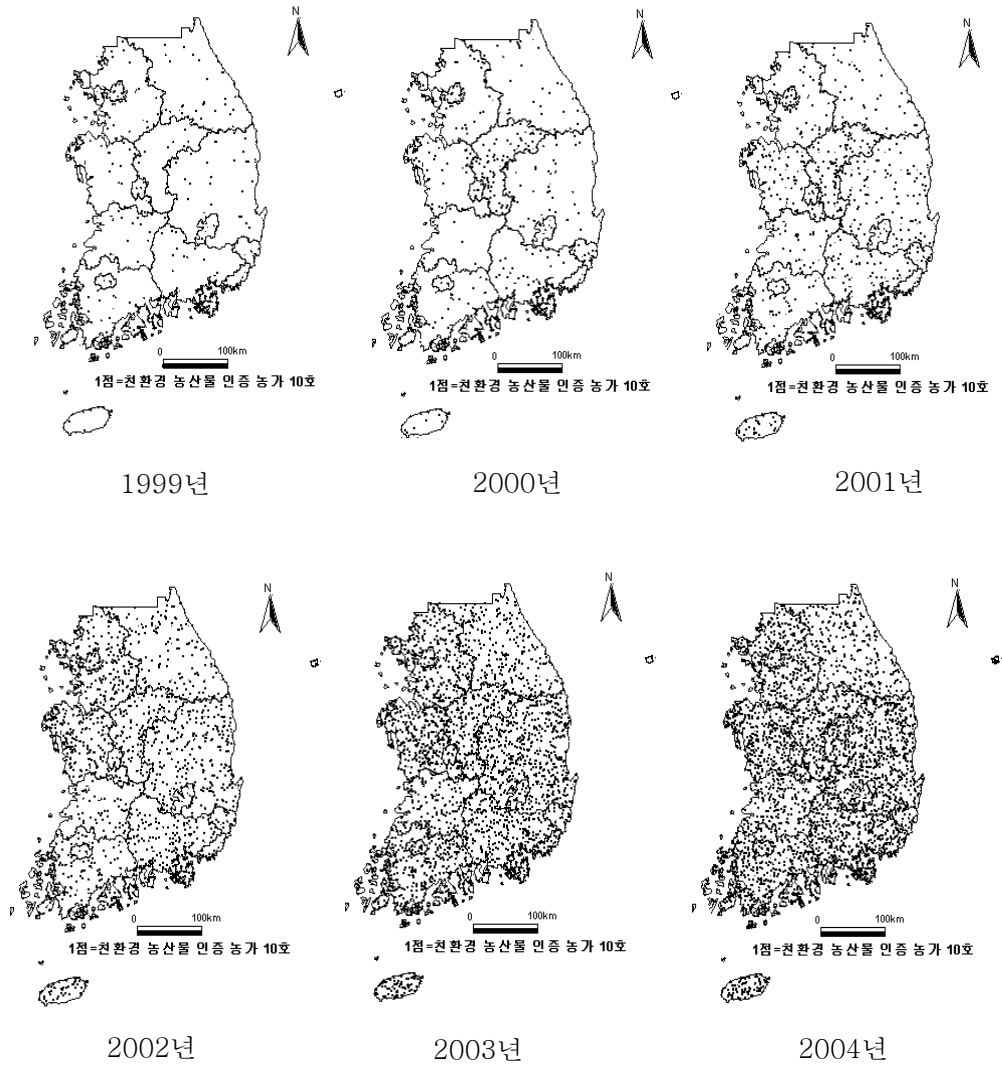


그림 3-8.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분포 변화(1999~2004)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http://www.naqs.go.kr))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80) 정희선, 2003, 한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pp.339~340.

그림 3-8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농가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분포의 정도가 미비했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들어서면서 매우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에서 보여지는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의 변화는 경북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남, 전북, 전남, 경기도의 증가폭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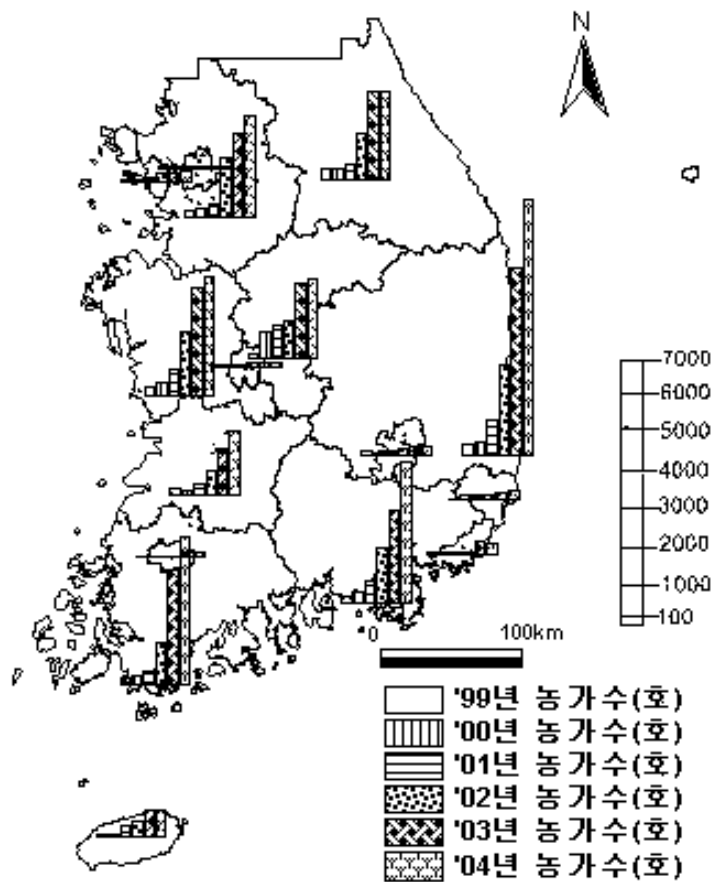


그림 3-9.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의 연도별 변화(1999~2004)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그림 3-10에서 보면, 해를 거듭하면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면적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폭이 매우 컸던 2003년에 비해 2004년도 인증면적이 급감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한 강력한 인증 점검의 과정이 이 시기에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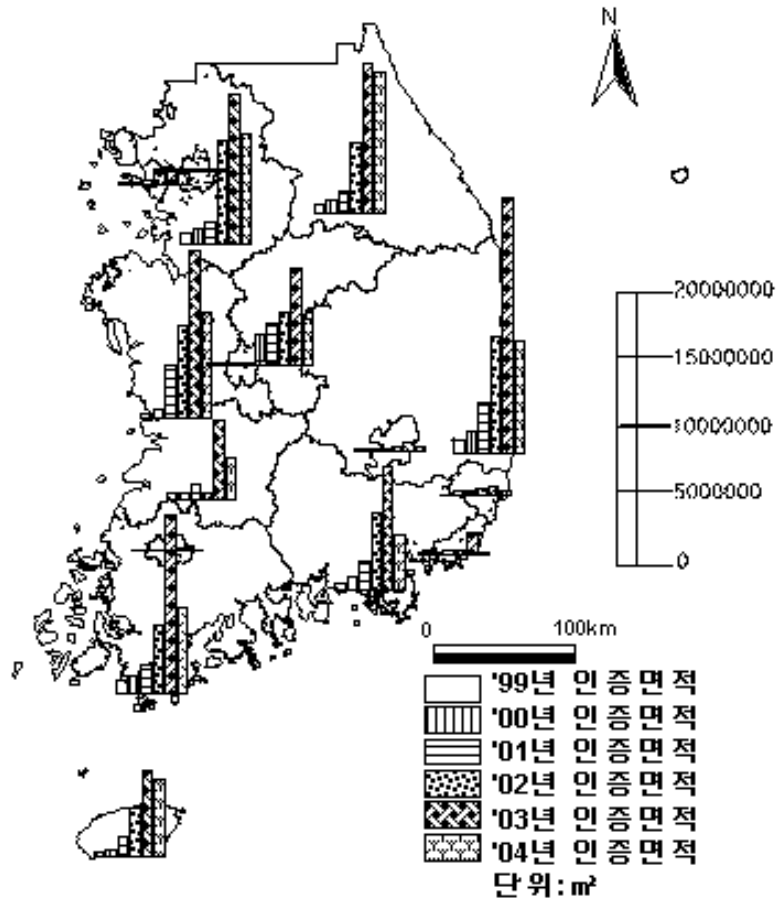


그림 3-10.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면적의 연도별 변화  
(1999~2004)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www.naqs.go.kr)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 4. 친환경농업의 녹색소비공간으로의 확장

농촌공간이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산림의 휴양이나 자연보존 기능을 비롯해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깨끗한 물과 공기, 야생동물 등의 자연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고풍스런 건축물과 문화유적 등의 인공적 요소와 여유로움, 평화로움, 경관의 아름다움 등과 같은 심리적이고 심미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농촌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들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과거보다 더욱 새롭게 평가받게 되었다. 이는 사람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 증가와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주거선호 경향이 농촌이 가지는 어메니티가 환경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가치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재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촌공간이 갖는 어메니티를 추구해 이주하거나 여가활동의 목적지로 방문이 증가하면서 농촌공간에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이 발생하고 이로써 농외소득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거에 소외되고 낙후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면치 못했던 농촌이 오히려 보전할 수 있었던 뛰어난 경관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출현하고 있다. 결국 농촌공간의 자연적, 역사 문화적 요소 그리고 청정한 자연 경관이 오늘날 지역발전을 위한 힘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낙후된 농촌공간의 발전전략에 농촌 어메니티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sup>81)</sup>

##### 1) 농촌 공간의 상품화

오늘날 농업생산공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소비공간의 창출에 있다. 농촌적 전원풍경(rural idyll)과 청정한 자연(nature) 그리고 농촌전통문화와 생산공간과정 등이 고장의 판촉(place marketing) 대상이 되고 있다.

---

81) 박영한·조영국, 2004, 전계서, pp.172~174.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장소 관측론 즉 장소마케팅은 대안적 지역 활성화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소마케팅은 우리의 삶이 직접적으로 근거하는 터전의 의미를 대내적으로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감동과 가치를 확산해서 마침내 내 고장의 번영을 가져오자는 노력이다.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크고 작은 고장이 현지 생산물을 외부로 관측하거나 또는 현장(locale)이 갖고 있는 생활여건이나 관광자원들을 잘 가꾸고, 또 경쟁력 있는 볼거리와 좋은 생활여건을 새로 만들어 외부 사람이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거나 다녀갈 수 있게 하자는 시도이다.<sup>82)</sup>

Halfacree는 농촌 로컬리티가 하나의 범주로 인식되고 연구되려면 ‘농촌적’이라고 사용했던 이전의 의미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첫째 농촌과 농업사이의 연결고리, 둘째 농촌과 ‘집합적 소비’의 연계, 셋째 집합적이든 개별적이든 농촌 공간은 ‘소비의 측면’에 있어서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성의 사회적 재현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점에 주목했다.<sup>83)</sup>

## 2) 농촌마을 만들기를 통한 새로운 농촌성의 사회적 재현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정부 차원의 농·어·산지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0년대에 와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촌관광과 연계되면서 농촌공간의 사회적 실현이 구체화하고 새로운 농촌성이 구성되어 가고 있다. 대표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이 주관하는 아름마을가꾸기, 소도읍개발사업, 정보화시범마을,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전통문화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있다. 농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그 밖에 농협중앙회의 팜스테

82) 김형국, 2002, 고장의 문화관측: 세계화시대에 지방이 살길, 학고재, pp.1~11.

83) Halfacrere, K .H., 1993, *ibid.*, p.77.

이,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그리고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이 있다.

#### IV. 녹색담론을 통한 농촌공간의 사회적 재구성 : 양평지역을 사례로

##### 1. 양평 지역의 역동성

인문 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인간이며 인구는 곧 지표상에 있어 공간 변화의 주체가 되는 인간 집단이다. 따라서 인구 현상은 자연적·문화적·경제적 제 조건을 반영하는 특정 지역의 사회 환경적 소산이므로, 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사회현상과 그 변화 과정을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근본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특정 지역의 인구 규모·성장·구조적 특성과 공간 분포 및 이들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1) 인구·가구수의 시계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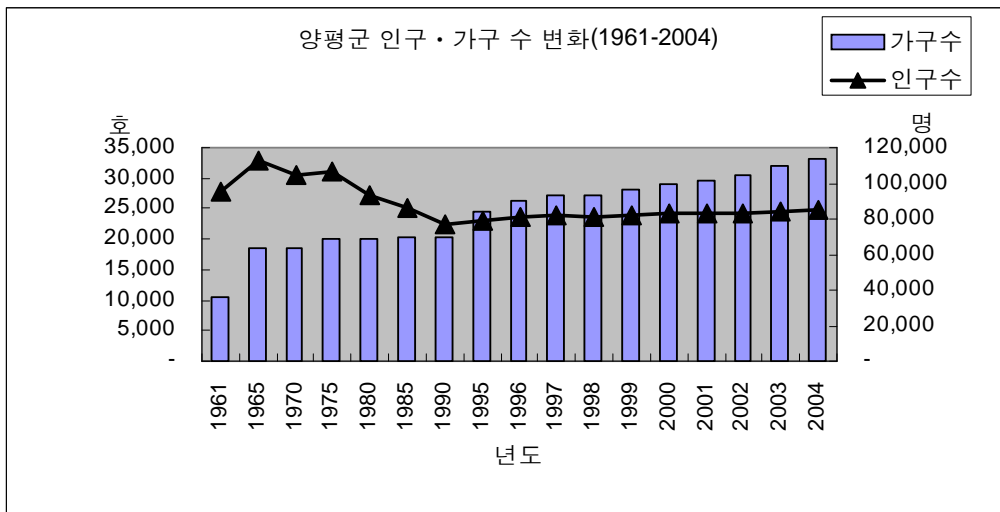


그림 4-1. 양평군 인구·가구수의 시계열적 변화

출처 : 양평군 통계연보와 경기넷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양평군의 전반적인 인구 및 가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2004년 현재 33,198세대에 이르렀다. 인구수는 1966년 118,315명까지 증가하였다가 1975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가 1995년부터 매우 소폭의 증가를 보이면서 정체·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표 4-1은 경기도내 타 군부(郡部)지역의 최근 두 해동안의 인구 및 가구수 증감을 양평군과 비교한 것이다. 여주·가평·연천군 모두 인구의 감소에 반해 눈에 띄는 가구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 직전거주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사회경제적 흐름에 비춰볼 때 서울근교 농촌지역에서 흔히 출현하는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거주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혼주화(混住化)<sup>84)</sup>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반해 양평군은 최근 인구수와 가구수 모두 증가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표 4-1. 경기도 타 군부 지역과의 인구·가구수 대비(2003-2004)  
단위 : 명, 호

구분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연천군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2003	84,171	31,904	105,067	37,587	55,415	20,378	50,188	18,347
2004	85,242	33,198	105,006	37,283	55,252	20,836	49,361	18,566
증감	+1,071	+1,294	-61	+696	-163	+456	-827	+218
비율	1.27	4.06	-0.06	+1.90	-0.29	+2.25	-1.65	+1.19

출처 : 경기통계연보, 각 연도의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사회적 인구증감의 특성을 표 4-2와 그림 4-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타시도에서 양평군으로 전입과 양평군에서 타시도로의 전출 대상지 모두 경기도내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서울의 수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내에서의 이동을 제외하면, 강원도의 전출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4-2. 전출지와 전입지 특성  
단위 : 명

84) 高橋 誠, 1997, 近郊農村の地域社會變動, 古今書院, pp.1~23.

구분	양평군에서 타시도로 진출	타시도에서 양평군으로 전입
서울	<b>2,749</b>	<b>3,246</b>
부산	57	48
대구	46	65
인천	188	388
광주	33	45
대전	59	158
경기	<b>4,001</b>	<b>6,687</b>
강원	337	588
충북	73	194
충남	118	231
전남	61	144
전북	69	112
경북	94	143
경남	94	112
제주	14	35
계	7,989	12,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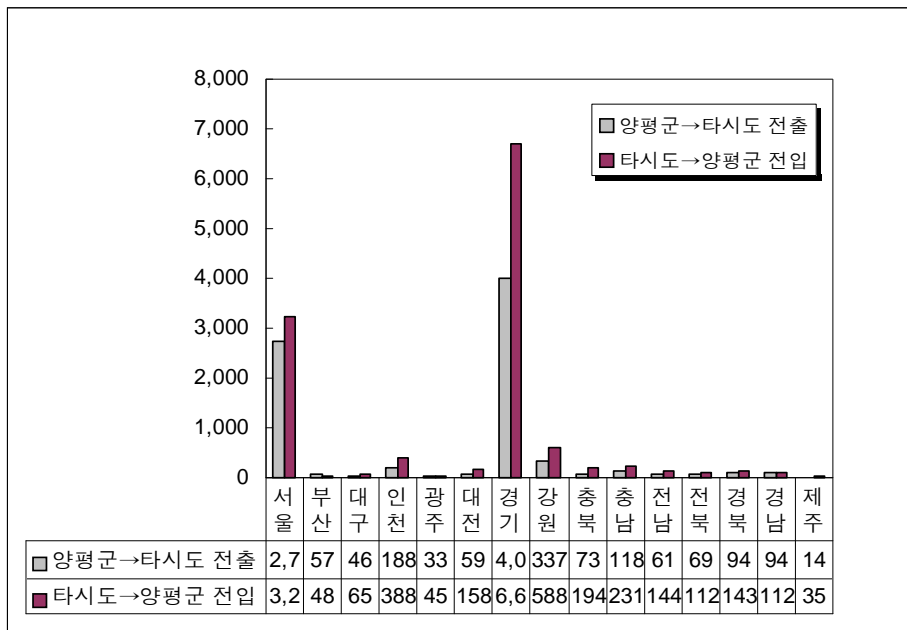


그림 4-2. 진출지와 전입지 특성

출처 : 경기통계연보(2004)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표 4-3. 양평군 읍면별 인구 및 가구의 증감(1970~2003)

단위 : 명, 호, %

연도 읍면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3년		증감율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03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양평읍	16,079	3,152	17,204	3,772	19,726	4,841	22,198	7,370	23,075	8,215	7.0	19.7	14.7	28.3	12.5	52.2	4.0	11.5
강상면	4,900	890	4,493	909	3,551	896	4,028	1,348	4,405	1,629	-8.3	2.1	-21.0	-1.4	13.4	50.5	9.4	20.9
강하면	3,748	724	3,122	694	2,345	657	3,150	1,181	3,370	1,354	-16.7	-4.1	-24.9	-5.3	34.3	79.8	7.0	14.7
양서면	8,648	1,668	8,072	1,782	7,095	1,915	8,550	3,032	8,503	3,245	-6.7	6.8	-12.1	7.5	20.5	58.3	-0.6	7.0
옥천면	5,653	1,131	5,341	1,167	4,403	1,129	5,196	1,827	5,518	2,132	-5.5	3.2	-17.6	-3.3	18.0	61.8	6.2	16.7
서종면	6,398	1,183	4,224	945	3,264	943	4,720	1,814	5,338	2,252	-34.0	-20.1	-22.7	-0.2	44.6	92.4	13.1	24.2
단월면	7,553	1,131	5,246	1,088	3,139	899	3,162	1,127	3,141	1,239	-30.5	-3.8	-40.2	-17.4	0.7	25.4	-0.7	9.9
청운면	8,783	1,594	6,730	1,382	4,268	1,193	3,896	1,377	3,745	1,436	-23.4	-13.3	-36.6	-13.7	-8.7	15.4	-3.9	4.2
양동면	10,888	1,954	8,649	1,800	6,416	1,671	5,351	1,923	4,936	1,898	-20.6	-7.9	-25.8	-7.2	-16.6	15.1	-7.8	1.3
지계면	12,112	2,199	10,522	2,239	6,860	2,028	6,466	2,325	6,096	2,385	-13.1	1.8	-34.8	-9.4	-5.7	14.6	-5.7	2.6
용문면	13,633	2,529	13,848	2,951	11,447	2,954	11,933	4,215	11,755	4,520	1.6	16.7	-17.3	0.1	4.3	42.7	-1.5	7.2
개곡면	6,026	1,163	5,882	1,237	4,671	1,152	4,243	1,436	4,289	1,599	-2.4	6.4	-20.6	-6.9	-9.2	24.7	1.1	11.4
계	104,421	19,318	93,333	19,966	77,185	20,278	82,893	28,975	84,171	31,904	-10.6	3.4	-17.3	1.6	7.4	42.9	1.5	10.1

출처 : 양평군 통계연보, 해당연도의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1970년대 이후, 양평군의 평균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1970~1980년 사이에 10.6%, 1980~1990년 사이에 17.3% 감소하였으나 1990~2000년 사이에는

7.4%의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최근 2000~2003년 사이에는 1.5%로 이전 시기보다 낮은 혹은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평균 가구 증감률은 1970~1980년 사이에 3.4%, 1980~1990년 사이에 1.6% 그리고 1990~2000년에는 429.9%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최근 2000~2003년 사이에는 10.12%로 낮아지면서 1990년대에 급격한 변화를 보였던 인구 및 가구수 급증은 2000년대 들어서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1990년대의 대도시주민의 전원지향 이주 대상지로서 양평지역이 경험한 전원주택의 입지 붐을 실감케 하기도 한다.

## 2) 차별화된 생활권의 내재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 면적의 1.45배에 해당하는 동서로 넓은 형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과의 거리 및 접근도 그리고 각 읍면별 인문·자연적 환경에 따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의 인구 및 가구 증감의 읍면별 상이한 양상은 양평군 12개 읍면을 하나로 묶어 일반화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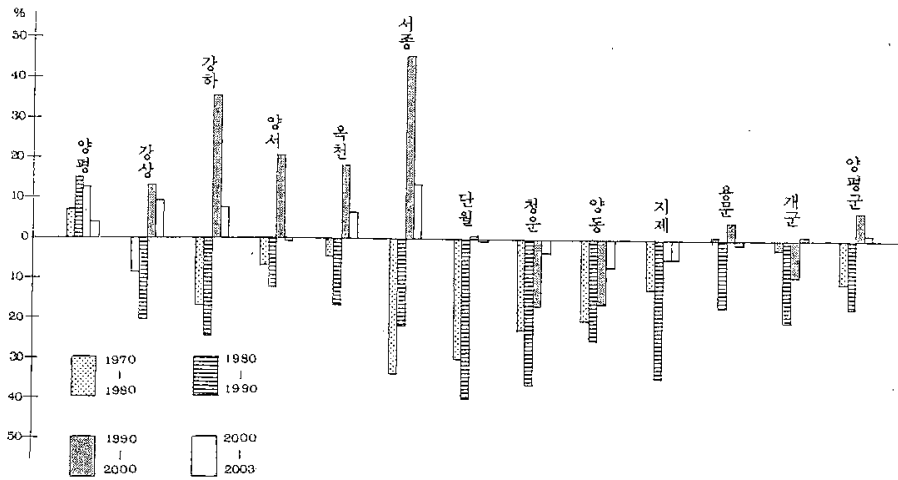


그림 4-3-1. 양평군 읍면별 인구의 증감을(197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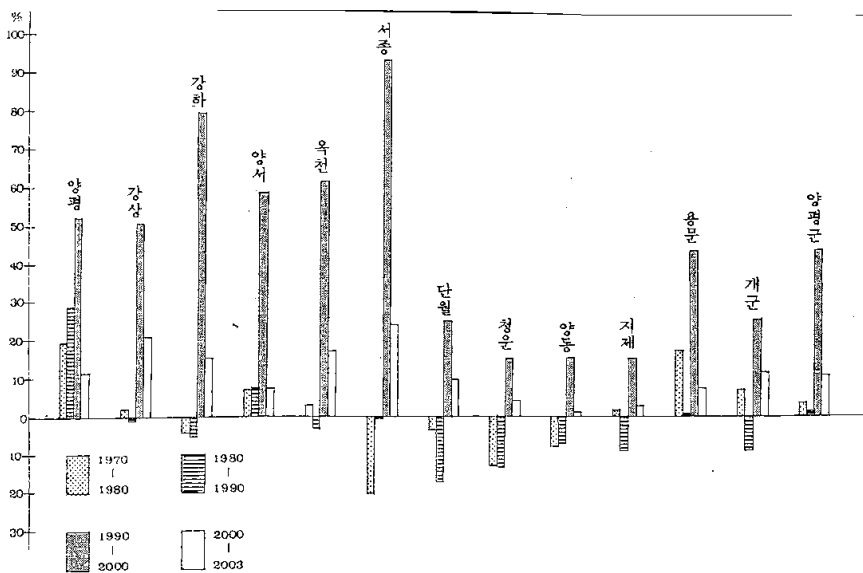


그림 4-3-2. 양평군 읍면별 가구의 증감을(1970~2003)  
출처 : 양평군, 해당년도, 양평통계연보의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즉 최근 10년 동안의 인구 및 가구 증감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큰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데, 첫째, 인구와 가구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 단지 양평읍만이 해당한다. 1979년 읍으로 승격된 이래 계속적인 상대적 우위를 보유하면서 전형적인 농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인구와 가구수 모두 군 평균이상으로 증가하는 읍면으로 양평,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6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거리상 서울과 근접한 읍면들이며 특히, 서종면은 1990~2000년 사이에 인구 44.6%, 가구는 92.4%라는 놀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서울로의 양호한 접근성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선호하는 전원주택단지의 조성에 기인하며, 이와 같은 상황은 주택으로의 농지전용건수(표 4-4)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4-4. 주택으로의 농지전용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양평	옥천	용문	지제	청운	계
1996	39	60	15	18	81	16	48	51	35	34	28	10	435
1997	30	66	14	25	98	21	56	60	67	53	28	9	527
1998	32	42	8	14	55	6	62	17	61	23	9	8	337
1999	134	57	10	9	73	11	67	69	49	39	34	25	577
2000	69	35	3	22	74	14	27	68	39	52	28	16	447
2001	35	38	12	16	46	10	29	38	29	39	23	21	336
2002	33	35	10	28	58	17	30	21	57	46	36	21	392
2003	59	28	18	34	34	37	67	44	82	82	33	17	535
2004	42	57	17	62	62	20	41	23	31	75	39	34	503
계	473	418	107	228	639	152	427	391	450	443	258	161	4,147

출처 : 양평군, 2004, 농지민원과 내부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전원주택단지의 조성에 기인한 읍면지역들은 기존의 농촌경관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지역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인구와 가구수 모두 군 평균이하로 감소하는 면으로는 강원도 인접지역인 청운면이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낮고 전형적인 산지촌 생활양식을 지닌 지역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및 가구수 증감 유형에 기초해 볼 때, 양평지역의 생활권이

분화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생활권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펼쳐가는 장으로서 역사적으로 정주와 이주패턴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각 생활권은 부분적으로 중복되면서 상호의존하는 불완전하고, 느슨하게 구조화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sup>85)</sup> 생활권은 반드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권은 일종의 기능지역으로 각 기능의 중심 결절지가 영향을 발휘하는 최대 범위이며, 중심성의 차이에 따라 계층 구조를 갖는 특징이 있다.

양평지역은 경기도를 5대 생활권으로 구분할 때, 동남 내륙권에 속하며, 그중 이천, 여주와 함께 동남 2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천을 1차 중심지로 하면서, 여주, 장호원 지역과 더불어 2차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86)</sup>

또한 양평은 단일 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통합성과 경쟁력 확보 그리고 투자효율성을 감안하여 5개 생활권을 설정해 볼 때, 양평읍(양평읍, 옥천면), 양서권(양서, 서종면), 남부권(강상, 강하면), 용문권(용문, 개군) 그리고 동부권(단월, 청운, 양동, 지제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sup>87)</sup>

표 4-5 양평군 생활권역의 설정

권역 구분	대상 지역	권역 명칭
양평권	양평읍, 옥천면	서부 중심권
양서권	양서면, 서종면	도농복합도시권
남부권	강상면, 강하면	남부권
용문권	용문면, 개군면	국민관광지중심권
동부권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제면	동부권

출처 : 양평군, 2000,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 p.2에서 재인용함

한편,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한 권역별 관리방안에 있어서는, 용문과 개

85) 경기개발연구원, 2000, 수도권 지역의 지역구조 및 생활권 분석과 개편전략 연구, p.19.

86)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1997, 경기2020 : 비전과 전략-21세기 경기발전구상, p.67.

87) 양평군, 2000,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권역별 보고서), p.2.

군면을 국민관광중심권 대신 동부중심권으로 설정하였다. 즉 동부중심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부권을 서부중심권과 연결하고 향후 지역개발에 있어 개발빈도와 입지 측면에서 적절한 거리와 밀도를 분산-집중시키는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sup>8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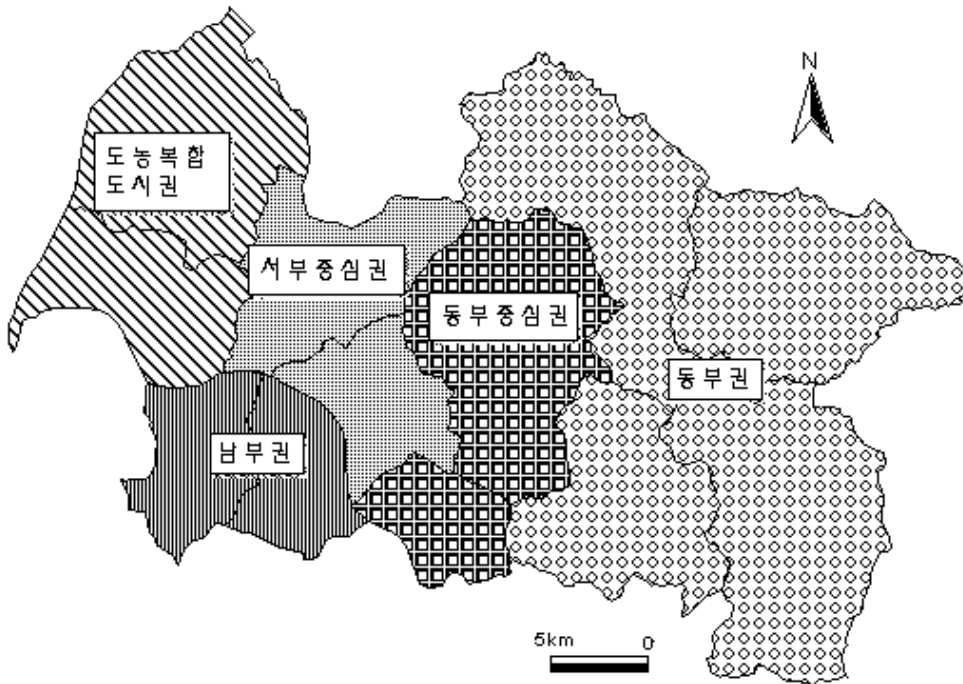


그림 4-4. 환경친화적 지역발전 전략을 위한 권역구분

출처: 양평군, 2000,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 2쪽의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 3) 제약받는 경제활동

양평 지역은 각종 법령규제가 중첩되어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이로써 주민 불편이 고조되어 왔다. 1973년 팔당댐 준공으로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공급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1997년

88) 양평군, 2000.3, 양평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p.373.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상에서 양평의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됨으로써 개발보다는 ‘보전되어야 할 지역’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런 까닭에 경기도 여타 지역이 198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경험했던 농공단지 조성을 비롯한 공업화의 경험은 양평 지역을 배제시켰다. 2003년 현재 양평군 사업종사자는 46,533명이다. 1차 산업 종사자는 29,101명(63%), 2차 산업 종사자는 2,337명(5%) 그리고 3차 산업 종사자는 15,095명(32%)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농가는 9,726세대로 29.3%의 농가율을 나타내고 있다.<sup>89)</sup>

표 4-6. 경기도 군부지역의 2·3차 산업종사자 증가율 변화

단위 : 명, %

구분	1981	1986	1991	1995	증가율		
					'80-'85	'85-'90	'90-'95
경기	647,696	1,092,281	1,567,931	2,115,583	68.84	43.55	34.93
양평	6,697	8,855	9,828	13,632	33.22	10.99	38.71
여주	9,760	12,683	18,098	24,748	29.95	42.69	36.74
가평	6,040	7,794	9,206	15,337	29.04	18.12	66.60
연천	5,307	6,435	8,180	12,211	21.25	27.12	49.28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1999, 수도권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p.85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표 4-6은 경기도 4개 군부 지역인 양평, 여주, 가평, 연천군의 1980년~1995년 사이 2·3차 산업종사자 증가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양평군은 5년 단위의 경기도 평균증가율 대비 증가율이 1980년대 내내 1/2~1/4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기에는 다른 군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1990년대 전반기에는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 2. 양평 지역의 국지성과 환경의 지방정치화

89) 양평군청 [www.yp21.net](http://www.yp21.net)

1)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자연보전권역, 양평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3개 권역 즉,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양평 지역은 군 전체가 수도권정비시행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어, 한강수계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규모 택지·공업단지 개발, 대학교 등 인구유발 효과가 큰 행위 또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써 주민생활기반시설에 필요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개발(3만㎡미만 허용, 6만㎡까지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후 허용) 등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개발이 허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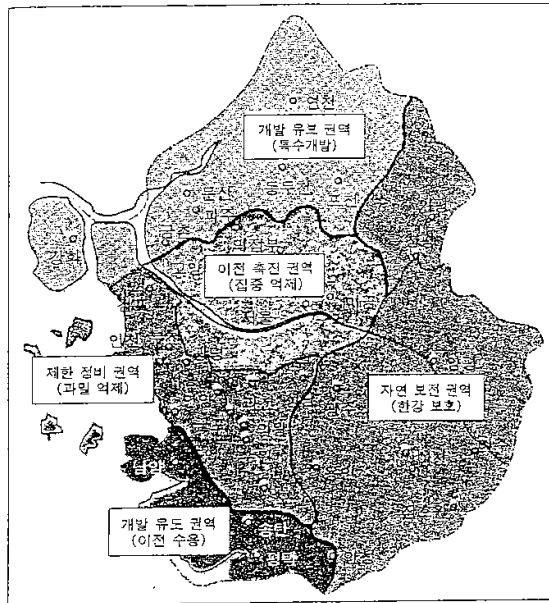


그림 4-5.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 수도권 5대 정비권역

2) 한강 상수원으로서의 양평 지역 - 각종 환경규제정책의 중첩

팔당 상수원은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우리나라 최대의 상수원으로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팔당호는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담수량은 2억 4,400만톤으로 현재 1일 775만톤을 취수하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원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특히 팔당호 상류지역은 다음과 같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같은 수도권 지역에 속하면서도 팔당수계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근 지역에 비해 개발에 제한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각종 행위제한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다.<sup>90)</sup>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오·폐수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오·폐수를 막고 깨끗이 정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도·단속 전담기수인 ‘한강환경감시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 5개 시·도지사(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한국전력공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sup>91)</sup>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종 법령규제의 중첩으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불편이 고조되어 왔으며, 환경정책 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도시계획법·수도법(水道法)·한강수계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대응이 모색되어 왔다.<sup>92)</sup>

90) 이양주·박경미, 1999, 상수원 주민의 환경의식 조사: 양평군을 사례로, 경기연구 4, pp.137~153.

91) 최지용, 1998,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방안, 팔당상수원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2) 최혁재, 1998,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표 4-7. 각종 규제와 관련법 현황

구분	근거법	년도	해당부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1975	건교부→환경부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1982	건교부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1990	환경부
청정지역	수질환경보전법	1991	환경부
수변구역	한강수계법	1999	환경부

표 4-8. 양평군 토지이용 규제 현황

단위 : km<sup>2</sup>, %

구분	자연보전 권역	특별대책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변구역
		I 권역	II 권역				
면적	878.21	371.6	242.7	25.7	17.2	3.25	44.1
총면적대비	100	42.3	27.6	3	2	0.4	5

출처: 양평군(www.yeongpyeong.net).



그림 4-6. 양평군 토지이용규제 대상지역

출처: 양평군(www.yeongpyeong.net)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1)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1975년 7월 9일 양평군을 비롯하여 남양주·

하남·광주 등 4개 시·군 157.3km<sup>2</sup>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입지·어로행위·행락·쓰레기투기 등 각종 수질오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sup>93)</sup>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상수원 수질을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취수구 상류의 수면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보호구역지정은 보호구역 관할시장·군수가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제한이 가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토지이용 및 생산 활동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왔다. 서울 대도시권에는 서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각 1개소, 경기도 18개소 등 20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남양주시·하남시·광주군·양평군의 157km<sup>2</sup>가 1975년에 지정되었으며,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양평읍과 개군면 지역이 1995년에 지정되었다.

표 4-9. 양평군 상수원 보호구역 대상지역

구분	지정일시	지정면적	지정지역	
			강하면	전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1975.7.9.	25.7km <sup>2</sup> (3%) 3면 10리	양서면	양수리 용담리 목왕리 부용리 신원리 도곡리 대심리 국수리 일부
			서종면	문호리 일부
			양평읍	회현리 도곡리 원덕리
양평상수원 보호구역	1995.6.30.	0.542km <sup>2</sup> (수면고지) 2읍면 6리	개군면	석정리 공세리 양덕리

(2) 특별대책지역

1990년도 이후 팔당상수원 수질이 1.0ppm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상

93) 최지용, 1998, 전계논문.

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도 맑은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1990년 7월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양평군을 비롯해 남양주·이천·광주·가평 등 7개 시군에 대하여 총 2,101.9km<sup>2</sup>를 I·II 권역으로 구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식·숙박시설 및 각종 건축물 등 오수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였다. 수질보전 특별 종합대책의 수립주체는 환경부장관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은 호소수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sup>94)</sup>. 팔당호 수질특별대책지역 I 과 II 권역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2,102km<sup>2</sup>가 지정되어 있다.

표 4-10. 경기도내 특별대책지역 지정 현황

단위 : km<sup>2</sup>

구분	면적		
	계	I 권역	II 권역
<b>양평군</b>	<b>613.3 (29.2%)</b>	<b>370.6</b>	<b>242.7</b>
남양주시	187.1 (8.9%)	104.7	82.4
용인시	207.4 (9.0%)	50.4	157.0
이천시	236.2 (11.2%)	-	236.2
여주군	249.2 (11.9%)	218.8	30.4
광주시	431.7 (20.5%)	431.7	-
가평군	177.0 (8.4%)	78.3	98.7
총계	2,101.9 (100%)	1,254.5	847.4

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정 당시부터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로 건축규제 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오염원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사실상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 초 규제완화 욕구가 분출하면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특히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때 전국토의 26%에 달하는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대폭 허용하면서 오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면적의

9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36%(747km<sup>2</sup>)에 달하는 준농림지역이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팔당호 주변에 수많은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들어서자, 19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에 이들 시설의 건축을 다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표 4-11. 양평군 특별대책지역 대상지역

단위 : km<sup>2</sup>

구분	I	II	제외 지역
계	7읍면 (371.62)	4면 (242.77)	4면 일부 (263.87)
대상 지역	양평읍 (41.39)	<b>용문면 (101.04)</b>	
	강상면 (37.89)	청운면 (18.53) : 여물 비룡	양동면 전체
	강하면 (41.40)	단월면 (49.13) : 향소 부안	<b>청운면</b> : 용두 가현 갈운
	양서면 (59.46)	덕수 보룡 봉상 삼가	도원 <b>신론</b> 삼성 다대
	옥천면 (66.23)	지제면 (73.42) : 송현 월산	단월면 : 명성 산음 석산
	서종면 (92.31)	지평 망미 대평 곡수	지제면 : 무왕 일신
	개군면 (32.44)	수곡 옥현	

### (3) 수변구역

수변구역(水邊區域)은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완충지대 혹은 보호지대로서 수질관리를 위한 일종의 유역관리구역이다. 수변구역 지정은 보안림 지정·오염총량제 등과 함께 주요 오염예방대책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수변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정부가 1998년 11월 확정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예방대책 중의 하나이다. 수변구역은 하천 및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자정과정없이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수변구역 지정기준은 특별대책지역은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되어 있고 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로수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과 하수처리구역·도시지역·취락지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축사·공장의 설치는 일체 금지된다. 다만 특별대책지역 밖

의 수변구역에서는 공장만 설치할 수 없고 나머지 시설은 일정요건하에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수변구역내 일정토지는 한강수계 관리위원회가 주민과 협의·매수하여 수변녹지로 조성하도록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에 계획되어 있다. 양평군의 수변구역 예정지 전체면적은 74.4km<sup>2</sup>로 전체 예정지 428.3km<sup>2</sup>의 1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상수원 보호구역 등 법정제외지역 면적 30.2km<sup>2</sup>를 제외한 44.1km<sup>2</sup>이 수변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다. 수변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의 면적은 총 59.7km<sup>2</sup>로 전체 대상지역의 80.2%를 차지하며, 나머지 하수처리구역·도시지역·취락지역·자연마을 등이 19.8%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2. 양평군 수변구역 현황

단위 : km<sup>2</sup>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양평읍	계	5.476	강상면	화양리	1.538	옥천면	계	3.095
	양근리	0.027		세월리	1.762		옥천리	0.967
	오빈리	1.75	계	6.622	아신리		2.128	
	덕평리	0.146	강하면	운심리	2.950	서종면	계	8.219
	도곡리	0.094		왕창리	1.459		문호리	5.445
	회현리	2.222		전수리	3.213		수입리	2.774
		창대리	1.237	계	5.230	개군면	계	6.310
강상면	계	9.151	신원리	0.238	하차포리		0.897	
	병산리	2.983	도곡리	0.683	구미리		1.094	
	송학리	0.473	대심리	1.923	양덕리		1.351	
	교평리	2.276	국수리	0.504	석장리		0.979	
	신화리	0.119	북포리	1.882	부리		0.302	
				상차포리	1.687			

1999년 9월 30일 양평·용인·여주·이천·광주·가평 등 6개 시군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양안 1km이내, 특별대책지역 외에는 양안 500m이내 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하수처리구역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중인 지역, 하수처리 예정지역·

도시지역 및 준도시 지역 중 기존 취락지역을 제외한 지역 195km<sup>2</sup>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 배출시설·식품 집객업·목욕업·관광·숙박업의 신규입지를 금지하고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지정(변경 포함)을 제한하고 있다.<sup>95)</sup>

표 4-13. 수변구역 규제현황

구분		특별대책지역 내	특별대책지역 외
신규 오염원 입지 제한	가축사육 시설	설치 금지	신고대상규모이하 허용 (축산폐기물 전량 공공처리장에 유입처리하거나 자원화하는 경 우)
	폐수배출 시설	설치 금지	설치 금지
	음식·숙박 시설	설치 금지	허용 (오수처리기준을 100mg/I 로 강화)
기존 오염원 고도처리		· 기존 음식·숙박시설 및 목욕탕은 10mg/I로 강화(2002년부터) · 공동오수처리제도도입	-
수변 녹지대 조성		· 토지매수 또는 장기임 대하여 초목지대, 인공습 지 등을 조성하여 비점오 염원 유입 최소화 · 지역특성에 맞는 수변 녹지대 조성	-
용도지역변경 제한		보전용지 및 준농림지역을 개발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표 4-14.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 규제현황

95) 송미영, 1999, 경기도 지역수질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구분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지역
		I 권역	II 권역	
지정일	1975년 7월	1990년 7월	1990년 7월	1982년 12월
공장	입지불허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 입지불허 · 500톤/일 이상 배출시설 입지불허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 기타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하여 BOD 20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숙박시설	입지불허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 -하수처리구역은 입지가능 -연면적 400㎡미만 입지가능 -간이오수처리조 설치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 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택지조성, 농업용지조성, 관광지조성사업: 30,000㎡이상 금지(영 제13조), 60,000㎡이하 수도권 심의위원회 심의(영 제1조)
음식점	입지불허 -하수도정비완 료지역은 제한적으로 허용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 -하수처리구역은 입지가능 -연면적 400㎡미만 입지 가능 -간이오수처리조설치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직업훈련시설 입지금지 (영 제13조)
축산시설	입지불허	· 허가대상시설 입지불허(우사:450㎡이 상, 약 40마리, 돈사:500㎡이상, 약 350마리) · 신고시설 입지가능 (우사:350㎡이상, 돈사:250㎡이상)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허가대상: BOD 및 SS 50ppm이하로 처리 -신고대상: BOD 1,500ppm이하로 처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공장건립면적 500㎡이상 신·증설·이전·업종변경 금지(법 제20조)
양식장	입지불허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
일반 건축물	주택(100㎡이하 , 영농시설, 공공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연면적 800㎡이상 입지불허 -하수처리구역은 제한없이 입지가능 -공공복리시설은 제한없이 입지가능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
골프장	입지불허	입지불허(95년 2월 9일부터)	입지불허(95년 2월 9일부터)	.

### 3) 환경 갈등과 지역 맥락에서의 대응 - 환경의 지방정치화

21세기는 지금까지의 환경 파괴적 산업화를 극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 공감을 얻어가는 ‘환경’의 시대이다. 또한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적 개발정책에 기인한 지방의 피해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지방 혹은 지역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과 지방의 시대에 있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 환경이념과 개발이념 간의 갈등은 지역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팔당 유기농업 운동의 지역 맥락에서의 의미  
양평군은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지역 전체가 자연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수도권 인구집중·유발 억제정책과 상수원 보호지역 지정 등 각종 환경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여타의 경기도 지역과는 상이한 지역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 공업화가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까닭에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그로 인해 발전은 저해되고 지역민들의 개발규제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았다.

1973년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자연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과 수도권 전체의 공익을 위한 맑은 물 확보 차원의 정부의 노력이 이 현장에서 상충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환경보호가 핵심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중앙의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편에 서서 지배담론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저항담론을 약화시키고 있고, 때로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1990년에는 ‘팔당상수원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개발제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반대운동에 회의를 느낀 피해대책위 농민들과 일찍이 1970년대부터 유기농업을 실천해오던 소수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환경보존과 경제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적으로 팔당상수원운동본부(현

재 팔당생명살림연대)를 결성, 유기농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팔당 유기농 운동은 환경이념과 개발이념 사이의 갈등 구도속에서 대립을 완화시키고, 윈-윈(win-win) 전략의 수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가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양평 지역에서 뿌리내리기를 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지역에서 역설적으로 혁명적인 친환경적 지역발전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보존과 개발이라는 지역발전의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sup>96)</sup>

1998년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엄청난 정부예산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되어 가는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팔당호수질개선 특별대책’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부와 양평 지역간의 심각한 대립국면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국가가 환경이념을 대표하면서 개발을 억제하는 입장이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이념 대립의 상황과는 주체가 서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팔당상수원 갈등은 여러 관련 주체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오랜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땅과 물, 그리고 우리 건강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기농업이 이 지역에서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이 이 지역에서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의 유기농업 시작과 거의 일치한다. 우리나라 유기농업 운동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정농회’의 활동이 이 지역에서도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발단은 정농회 핵심회원이었던 J씨<sup>97)</sup>가 양서면 양수리에서 유기농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1980년대 들어 주변의 몇몇 농가가 함께 유기농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가 축적되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러 유기농업을 수행하는 조직단위들이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서면에 생겨나기 시작

96) 이영민·허남혁, 2001, 전개논문, pp.18~29.

97) 초기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 본부장이자, [정농회] 회장을 역임.

했다.

이와 같이 서서히 시작된 양서 지역의 유기농업관련 운동은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1995년 12월 22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모여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 지역 유기농업의 선구자들은 1995년 최고조에 달했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와 관련된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이를 대변했던 [상수원피해주민 공동대책위원회]내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되어가고 있는 규제 속에서 이 지역의 살아갈 길은 유기농업 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수혜자와 피해자라는 의식을 없애고 양쪽 모두 승리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전 시기에 이들 때문에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공되기도 하였다. 즉 지속적인 토지이용규제완화를 주장했던 측(주로 요식업이나 부동산 계통에 종사하는 이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과, 유기농업을 주장했던 측(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그룹)으로 1994년부터 분화되었던 것이며 농민 그룹이 분리되어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라는 구체적인 단체가 형성된 것이다.

유기농업 운동단체의 두 번째 성과는 서울시와 농협중앙회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냄으로써 이를 주민들과의 이해와 타협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즉 팔당상수원에서 유기농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약과 비료사용없이 상수원을 살리고, 청정한 유기농산물은 상수원 물을 먹는 서울 시민들이 사가는 소위 윈-윈(win-win) 전략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설득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에 서울시와 농협중앙회는 1995년부터 이 지역 유기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기농업을 실천농가에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여 생산된 유기농산물의 판로를 수도권 지역에 직판장을 설립함으로써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체계는 현재까지도 지역 유기농업을 지탱하여 주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성과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시킴으로써 양평군이 1998년부터 [양평

환경농업21]이라는 군 차원의 종합정책을 내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양평군은 청정한 지역이미지를 바탕으로 환경농업과 문화의 고장이라는 테마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환경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계속 실천하고 있다.

1995년 창립 당시 광주군, 남양주시, 양평군 지역 회원 20명으로 시작한 [팔당상수원유기농업본부]는 현재 80농가 수준의 증견단체로 성장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는 [팔당상수원 유기농산물 추수축제]라는 명칭으로 매년 가을마다 문화행사와 먹거리장터를 열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한국유기농업협회 남양주 조안지회, 정농회, 한속생명공동체, 북한강작목반, 운길산 작목반 등 소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유기농업은 안정적 정착기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 유기농 채소를 공급하는 기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98)</sup>

#### 4)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환경의 정치화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전략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냈다. 양평지역에 있어 팔당유기농운동은 청정한 ‘땅과 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으며, 농업이 양평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킴과 동시에, 1997년 민선2기 군정 출범에 즈음하여 [양평환경농업 21]을 출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유지되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즉 민간주도의 지역운동과 관의 정책지원 간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위 [양평환경농업21]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

98)정상목, 2003, 상수원지역의 환경농업 성공사례와 문제점, 지방의 국제화 포럼 76, pp.33~35.

한택수, 2003, 지역주민의 힘이 맑은 물을 만든다, 지방의 국제화 포럼, 76, pp.26~28.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변화와 관련하여 팔당호 및 한강을 보는 지역의 시선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팔당호 보호 및 규제정책 대응에 대한 전략을 기존의 부정적인 방식 곧 “그래도 팔당호는 우리 것이 아니며, 당장 상수원을 옮겨라”에서 긍정적인 방식 곧 “그래도 팔당호는 우리 것이며, 사랑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게 되었으며, 이는 양평 지역의 팔당호 오염 책임 논쟁에 있어서 분명히 양평 지역에는 유리한 전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지역 주민들의 팔당호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미쳤음이 분명해 보인다.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지역 정체성의 구축과 대안적인 지역발전 담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유기농업운동단체들은 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와 ‘예술’과 ‘관광’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농업과는 관계없던 지역 내의 비농업인들을 설득시키는데 중요한 논리로서 성공적으로 제공되었다. 이제 양평은 전국적으로도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으로 각인된 분명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팔당호와 남한강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편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양평은 그로 인해 이제 친환경적 지역발전의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으며, 그 키워드는 “환경”과 “문화”라는 소프트한 개념들로 구성되었다.

결국 이상에서 언급한 역할과 성과들은 환경담론과 지역담론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 완화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과 개발의 갈등구도를 극복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문화담론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대안적 발전의 방향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7. 양평 지역신문과 지역 정체성

양평군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하여 증대하고 있는 여가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각종 환경규제 중첩으로 인한 지역의 전반적 침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분산 개발로 수도권 제일의 생태 휴양의 고장 조성, 친환경농업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지역소득향상과 연계,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훌륭한 관광 휴양의 자원으로 차별화하여 여가 수요를 양평에서 흡수한다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재를 키우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sup>99)</sup>

### 3. 양평 지역의 친환경농업공간의 확대과정

99) 양평군, 2004, 양평환경농업-21[YEAM-21] 홍보자료.

1) 친환경농업의 단계별 전개과정

양평군은 IMF의 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그 해 12월에 “제2의 농업부흥운동”을 선언하였다. 이듬해 1998년 4월 ‘양평환경농업-21’ 선언을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농업지역을 선포했다. 그림 4-1과 같은 ‘양평환경농업-21[YEAM-21]<sup>100)</sup>’ 8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왔다<sup>101)</sup>.

제1단계(1998~1999) 환경농업 기초확립단계	제2단계(2000~2002) 환경농업 보급단계	제3단계(2003~2005) 환경농업 정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평환경농업-21'용역의뢰</li> <li>▪ 양평군 환경농업의 정의 및 목적 설정</li> <li>▪ 환경농업 정보망 구축</li> <li>▪ 현재 실천가능한 환경농업 기술정립 및 시범사업 추진</li> <li>▪ 유기·자연농업 및 농약, 화학비료사용 절감 농업 등</li> <li>▪ 환경농산물 유통체계 정비</li> <li>▪ 양평환경농업 필요성 등을 군민에게 홍보, 공감대 형성</li> <li>▪ 양평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단위(읍면별) 환경농업추진계획 수립</li> <li>▪ 개발된 환경농업의 기술 보급</li> <li>▪ 축산분뇨 자원화 및 비료의 기술발전 보급</li> <li>▪ 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의 전 분야에서 환경농업 실시기반 확립</li> <li>▪ 생산유통과 소비자 홍보 및 브랜드화 정착</li> <li>▪ 새로운 기술 및 자재의 활용</li> <li>▪ 양평환경농업 생산 및 유통체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인증유도</li> <li>◦ 농가소득증대 역점</li> </ul> </li> </ul>

그림 4-8. 양평환경농업-21, 8개년 계획

100) 양평환경농업-21[YEAM-21]의 의미는 총체적으로는 21세기를 앞둔 깨끗한 양평의 자연환경과

청정농업을 길이 지키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약자를 풀면 다음과 같다.

Y는 Yang-Pyeong : 우리 고장의 명칭 양평

E는 Environment : 자연환경

A는 Agriculture : 농업

M은 Movement :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

101) 양평군, 2001, 양평-21C 환경농업의 중심, 홍보자료.

표 4-15. 양평친환경농업 주요 추진과정

시기	주요 내용	비고
1997.12	제2의 농업부흥운동 선언	
1998.2.23 1998.4.10 1998.5.16 1998.10 1998.12.28	제2의 농업부흥운동 추진발기인 협의회 개최 창립총회에서 양평환경농업-21 선언 농림부 이동장관실 운영실 보고 친환경농업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추진계획 용역 의뢰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지역 선포 친환경농업과 신설
1999.2.11 '99.3.24~26 '99.6.7~8 1999.9.7 1999.11	상징마크 상표등록 특허 출원 환경농업지도자 교육 실시(200명) 민관합동교육 축노이용 BMW(Bacteria Mineral Water)생산시설 설치 농업인을 위한 '환경농업대학' 개설	
2000.1.14 2000.2 2000.6 2000.11.25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3가지 하기, 3가지 안하기 운동 전개 양평친환경농업인 연합회 구성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농업분야 세계 최초  순수민간단체
2001.9.23 '01.10.23~24	김대중대통령 비베기행사 방문 세계친환경유기농업 포럼 개최	
2002.8.12 2002.9.26 2002.9.27 '02.11.13~1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승인 반딧불이 보호지역 선포식(한국반딧불이연구회) 친환경농업교육관 건립 완공 BMW 국제심포지엄 개최	(사)양평환경농업-21 전국 두 번째 200명 흡속가능 규모
2003.2 2003.4 2003. 10 2003. 10~ 2003.11 2003.12	미생물배양실 설치 '물맑은 양평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물맑은 양평농산물' 소포장 개발 '물맑은 양평농산물 TV CF제작 및 방송 2003 쌀 박람회(2003 Rice Expo)참가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현금보상	농가당 25만원 지급
2004.3 04.9.7~11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완공 제6차 아시아 유기농업 학술대회 IFORM-Asia 개최	

출처 : 양평군, 2003, 양평환경농업-21[YEAM-21] 홍보자료.

양평군, 2004, 친환경농업과 지역활성화 심포지엄 자료집.

양평군청 홈페이지 <http://www.ye21.net/>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덧붙여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의 양평 전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들이 마련되었다. 매년 마을당 4농가씩의 선도 농가를 선정하여 2003년 말 현재 2,417농가(전체 9,611농가의 25.2%에 해당)를 육성해 농가당 21만원씩의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선도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무농약재배 이상의 인증을 받은 농가는 25만원을 연말에 현금으로 지원하여 친환경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였다.<sup>102)</sup>

양평군의 환경농업 추진 배경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우리 농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을 들 수 있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양평군내 농가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경험과 이를 통한 자신감, 군수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계층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믿음, 열정 및 강력한 리더십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군수를 포함한 각계각층 지도자 그룹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믿음과 열정은 양평 환경농업-21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민간기구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 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더해짐으로써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였던 것<sup>103)</sup>으로 평가되고 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1999년에 전체 농가수의 27.3%인 2,569농가 및 전체 경지면적의 19.8%인 2,157ha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었고, 2001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농가수의 49.7%인 4,674농가 및 전체 경지면적의 26.9%인 2,989ha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여주·양평 출장소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0년말 현재 친환경농업 전체 농가의 11.6%인 499농가가 품질인증 및 표시신고를 획득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양평군

102) 김대수, 2004, 친환경농업과 지역활성화 방안-양평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과 지역활성화 심포지엄 자료, pp.26~27.

103) 윤주이, 200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구조와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원 농업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p.133.

청은 친환경농업실천농가들의 생산품이 다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과 차별성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품질인증 지정을 신청 운영하기로 했다.

2005년은 정착단계의 3차년도로 8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유기·자연재배 10%, 무농약 재배 20%, 저농약재배 70%를 실천 목표로 삼고 있다.

## 2) 친환경실천농가의 추이

2000년 농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농가대비 실천농가 비율에 있어 경기도가 10.62%로 가장 앞서 있다. 한편 경기도내에서도 특히 양평군은 농가수 대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비율이 40.92%로 타 시군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4-16, 그림 4-9).

그 까닭은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지원과 지구조성사업이 친환경농업 확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양평 지역이다.

양평군은 일찍부터 친환경농법에 의한 작물재배가 민간에서부터 시작된 곳이며, 각종 환경규제로 공업 입지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농업이 지역 경제의 기반으로 지속되어 왔다. 표 4-17에서와 같이, 1990년까지 농가율이 전체세대 수 대비 50.7%를 차지하고 있었고, 2000년 현재 전국 평균 농가율과 경기도 평균 농가율이 각각 10.7%, 6.9%인데 양평군은 33.6%의 높은 농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맥락으로 지역 경제의 기반인 농업의 혁신과 변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민감한 것이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표 4-16. 경기도 시군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현황

지역	농가수(호)	친환경 실천 농가수(호)	친환경 실천 농가율(%)
<b>경기도</b>	<b>148,504</b>	<b>15,767</b>	<b>10.62</b>
수원시	1,587	139	8.76
성남시	1,305	229	17.55
의정부시	1,054	90	8.54
안양시	217	15	6.91
부천시	445	23	5.17
광명시	708	63	8.90
평택시	13,152	903	6.87
동두천시	887	42	4.74
안산시	1,999	90	4.50
고양시	6,033	223	3.70
과천시	484	43	8.88
구리시	413	10	2.42
남양주시	5,372	499	9.29
오산시	1,147	71	6.19
시흥시	2,437	36	1.48
군포시	418	83	19.86
의왕시	856	137	16.00
하남시	1,417	320	22.58
용인시	8,015	807	9.90
파주시	9,719	211	2.24
이천시	9,854	2,448	24.84
안성시	11,231	274	2.44
김포시	6,724	118	1.75
양주군	4,876	43	0.88
여주군	9,705	1,163	11.98
화성군	15,676	2,512	16.02
광주시	4,161	689	16.56
연천군	4,885	272	5.57
포천시	9,258	144	1.56
가평군	4,907	91	1.85
<b>양평균</b>	<b>9,727</b>	<b>3,978</b>	<b>40.90</b>

출처 : 농림부, 2000, 농어업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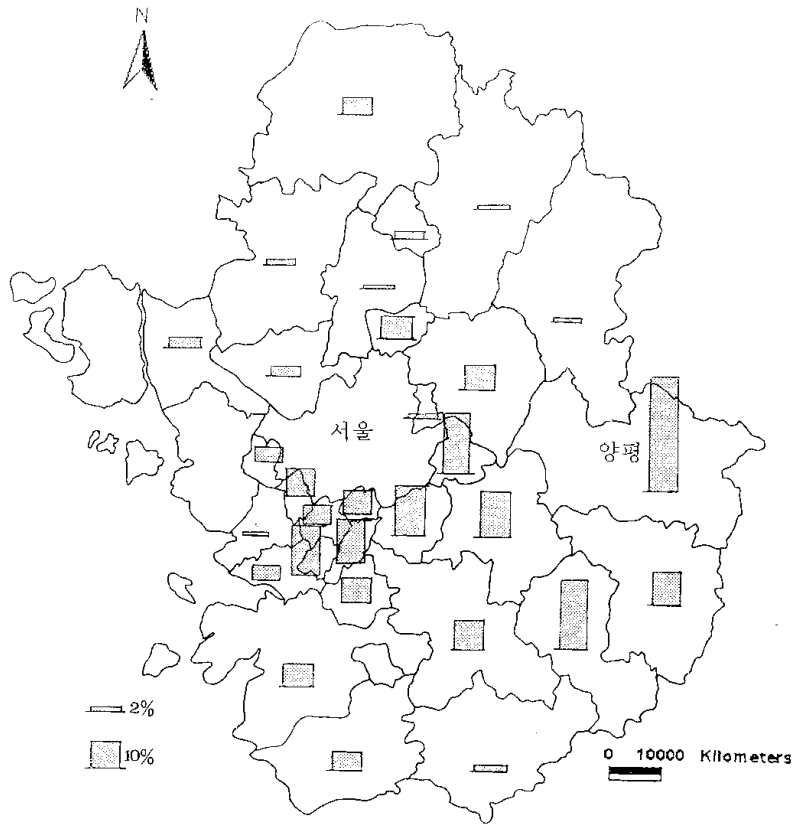


그림 4-9. 경기도 시군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출처 : 농림부, 2000, 농어업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표 4-17. 농가수 및 경지면적 변화

연도	전체 세대수(호)	농가(호)	농가율 (%)	경지면적(ha)			농가 당 경지면적(ha)		
				계	논	밭	계	논	밭
1985	20,486	12,786	62.4	13,104	8,512	4,592	1.02	0.66	0.36
1990	20,288	10,276	50.7	11,295	7,555	3,740	1.05	0.70	0.35
1995	24,528	9,603	39.2	11,954	7,465	4,489	1.25	0.78	0.47
2000	28,975	9,727	33.6	10,370	6,111	4,259	1.06	0.63	0.44
경기도	2,167,683	148,504	6.9	182,097	122,104	59,993	1.23	0.82	0.40
전국	12,955,486	1,383,468	10.7	1,602,355	998,558	603,797	1.16	0.72	0.44

출처 : 양평군, 각 년도, 양평통계연보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 3) 읍면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분포 특징

그림 4-10에서 보는 바대로, 읍면별 농가대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분포 특징은 강상면, 옥천면, 양평읍, 개군면, 강하면, 지제면, 양동면의 순을 보인다. 농촌 중심지인 양평읍 주변의 지역들과 대체로 양평지역의 남부 지역이 북부와 동부지역보다 실천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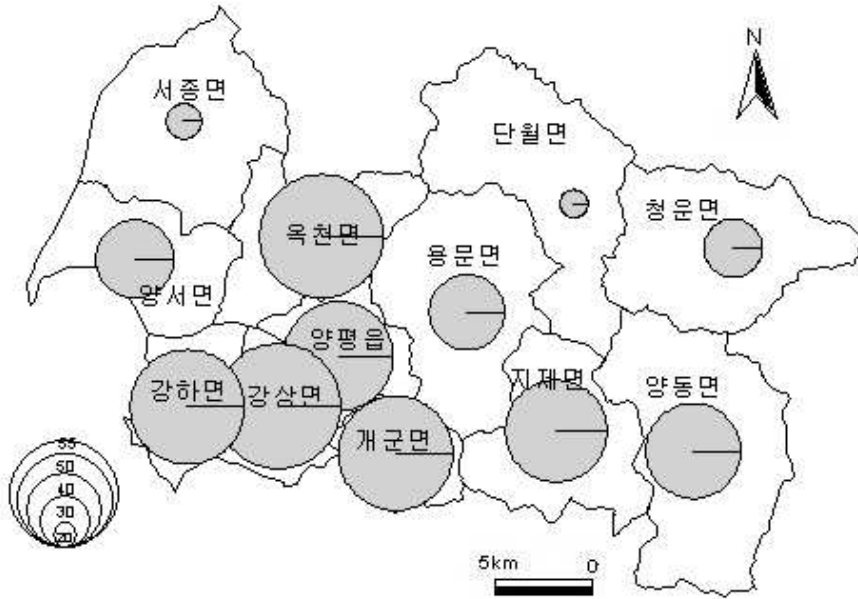


그림 4-10. 읍면별 농가수대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 비중(2000)  
출처: 통계청, 2002, 2000년 농어업총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읍면별 분포 특징과 시기별 변화를 그림 4-11과 그림 4-12을 통해 살펴보면, 군 중앙의 양평읍, 용문면, 개군면, 지제면이 중심 축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인증농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서종면의 인증농가 분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벼농사 중심지역인 용문면, 개군면, 지제면은 2002년 초기부터 인증농가의 수치가 높고 지속적으로 인증농가수가 늘어나고 있다.

논벼에 오리농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것이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감안할 때, 양평군 자체에서 선도농가와 선도마을 선별에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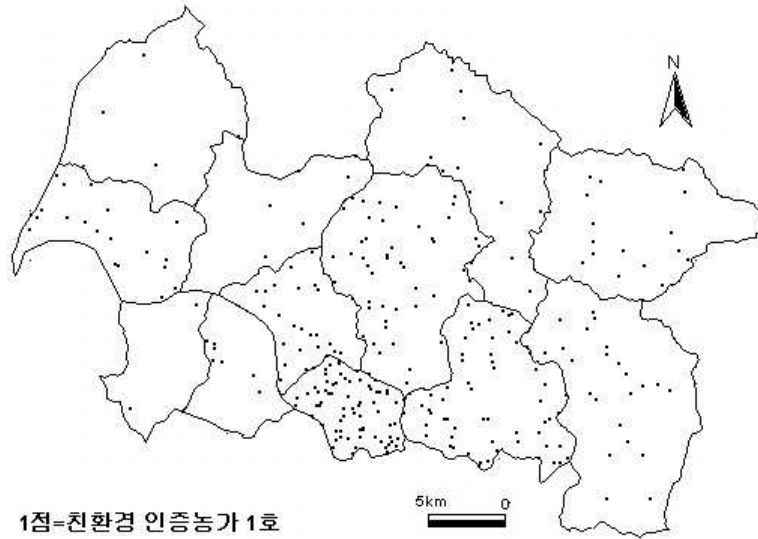


그림 4-11-1. 친환경 인증농가(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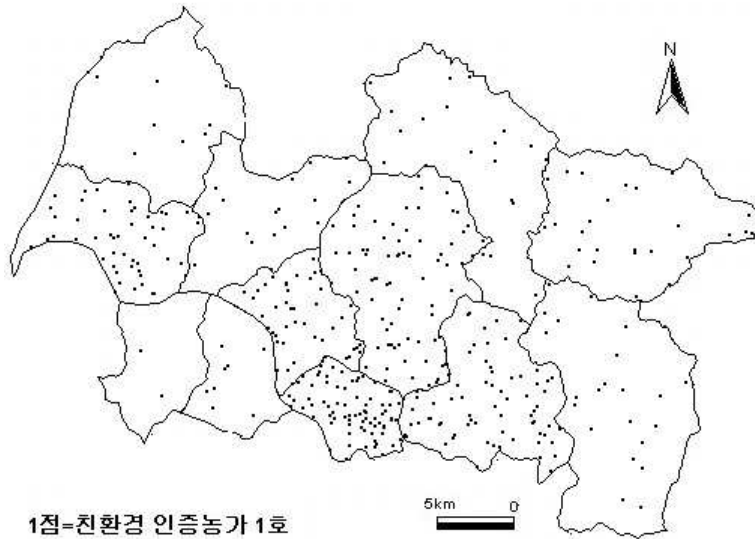


그림 4-11-2. 친환경 인증농가(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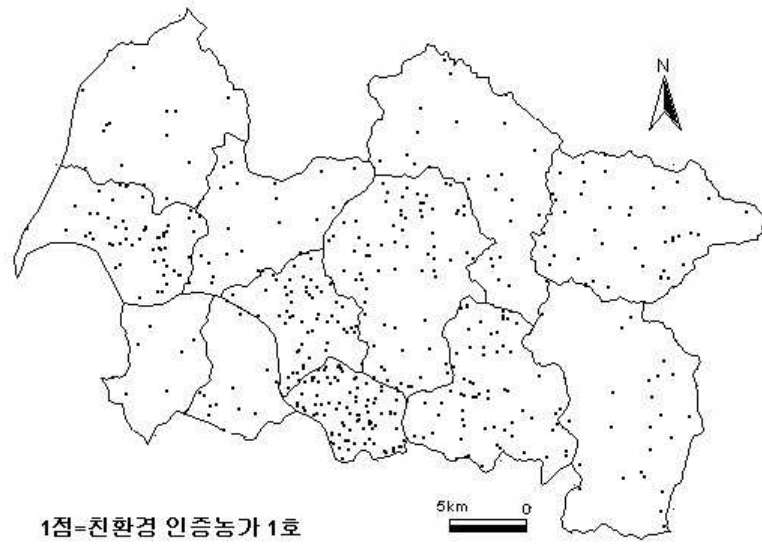


그림 4-11-3. 친환경 인증농가(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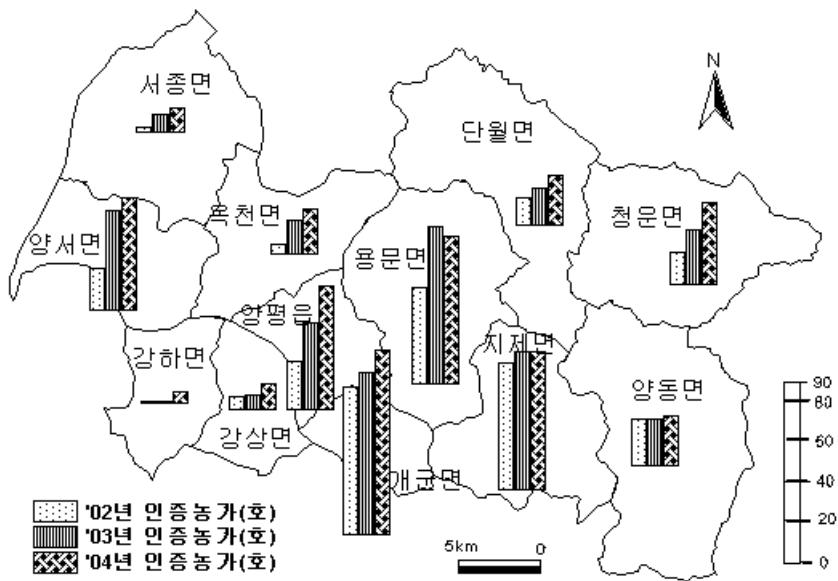


그림 4-12. 친환경 인증농가 변화(2003~2004)

출처 :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에 기초해 필자가 재구성.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란 혁신 의지를 보유한 농업인으로, 읍면단위에서 추천을 받아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데 투여하는 비용을 지원받는 농가이다. 읍면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도농가의 수는 조절되기 때문에 단순히 읍면별 선도농가 분포를 친환경농업 실천에의 의지 정도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읍면별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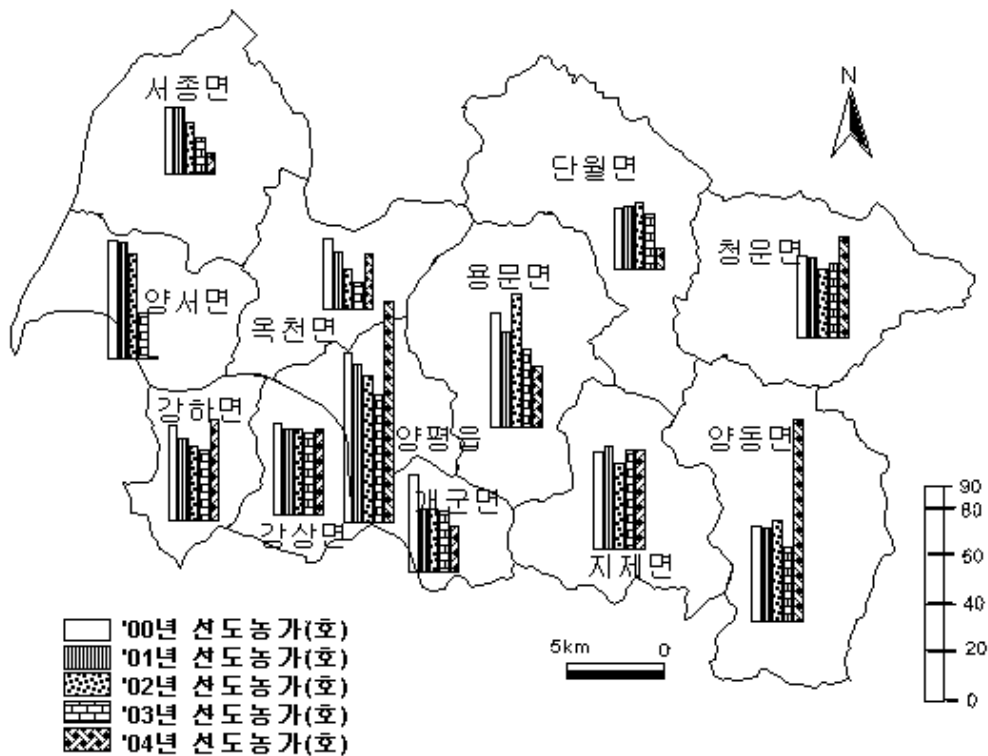


그림 4-13. 친환경 선도농가 변화(2003~2004)

출처 :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에 기초해 필자가 재구성.

104) 양평군청 친환경농업정책과, 김대수 과장님 및 정동진 주사님과의 면담 내용에 기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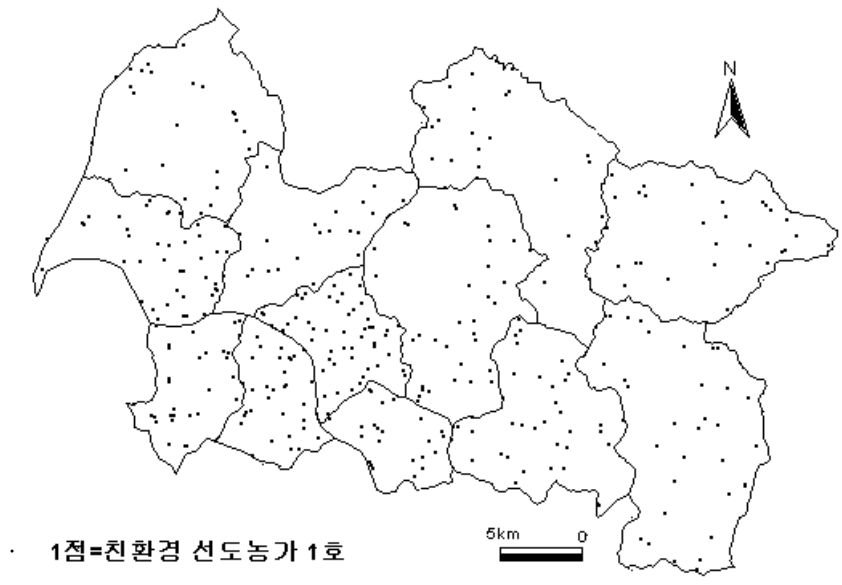


그림 4-14-1. 친환경농업 선도농가(2001)



그림 4-14-2. 친환경농업 선도농가(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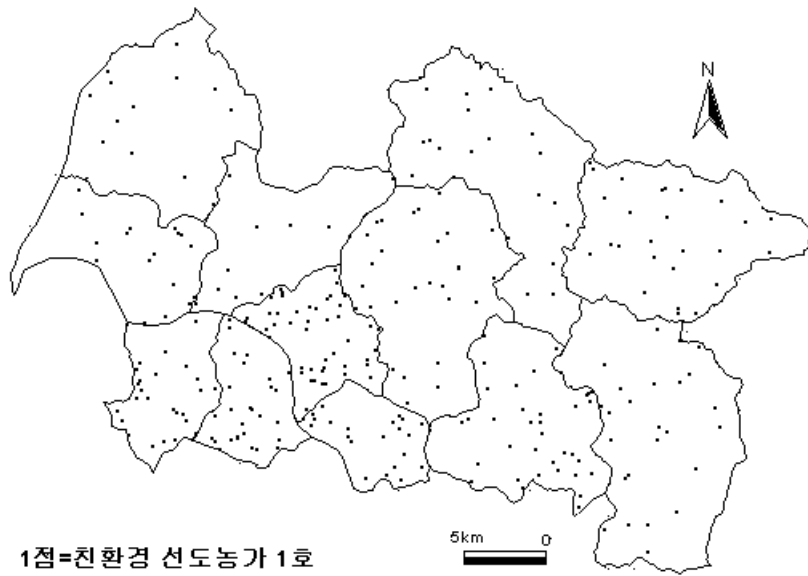


그림 4-14-3. 친환경농업 선도농가(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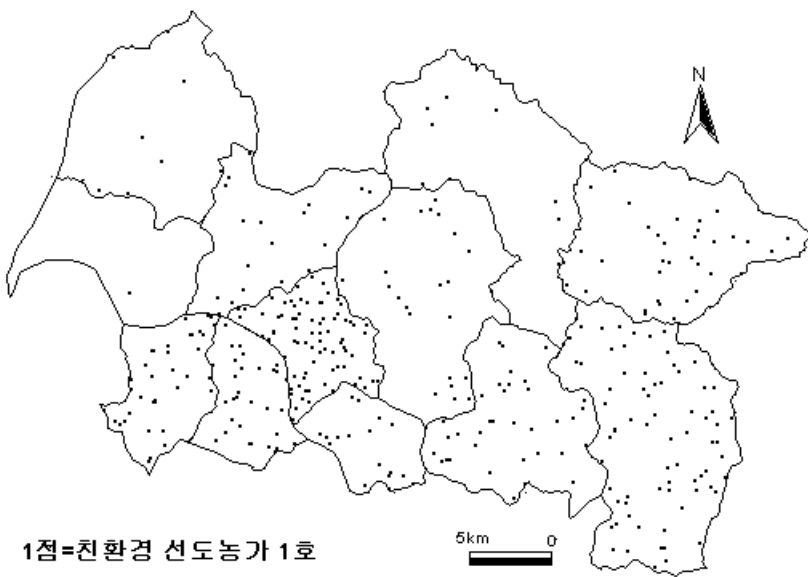


그림 4-14-4. 친환경농업 선도농가(2004)

출처 :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에 기초해 필자가 재구성.

#### 4)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생산작물 분포

그림 4-15는 읍면별 작물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를 나타낸 것이다. 옥천, 강하, 강상, 개군, 지제면은 논벼의 인증농가가 탁월하고, 서종, 양서, 강상, 용문, 단월면은 채소 인증농가가 중심을 이룬다. 양동, 청운, 양서면은 배, 수박과 같은 과수 인증농가가 주를 이룬다. 양평군에서 농업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어 온 까닭에 읍면별로 자신의 자연환경에 알맞은 작물이 선택되어 시장 수요변화에 대응하면서 선별되고 지역내 재배작물 분화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바탕위에 농가들은 전통적인 읍면별 재배 작물에 친환경농법을 수용하여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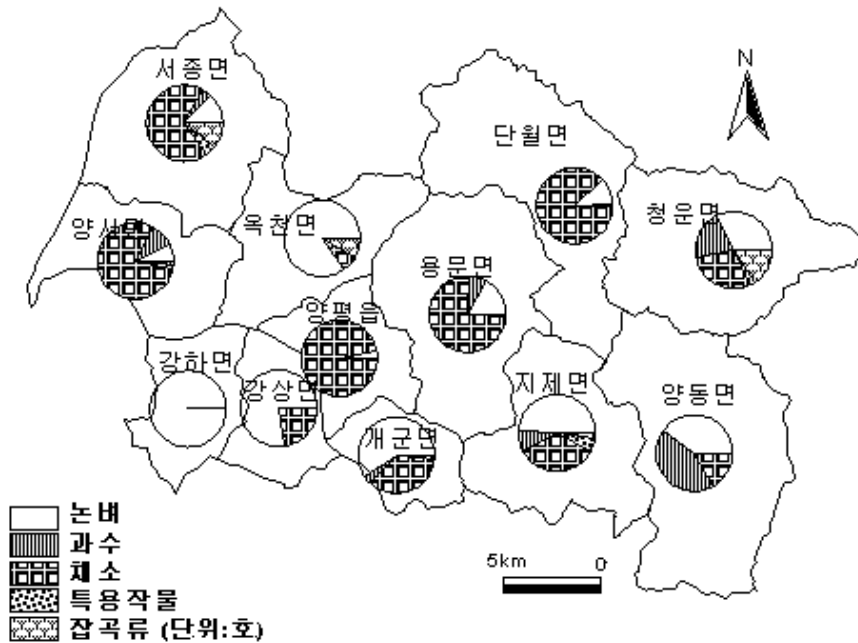


그림 4-15. 읍면별 작물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2004)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rqs.go.kr](http://www.narqs.go.kr))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주) 농가별 이력표 내용을 재정리하여 작성.

## 5)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고양과 지역정체성의 재구성

### (1)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 고양

개발에서 소외되었기에 보전할 수 있었던 양평지역의 환경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더할나위 없이 알맞은 지역 이미지 조성과 지역 정체성 확립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6기 환경농업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역할과 지역정체성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양평지역의 이미지 및 지역정체성에 관한 설문<sup>105)</sup>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양평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이 갖는 가치

개인의 생계수단으로서의 가치는 '보통이다'의 응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가치와 농촌체험관광지와의 연계되는 가치는 '크다'내지 '보통이다'의 응답이, 환경보전에 미치는 가치는 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반 수강생들은 '매우크다'내지 '크다'에 귀농인반 수강생들도 '크다'는 응답을, 안전한 먹거리 제공면에서의 가치에 대해 전문인반 수강생들은 '매우 크다'의 의견이, 귀농인반 수강생들은 '크다'의 의견에, 마지막으로 도농교류 측면에서의 가치에는 두반 수강생 모두 '매우 크다'와 '크다'의 응답을 보였다.

대체로 친환경농업은 양평 지역에서 매우 긍정적인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단, 개인의 생계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다른 가치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양평 지역 거주 만족 및 지역 정체감

거주 만족 및 지역정체성에 관한 거주 자부심, 후세대의 거주 의향, 자연행사 참여, 정주 의향, 이웃관계, 쾌적성, 장래 거주 적합성, 도시와 비교한 거주 만족도 및 지역 활성화 인지도 문항에 있어 친환경농업인 및 원주민에 해당하

---

105) 2005년 2월 24일 환경농업대학 6기 첫 수업시간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환경농업에 대한 지식이 습득되기 전,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 첫 수업시간 전에 수강생 92명 전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부수는 46부이다.

는 전문인반 수강생들이 귀농인반 수강생들에 비해 거주만족도와 지역정체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다’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 6) 친환경농업 지식네트워크 형성

친환경농업은 지식기반 생명산업으로 역할을 갖는다.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등에 관한 지식들은 지역 인적자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쇄신되고 이로써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는 학습, 강화되고 있다.

양평 지역의 친환경농업 지식네트워크는 그림 4-16 친환경농업 추진체계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를 네트워크의 가장 상위 결절로 삼고 그 아래 양평환경농업-21 읍·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지원방안 및 기술교육, 신기술 도입을 위한 예산지원과 이념교육을 실시한다. 차하의 네트워크 결절 역할을 하는 양평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읍·면 친환경농업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가 기술교육과 이념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때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가 기술교육 및 현장 지도를 지원하며, 연합회는 읍·면 친환경농업 선도마을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홍보를 지속한다.

또한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양평군 환경농업대학은 2005년 현재 6기 입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표 4-18).

2005년 6기에 들어와서는 전문인반과 귀농인반으로 분반이 이루어졌으며, 커리큘럼 상에 농촌관광 과목이 새로 도입된 특징이 있다. 초기에는 읍면별 지원자를 모집하기 어려워, 주로 마을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리더들이 수강생의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강 인원이 크게 늘어 전문인반과 귀농인반으로 분반이 이루어졌고 각 수강생도 예전에 비해 많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순전히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 수강생이 구성되고 있다.<sup>106)</sup>

106) 농업기술센터 구상철 계장님과의 면담 내용에 기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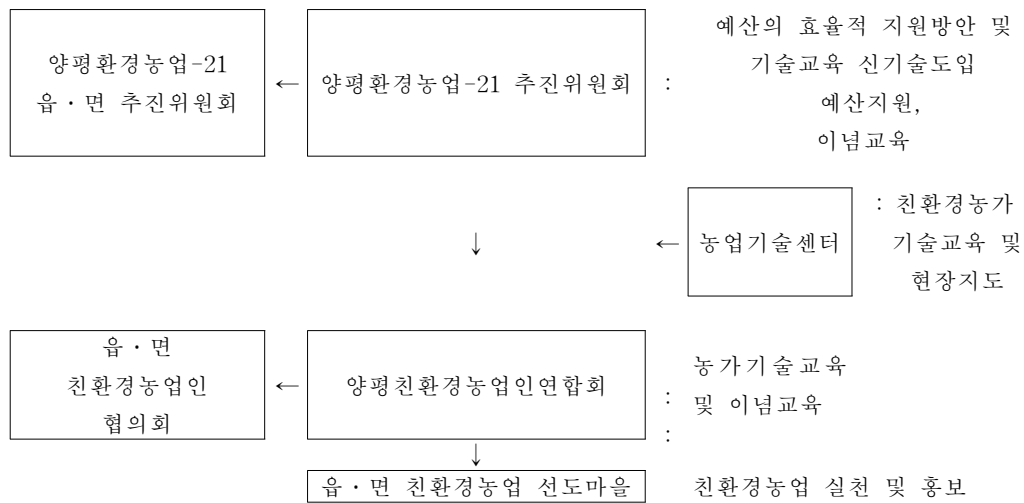


그림 4-16. 양평군 친환경농업 추진 체계도

표 4-18. 환경농업대학 읍면별 졸업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졸업생						입학생		
	계	1기 2000년	2기 2001년	3기 2002년	4기 2003년	5기 2004년	6기 2005년		
	301	63	63	61	53	61(5)	92	전문인반 61	귀농인반 31
양평읍	35	4	7	9	3	15	11	4	7
강상면	11	3	2	4	-	2	5	1	4
강하면	16	5	7	4	-	-	3	-	3
양서면	19	7	3	5	4	-	6	5	1
옥천면	10	4	1	-	2	3(1)	1	-	1
서종면	19	4	3	4	3	5	4	1	3
단월면	23	4	5	2	4	8(2)	11	8	3
청운면	36	5	4	7	10	10	10	10	-
양동면	31	8	4	5	2	2	-	-	-
지체면	43	7	11	7	11	7	16	15	1
용문면	42	6	10	13	7	6	12	6	6
개군면	23	6	6	1	7	3(2)	13	11	2

자료 :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양평환경농업대학 교육과, 내부자료에 기초해 작성함.

주 : ( )안의 인원은 4기 졸업자로서 5기에 청강하여 수료한 경우임.

졸업자 가운데 1명은 사망함.

#### 4. 친환경농업공간에서 녹색소비공간 창출로의 확장

사회적으로 소비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지닌 공간을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07)</sup>

오늘날 농촌공간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생산공간에서 소비공간으로의 움직임이다. 1차 농산물 × 2차 농산물 가공품 × 3차 농촌 관광 서비스 = 6차 산업을 추구하는 다복합 영농이 더 나은 농촌의 부가가치 함양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양평군은 팔당호 상수원을 보호를 위한 수많은 법적 규제로 인해 개발은 정체되었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전이라는 대가를 받았다. 최근 주5일근무가 확산되면서 농촌의 아름다움과 농업·농촌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온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면서 더욱더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 농촌의 어메니티를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20일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과거 농정업무를 총괄하는 산업진흥과 친환경농업팀을 친환경농업과로 개칭해 모든 농정업무를 친환경농업에 초점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경제과를 경제관광과로 개편해 그 산하에 농촌관광팀을 신설하였다. 이는 친환경농업과 농촌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평 지역에는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일이 양서면 양수1리와 청운면 신론1리에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설치되어 계절별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용문면 화전2리에 ‘옹달샘꽃누름’이라는 테마로 2004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용문면 연수1리에는 슬로우푸드마을이 추진 중에 있다. 그밖에 산림청이

---

107) Brian Graham, G.J. Ashworth, J.E. Tunbridge, 1998, *The Geography of Heritage*, pp. 1~3.

주관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단월면 석산리, 청운면 신문·도원리, 서종면 명달리(1·3반)에 실시되었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서종면 명달리(2반)에 실시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뿐 아니라 도시민의 여가 욕구를 흡인할 수 있는 농촌다움의 가치를 구성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온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용문면 연수리와 오촌리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표 4-19, 그림 4-17).

표 4-19. 양평 농촌관광마을현황

구분	설치 시기	대상 마을	사업내용	사업특징	지원예산 (백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	2002년	양서면 양수1리	원두막 19개소의 9개 사업	계절별 다양한 체험 실시	200
	2003년	청운면 신문1리	주말농장 조성회 11개 사업	계절별 다양한 체험 실시	200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청)	2004년	용문면 화전2리	원두막, 체험장 등	옹달샘 테마로 프로그램 운영	100
슬로우푸드마을	2004년	용문면 연수1리	식당, 체험장, 교육관 등 개보수	추진중	87.4

출처 : 김대수, 2004, ‘친환경농업과 지역활성화’ 자료집에서 인용함



그림 4-17. 양평지역 농촌관광마을의 입지

출처 : 김대수, 2004, '친환경농업과 지역활성화' 자료에 기초해 필자가 재구성

## V. 마을 단위의 국지적 농촌사회구성 재편 과정

### 1. 친환경농업의 수용과 농촌사회구성 재편 사례

； 용문면 화전2리, 친환경농업 선도마을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로

#### 1) 마을의 경관 구성

양평군 용문면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화전리(花田里)는 본래 지평군 상서면의 지역이었으나 용희 2년(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꽃길, 궁말(宮村), 여촌리(餘村里), 전곡리(田谷里), 마장말, 동촌(東村)을 병합하여 꽃길과 전곡의 이름을 따서 화전리라 하여 용문면에 편입되었다.<sup>108)</sup>

동남쪽으로는 지평면 옥현리, 수곡리와 맞닿아 있다. 화전2리 중앙에서 4번 군도와 이어지는 6번 군도를 따라 서쪽의 오리나무 고개(혹은 자작나무 고개) 넘으면 같은 면의 삼성리 섬실로 이어진다.



그림 5-1. 화전2리 마을 입지

108) 한글학회, 1985, 한글지명총람 17 - 경기편, p.550.

화전리는 행정구역상 화전1리와 2리로 나뉜다. 면사무소 소재지인 다문리(多文里)의 용문버스터미널에서 331번 지방도로 진입해 화전교(花田橋)를 건너면 4번 군도로 연결되면서 전곡을 중심으로 구성된 화전1리에 닿는다. 이어 해발 고도 125~150m정도의 다소 가파른 성황당고개<sup>109)</sup>를 넘으면 얇트막한 산들로 둘러 싸인 작은 분지 형상의 화전2리와 만난다.



그림 5-2. 마장말에서 바라 본 궁말과 여촌 경관

예부터 화전리는 마을 모양새가 꽃봉오리 형상을 닮았고, 꽃이 많이 피어있어 화곡(花谷) 혹은 꽃길이라고 불리웠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 산수유를 비롯한 야생화가 많이 피어나며, 특히 여름이면 너털이들 가운데를 흐르는 개울가에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마을을 둘러싼 주변 산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지하수가 마을의 지반 아래에서 분출되고 있어, 예부터 마을의 중앙을 샘말이라 하였고, 산쪽으로 옷물, 샘

109) 예전에 큰 엄나무 곁에 성황당이 있어 성황당고개라 불렀는데, 5·16혁명이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도로(지금의 4번 군도)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그 흔적은 사라지게 되었다.

함대춘 할아버님(66세)과 그의 장남(46세, 2004년 前새마을지도자)과의 면담내용에 기초함.

물재, 돌틈 등의 약수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지하수는 수량이 풍부하고 마르는 법이 없어 화전2리 뿐만 아니라 화전1리 지역에서도 논농사를 위한 관개용수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이다.<sup>110)</sup> 자연마을마다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해 오던 우물과 그 주변 빨래터가 지금은 오염되어 옛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그 흔적만은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다.

화전2리는 화전리에서 으뜸가는 마을인 궁말을 중심으로 여촌, 동촌, 마장말로 구성되어 있다. 궁촌이라고도 불리는 궁말에는 효종의 딸 숙안공주(淑安公主)와 그 남편 익평군(益平君) 홍득기(洪得箕)<sup>111)</sup>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능묘 뒤편에 조성되어 있는 오래된 잣나무숲과 그 너머 700년 이상의 수령을 갖고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은행나무는 남양 홍씨가 세거했던 과거의 위세를 가늠하게 한다.



그림 5-3. 천화정(泉花亭)과 숙안공주 능묘

110) 홍석기이장님(54세)과의 면담내용에 기초함.

111) 숙안공주(1635~1696)는 조선17대 효종의 1녀로, 14세 때인 인조27년(1649) 우의정을 이낸 충익공 홍중보의 아들인 홍득기와 혼인하였다. 그는 성록대부 익평군 겸 오위도첨부 도총관을 지냈고 현종 계축 11월에 별세했다(양평군청 [www. ye21.net](http://www.ye21.net))



그림 5-4. 700년 수령의 은행나무(궁말)

이렇듯 과거 화전2리에서 지배력을 발휘했던 남양 홍씨 종족집단은 궁말, 능묘와 은행나무 등의 상징경관에 자신의 영역성을 투영하였다.

오늘날 이와 같은 마을 전통 경관은 역사 문화적 유산(heritage)으로서, 사회적으로 재현되어 중요한 지역 자산으로 인정받고 농촌공간의 상품화를 도모한다.<sup>112)</sup>

특히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상징 구성 중 전통의 부활 또는 보존을 통한 지역 정체성 만들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일종의지역사회 동질화 과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을 중심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생각하도록 각성시킨다.

다시 말해 이는 자신이 사는 터전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삶을 재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즉, ‘지방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어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과 논의를 능동적으로 제기하려는 다각적으로 표현인 것이다.<sup>113)</sup>

---

112) Brian Graham et al., 1997, *ibid*, pp.1~3.

113) 강희경, 2002, 지역사회의 상징 구성과 지역정체성 만들기, 호산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문총

한편 여촌은 남양골이라고도 불리우며 평양 조씨와 영월 엄씨가, 동촌은 영산 신씨와 경주 이씨가 그리고 마장말에는 전주 이씨가 예부터 터를 잡고 살았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토박이 원주민들의 거주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화전2리는 예로부터 자연마을별로 각기 다른 성씨들이 점거하여 영역을 구축해 온 ‘각성반이 마을’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 시점에서 영역성(territority)을 형성해 온 각 성씨별 입식 혹은 입향 순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문헌상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경관상 가옥의 연한으로 보면, 전통적인 흙벽과 너와를 이용해 만든 오래된 가옥은 여촌에 가장 많이 남아있고, 동촌과 마장말의 끝 자락에 조금씩 남아 있다. 그러나 화전2리가 6·25전쟁 지평전투로 심한 폭격을 받아 전통적인 역사 경관의 많은 부분이 손실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잔존한 외형만으로 마을 형성 시기의 선후를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처음 이 곳 화전2리에 들어 온 성씨는 연일 정씨(延日鄭氏)라고 들었다. 그 선비가 성황당고개를 넘어 샷갯을 벗고 숨을 고르며 마을을 내려다보니 온천지가 오리나무와 야생화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의 여촌 중앙에 가옥을 짓고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한다…

위와 같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sup>114)</sup> 여촌이 최초 입식 지점이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여촌에는 오래된 오리나무가 곳곳에 남아 있다.

화곡 혹은 꽃길이라 불리는 화전2리는 기본적으로 남양홍씨 종족집단의 세거지로 구성된 마을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성씨들이 국지적 공

---

간행위원회 위임, 진단과 대응의 사회학, 박영사, pp.3~33.

114) 조영대(73세)님, 함대춘(66세)님과의 면담 내용에 기초함.

간 안에서 자연스러운 경계를 갖고 자연마을별로 영역성(territory)을 인식해 온 ‘각성밭이’마을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고 있다.

…공주가 이 마을로 시집오면서 남양 흥씨의 권세가 남달라졌다지. 한 180~200년 전쯤에는 남양흥씨네가 다른 성씨들이 갖고 있던 논밭을 강제로 빼앗아<sup>115)</sup>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윗대 어른들한테 어려서 들은 적이 있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무슨 양반이고 뭐고가 있어 다같이 어울려 사는게지…

…원래 다문초등학교 분교 터는 남양흥씨 종중 땅이었는데, 몇 해 전부터 학생이 줄어 학교가 폐교되었다. 군청에 땅을 넘긴 대가로 대신 면소재지까지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버스를 구입했다. 그런데 군청에서 서울시에 다시 되팔아 현재 학교는 노숙자들을 돌보는 시설<sup>116)</sup>이 들어섰다. 그 때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막았어야 했는데, 단결심이 부족해서 흐지부지 되다가 지금처럼 되고 말았다. 1차선 도로에 몸도 불편한 시설 사람들이 무방비로 다니는데다가 농번기에 빈집이 되기 쉽상인 우리들은 논밭에 나가 일하면서도 내심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결국, 한국 촌락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는 동족촌<sup>117)</sup>은 “동성동본의 동족이 일정한 지역을 거주단위로 하면서 공조의식에 기초를 두고 장소를 형성하는 생활공동체”로서 우리 농촌사회의 근간이 되어 온

115) 임금님이 ‘마을(궁촌) 들레의 땅은 모두 공주 네 것이다’라고 해서 남양흥씨 집안 소유의 땅이 되었다고 들었다 (함대춘, 66세 및 조영대, 73세와의 면담 내용에 기초함).

116) ‘사랑의 울타리’는 2000년 화전2리 347-1번지 옛 다문초등학교 화전분교의 폐교 건물을 서울시가 양평군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서울시 노숙자들을 수용한 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2005년 2월 28일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183명(전원 남자)이나 변동이 매우 극심하며 부분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화전2리의 인구 및 가구수 변화가 매우 크며, 마을 이장님은 시설에 수용된 인원을 제외한 마을 현황을 135세대에 259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별도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사랑의 울타리’ 김완영 생활지도·운영기획팀장님과과의 전화통화 내용 및 용문면사무소 주민담당 공무원과 흥석기이장님과의 면담에 기초함).

117) 善生永助, 1935, 朝鮮の聚落, 朝鮮總督府, p.1.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갑오개혁이후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 6·25전쟁 등 일련의 사회변동은 전통적인 동족결합과 조직을 약화시키게 되었으며,<sup>118)</sup> 196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산업화·도시화의 물결은 이러한 와해의 분위기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한국 촌락의 대중을 이루며 농촌사회의 근간이 되어 온 동족자연공동체로서의 동족촌은 이전의 전통적 가치관 대신에 산업사회 논리와 가치체계의 수용을 강요받으면서 전통적 구조의 해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sup>119)</sup>

화전2리의 경우, 남양홍씨 세거지로서 종족촌락의 성향을 가지면서 동시에 여러 성씨들이 어울려 살아 온 각성만이 마을이다. 과거 전통적인 종족공동체가 생활공동체로 변화하고 있다.

## 2) 주민 구성의 특징

주민 구성의 특징을 우선 인구·가구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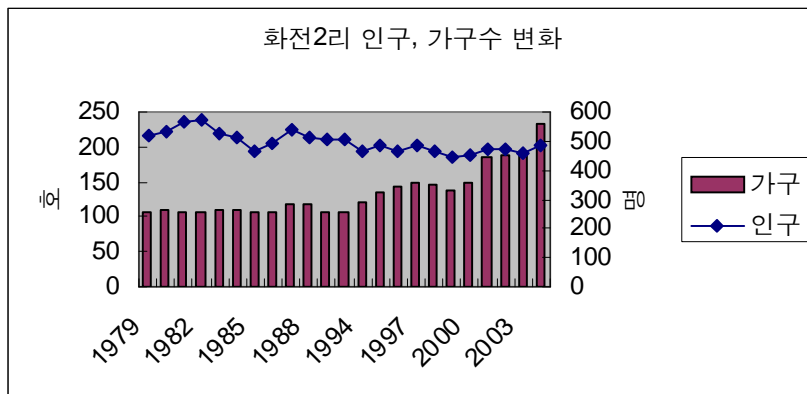


그림 5-5. 화전2리 인구·가구수 변화

118) 이창기, 1976, 동족집단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p. 50.

119) 최양부·이정환, 1989, 산업사회의 농촌개발전략 - 새로운 농촌지역 종합개발방식의 선택, 한국농촌개발연구원, pp.106~116.

화전2리 가구수는 큰 변동없이 약 110세대 내외의 규모를 유지해 오다가 1994년부터 점차 증가의 양상을 보인다. 이 시점부터 외지인 유입이 시작되었다. 반면 인구수는 변화의 폭이 크며 1983년~1985년 사이의 눈에 띄는 감소 이래 비슷한 수치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상태를 보인다.

표 5-1. 화전2리 가구·인구 변화<sup>120)</sup>

연도	가구(호)		증감	인구(명)		증감
1979	108		·	518		·
1980	109		+1	535		+17
1981	106		-3	569		+34
1982	107		+1	570		+1
1983	109		+2	528		-42
1984	109		·	510		-18
1985	107		-2	464		-46
1986	108		+1	492		+28
1987	117		+9	537		+45
1988	117		·	515		-22
1989	106		-11	505		-10
1990	106		·	505		·
1994	120		+14	467		-38
1995	136		+16	488		+21
1996	143		+7	466		-22
1997	149		+6	484		+22
1998	147		-2	468		-16
1999	137		-10	443		-25
2000	149		+12	451		+12
2001	185		+36	471		+20
2002	188		+3	469		-2
2003	193		+5	461		-7
2004	232	135	+39	488	259	+27

출처 : 통계연보(1979~2004), 양평군청

인구현황조사서(2005.2.28), 용문면사무소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120) 통계연보상에 1979년 이전과 1991년~1993년의 里단위 인구 및 가구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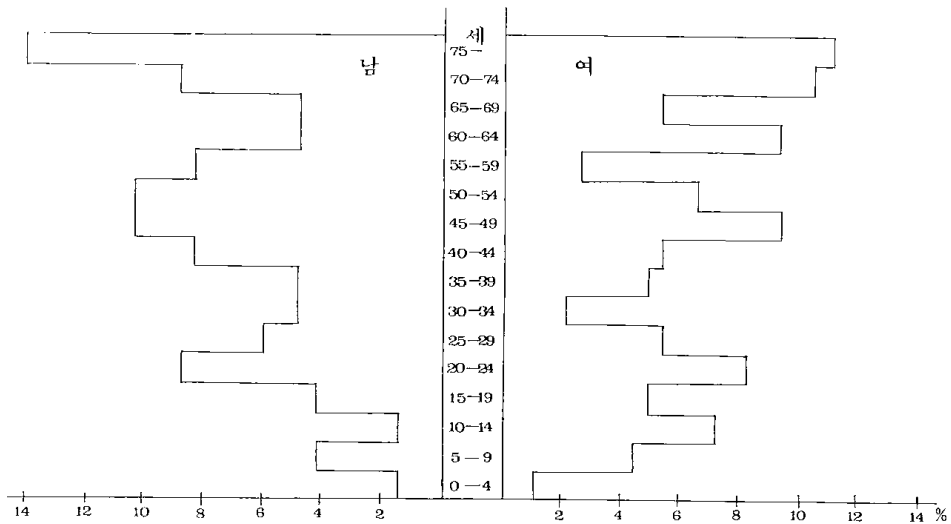


그림 5-6. 화전2리 인구피라미드

출처 : 세대별 주민등록표(2005.2.28현재), 용문면사무소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화전2리의 인구구조는 전체적으로 노령화의 정도가 심한 오늘날 우리나라 일반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남녀 각각 27.62%, 27.23%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마을 전체 인구의 약 1/3이 노년층인 셈이다.

한편 경제활동연령층인 40~50대 남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20대의 남녀 비중도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일반농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주박형의 인구피라미드를 보이나, 생산연령층을 확보하고 있는 특징이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생산연령층의 확보는 새로운 농촌공간 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화전2리 마을의 경우, 4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다른 농촌 마을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농사일에 전념한다기 보다는 양평 지역내 건설현장 등에 하루 7~8만원을 받고 잡부일을 나가는 경우가 아주 흔한 실정이다.

표 5-2. 화전2리 연령별 인구구성

단위 : 명, %

연령(세)	남		여	
0 ~ 4	2	(1.16)	2	(1.11)
5 ~ 9	7	(4.07)	8	(4.44)
10~14	2	(1.16)	13	(7.22)
15~19	7	(4.07)	9	(5.00)
20~24	15	(8.72)	15	(8.33)
25~29	10	(5.81)	10	(5.56)
30~34	8	(4.65)	4	(2.22)
35~39	8	(4.65)	9	(5.00)
40~44	14	(8.14)	10	(5.56)
45~49	19	(11.05)	17	(9.44)
50~54	19	(11.05)	12	(6.67)
55~59	14	(8.14)	5	(2.78)
60~64	8	(4.65)	17	(9.44)
65~69	8	(4.65)	10	(5.56)
70~74	15	(8.72)	19	(10.56)
75~79	11	(6.40)	6	(3.33)
80~84	3	(1.74)	11	(6.11)
85~	2	(1.16)	3	(1.67)
계	172	(100.00)	180	(100.00)

출처 : 세대별 주민등록표(2005.2.28현재), 용문면사무소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2) 친환경농업의 선택과 수용 과정

통계연보상에서 확인가능한 시기인 화전2리의 1979년~1981년 사이 농가수를 보면, 마을의 106호~109호 전 가구가 농업에 종사했다. 2004년 말 현재 전체 194가구의 52.1%에 해당하는 101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양평군 전체 농가율 30.1%와 용문면의 전체 농가율 31.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전형적인 벼농사 중심 농촌마을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호당 경지면적은 1.64ha이고, 벼 품종은 추청(秋晴)이다.

표 5-3. 경지면적과 농가 현황

구분	경지면적(m <sup>2</sup> )		가구수(호)	
	논	밭	농가	비농가
양평군	5,944	4,005	9,611(30.1%)	22,293
	합		합	
	9,949		31,904	
용문면	870.9	714.2	1,421(31.6%)	3,078
	합		합	
	1,585.1		4,499	
화전2리	87	79	101(52.1%)	94
	합		합	
	166		194	

출처 : 양평군 통계연보(2003.12) 및 용문면사무소 내부자료(2003)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화전2리 총 경지면적은 771,780.89m<sup>2</sup>로 논 54.3%, 밭 41.7%, 과수원 0.19% 기타 3.81%로 구성되어 있다. 논이 경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밭의 비중도 꽤 높은 편이다. 반면 서울근교 지역인데도 과수 경지가 매우 협소한 특징을 보인다. 필지수는 논이 262개, 밭이 218개, 과수원은 1개, 기타 19개로 논과 밭의 필지 비중이 각각 52.4%, 4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5-4. 화전2리 경지면적과 필지수

구분	면적(m <sup>2</sup> )		필지수(개)	
	논	419,082.24	54.3	262
밭	321,849.65	41.7	218	43.6
과수원	1,468	0.19	1	0.2
기타	29,381	3.81	19	3.8
합계	771,780.89	100.0	500	100.0

출처 : 용문면사무소 비치자료를 기초로 필지가 재구성.

(실제지목에 기초함).

화전2리 마을 중심에는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다. 마장말과 마주보고 있는 궁말과 동촌 사이에 앞들, 너털이들, 수갱이들은 넓었던 평야의 폭이 점차 줄어들며 좁고 길게 마을 깊숙이까지 이어진다. 여촌 서남쪽과 남쪽 편으로는 소따배기와 들다랭이라고 하는 들이 자리하고 작은 개울이 흐른다. 수령이 많아 수갱이들 혹은 쉬갱이들이라 불리는 들판의 이름처럼 마을 중앙에 위치한 평야는 하천의 발달과는 무관하며, 마을 곳곳에 산재해 있던 우물(샘)을 통해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왔다. 이런 연유로 ‘옹달샘 마을’이라 칭해지게 되었고, 전기가 들어오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청정수를 논밭에 필요한 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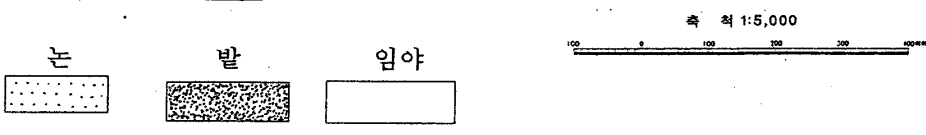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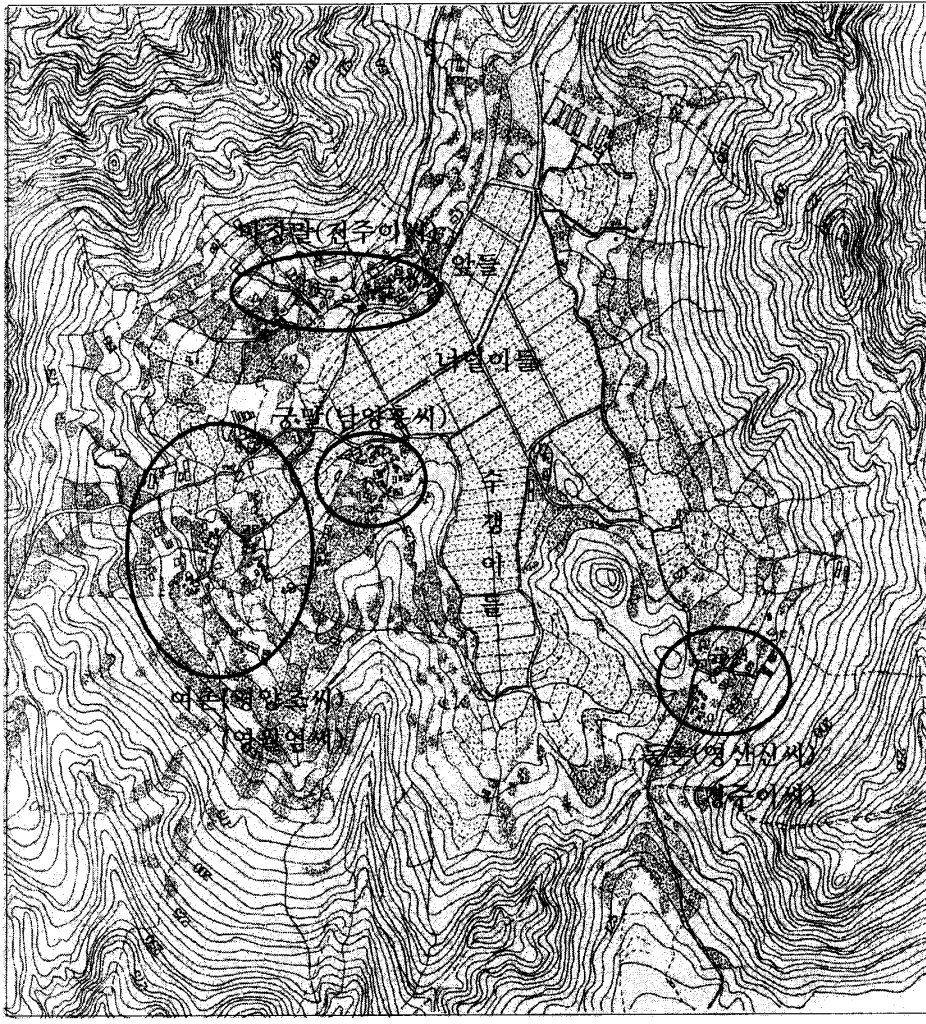


그림 5-7. 화전2리 토지이용과 성씨별 입식 지점

그림 5-7는 화전2리의 지형환경과 토지이용을 나타낸 것이다. 앞들, 너덜이

들, 수갱이들은 경지정리되어 반듯한 형상으로 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궁말, 여촌, 동촌, 마장말 각 자연마을에서 가옥 주변에 협소한 밭과 논이 펼쳐 있다.

궁말 초입에 위치한 ‘새마을 정미소’는 ‘협동, 증산’이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내보이고 있다. 이는 화전2리가 전통적인 벼농사 중심 마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생산 경관이다. 한편 과거 근대화를 지향하던 생산주의 방식이 남양홍씨 세거지인 궁말에 자리하는 바는 마을의 세력 중심부를 가늠하게 한다.

(그림 5-8).



그림 5-8. 궁말 중심에 남아 있는 생산주의 경관

양평군은 1997년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에 화전2리를 선도마을로 지정했다. 그 배경은 이 마을이 갖고 있는 국지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경지 정리된 평야가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하천이 발달하지 않아 하천 오염의 우려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풍부한 지하수를 관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하천에 비해 지하수는 수량과 수온이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어, 마을 사람

들은 예부터 농사에 필요한 물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용문면 화전리 주민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고 지리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양평환경농업-21’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금년도(1997년) 용문면 화전리 24ha(47농가)의 논에 오리 7,200마리를 방사하여 오리농법을 실천하였으며, 초기에는 재배기술 부족으로 오리관리가 미숙하였으나, 화전2리 전농가가 혼연일체가 되어 오리농법을 적극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무농약재배 쌀을 생산하고 있다. 병해충발생 억제 및 예방을 위하여 항공파이 미생물제재인 그린케어(2회 살포)와 친환경자재인 키토산(2회 살포)을 살포하여 생육을 촉진시키고 있다. 생산한 쌀은 공동수매하여 소비자에게 일반재배 쌀에 비해서 30%이상 높은 가격(25만원/80kg)에 직거래 판매하고 있다.

-농림부(www.maf.go.kr), 친환경농업실천현장 우수사례-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에는 농업기술측면에서 논농사 지역을 대상으로 오리농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가장 손쉽게 친환경농업에 접근할 수 있기때문이었다.

화전2리는 2005년 올 해로 오리농법 쌀농사를 시작한 지 9년째에 접어들었다. 당시 마을이장 이상용<sup>121)</sup>과의 면담을 통해 시작 초기의 상황과 이후 친환경농업의 실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용 전 마을이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이 양평군의 주요 시책사업이 되면서, 1996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마을 주민들을 추천하게 되었다. 당시 친환경농업은 매우 생소

---

121) 이상용님(53세)은 1997년~2003년까지 7년 동안 마을이장 일을 보았다. 지금은 ‘화전2리수도작작목반’의 반장을 맡고 있다. 읍면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용문면친환경농업인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얼마간 타지생활을 한 적도 있지만 결혼 후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에 전념해왔다. 양평군 강하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동서들과 바쁜 농번기에는 마을을 서로 오가며 일손을 돕는 가족노동력 중심의 농가이다.

한 것이어서 대부분 마을 이장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다. 때마침 강원도 홍천 남면 명동리에서 오리농법을 선구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연익흙씨 마을을 모내기철과 수확기에 두 차례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봄철에 보았을 때 반신반의했던 것을 수확철에 가보니 벼농사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좋은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마을 이장은 반상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할테니 오리농법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마을 어른들도 젊은이들 하는대로 믿고 따라 가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앞들, 너덜이들, 수갱이들에서 논농사를 하는 49가구 100%의 전원 동의를 얻어 군청에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결과 화전2리 마을은 오리농법 선도마을로 지정되었다.

마을 구성원들의 전원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에는 농가의 자부담이 전혀없이 군과 농협이 오리농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편 화전2리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에 형성된 ‘화전2리 수도작 작목반’ 구성원들은 오리막사를 비롯한 제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 밤샘 작업까지 했다고 한다. 현재 작목반의 역할은 실천 초기에 비해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지속되고 있으며, 각 농가별로 자신의 농사를 해 나가면서 마을 안에서 예전부터 이뤄져 온 자연스러운 품앗이가 행해지고 농기계의 도움도 받아 친환경 오리농사를 생산한다.

화전2리에서 농사에 필요한 관개용수는 지하수(샘)을 이용한다. 160m 깊이의 관정을 4개 뚫어 전기를 통해 눈에 물을 낸다. 농번기에 일하면서 그대로 받아 식수로 먹기도 할만큼 오염없는 깨끗한 물이라고 한다. 수량도 풍부한 청정수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재배에도 매우 이롭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일반농촌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도 노령화되었다. 직접 농사를 짓는 70대 이상의 노인분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리 농법은 농사일에 힘이 부치는 노인들에게도 예전 관행농업 때보다 일손을 많이 덜어주어 수월하다고 한

다. 한 포대에 20kg되는 오리 사료를 제 시간에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농약 살포라든가 김매기 같은 농사일이 대폭 줄었고 병충해 발생률도 많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화전2리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화학비료를 주면 안되는 것이라는 정도는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이다.

농업 규모가 매우 영세해 오리농 쌀생산 단지에 해당하는 평야의 전체 필지가 119필지(24ha)에 95동(오리농 구획단위)인데 49농가가 여기에 속하므로 한 농가가 경작하는 경지는 평균 2.5필지에 0.5ha정도이다.

그러나 마을 이장은 경지가 응집되어 있으면서 농가당 규모가 작은 것이 오히려 오리농업을 실시하기에 적절했다고 한다. 어떤 마을의 경우 경지 규모가 너무 큰 탓에 주민의 전체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 오리농 쌀농사 실천에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작년 2004년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 양평군 자체의 대대적인 점검이 있었다. 그 결과 현재 무농약 품질인증 이상을 받은 농가는 25가구 정도이다. 이 때 인증이 취소된 경우가 발생했는데 양심이 불량해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료를 뿌려 실천을 하지 않은 농가가 간혹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부족한 양의 모판을 외부에서 들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의 농가가 작은 부주의 때문에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화전2리 농가들은 일찍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까닭에 2005년 올 해부터 전환기유기로 한 단계 진전되었으며, 유기전환을 시도할 수 있도록 영농일지 진단과 토양검증을 마친 농가도 1~3가구 정도 생겨났다. 이렇게 되면 다른 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수매가 가능하고 환경농업 실천 농가에게 주어지는 직불제 지원도 계속 받게 된다.

밭농사의 경우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엄두가 나지 않아 마을주민 대부분이 오리농 쌀농사에 그치고, 콩, 고추, 참깨, 들깨와 고구마, 감자, 마늘, 담배 등을 관행농법으로 심어 거둔다

1994년 전 이장(김영창, 55세)이 우리 마을의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했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내가 오리농쌀 생산단지 조성에 힘을 썼다. 지금의 이장은 친환경농업과 연계해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과정이 도시민에게도 매력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sup>122)</sup>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게 되면서, 마을의 중심은 궁말에서 마장말로 이동했다. 마장말 입구에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수확한 쌀을 도정하는 공장이 양평군 지원으로 세워졌다. 이 시설은 화전2리 뿐 아니라 양평군 전체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림 5-9. 마장말 초입에 새로 위치한 친환경농산물 관련 시설(도정공장)

친환경농산물 실천 농가는 49가구 시작하였다. 현재 오리농쌀 생산단지(앞  

---

<sup>122)</sup> 이상용 전 마을이장님(53세), 현재 화전2리수도작작목반 반장님과의 면담 내용임.

들, 너털이들, 수갱이들)에서 쌀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마을 전체 농가의 약 절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2004년 영농일지와 토양검증을 통한 재검증 이후, 인증취소 농가도 발생해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가이력정보에는 26가구의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원 무농약 오리농쌀을 인증 받았다. 그 중 5농가는 전환기유기농으로 인증받았다.

그림 5-10은 각 농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상황을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다.



그림 5-10. 농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상황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농가 이력표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농가들 25농가는 모두 오리농쌀 생산단지에 해당하는

앞들, 너털이들, 수갱이들에 자신의 경지를 소유한 가구들이다. 다시말해 부채 지주 소유경지가 전혀없는 토착 지역민들의 경지 소유가 친환경농업 실천에 중요한 밑거름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표 5-5. 화전2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별 가구 특성

고유 번호	성명	연령	현 거주지	거주이동 경험	세대구성
1	이○우	54	화전리 494	무	MM79 W74 M54 MW50
2	○재민	58	515	무	MM58 W51
3	이상○	53	352	무	MM73 W75 M53 MW51
4	홍○기	54	726	서울-양평읍-화전	MM54 W46 GM83 M24
5	○인환	45	337	무	MM45 W41 F16 M14
6	신금○	72	726	무	MM72 W66
7	○재기	49	517	무	MM49 W45 GM78 M21 M19 F22
8	신○진	54	726	무	MM54 W48 F28 F24
9	홍성○	67	726	무	MM67 W64 M30
10	○신숙	62	726	무	MF62
11	김○웅	56	952	무	MM56 W53 M28 GM85
12	이종○	76	343	무	MM76 W73 F47
13	조영○	51	860	무	MM51 W43 M20 M17
14	○성갑	72	726	무	MM72W66
15	김정○	60	718	서울-인천-서울- 화전-부천-화전	MF60
16	홍성○	76	726	무	MM76 W73
17	○창식	85	343	무	MM85 W79
18	권○식	76	343	무	MM76 W57
19	이선○	73	521	무	MM73
20	이○선	71	494	무	MM71 W57
21	홍종○	64	947	무	MM64 W62 M41
22	○윤성	71	355	무	MM71 W65
23	엄○원	35	934	춘천-화전	MM35
24	김기○	46	952	대전-순천-여수- 순천-화전	MM46
25	조○대	60	948	무	MM60 W61

주) 영어 알파벳 대문자 약자는 세대 구성원의 위치이며 그 오른쪽의 수치는 연령을 뜻함. MM 세대주, W 세대주의 처, M 세대주의 아들, MW 세대주의 며느리 F 세대주의 딸, GM 모친, MF 세대주(여)를 뜻함.

또한 표 5-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증농가 대부분이 화전2리 토박이들로

거주이동의 경험없이 고향을 지키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지에 농사를 지어왔다.

3) 친환경농업 생산과정과 마을전통의 결합이 빛나는 새로운 농촌마을 만들기  
 화전2리는 농업진흥청이 주관하는 2004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었다.

표 5-6은 한국문화관광연구소가 화전2리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의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실시한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분석 결과이다.

표 5-6.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화전2리의 SWOT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지형의 아늑한 전형적 농촌마을</li> <li>● 마을이름과 분위기의 연결성 (화전花田=꽃밭)</li> <li>●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산물</li> <li>●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 (중앙선 용문역과의 연계성)</li> <li>● 체험장, 운동장, 정자 등 기본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과 계곡 등 자연자원 부족</li> <li>● 마을내 하천의 수량 부족 및 오염</li> <li>● 특색있는 전통문화 소멸</li> <li>● 논농사 위주로 특산물 생산 미흡</li> <li>● 주민 고령화로 인한 사업추진인력 부족</li> </ul>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고조</li> <li>● 주5일 근무제로 여가시간, 기회증대</li> <li>● 수도권 인근 관광지에 대한 수요증가 (빈도증가에 따른 피스톤형 관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식품에 대한 신뢰 저하 (→직접 체험에 의한 구매 유발)</li> <li>● 값싼 외래농산물 수입증가 (→전원생활을 덤으로 판매)</li> <li>● 농촌인력감소와 농사면적 감소 (→농업의 대농화와 농외소득 창출 요구)</li> </ul>

고등학교 졸업 후, 정치에 뜻을 두고 J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해 아주 열성적으로 살았었지요. 하지만 정치에 회의가 밀려와 도시 생활을 접고 양평으로 돌아왔지요. 98년 양평읍에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2000년 봄에 고향 화전으로 완전히 들어왔지요. 전 이장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그의 추천으로 마을 이장일을 보게 되었지요. 마침 농촌전통테마마을 선정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지요. 마을의 청사진을 세워보고 싶은 생각에요. 우연찮게도 조카와 아들이 관광학을 전공하고 있고...이 곳이 고향인지라 다른 마을리더하고는 마음이 다르죠. 우리 마을은 전통적으로 벼농사 중심이고, 물론 노령화가 되었지만 다른 마을에 비해 40대 젊은이(?)들이 꽤 있는 편이죠. 잘 가꾸어 나가면 좋은 관광마을이 될 거라 확신해요...<sup>123)</sup>

지난 3월에는 화전2리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입지해 있는 인근의 양초공장과 마을에 넘쳐나는 야생화를 연계해 부녀회원들이 ‘압화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친환경 오리농산물 생산과정을 통해 농업생산공간을 상품화하고 있는데, 오리입식 단계부터 수확기까지의 모든 생산과정이 모두 녹색소비공간이 되고 있다. 매년 6월 첫 주에 행해지는 오리 일터보내기 행사는 일년중 가장 큰 마을 축제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지역정체성을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5-11. 숙안공주 능묘에서 내려다 오리농산물 생산단지

123) 홍석기 이장님(54세)과의 면담 내용임.



(오리축사 ; 야생 청둥오리를 넣어두는 작은 비닐하우스 막사)



그림 5-12. 오리 입식행사와 친환경농업 생산과정의 상품화

## 2. 녹색소비공간 창출과 농촌사회구성의 재편 사례

; 청운면 신론1리, 전형적인 밭작물 재배 중심의 한적한 산지촌에서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 1) 마을 경관 구성

신론리(新論里)는 본래 지평군 상북면의 지역인데, 융희 2년(1908)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신대리(新垔里)와 고론리(古論里), 신당리(新堂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대와 고론의 이름을 따서 신론리라 하여 청운면에 편입되었다.<sup>124)</sup>

상고론 신론1리는 하고론 신론2리 그리고 도원리와 함께 ‘청운향토정보화마을’로 선정되었다. 또한 신론1리는 2003년 농림부가 주관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다.

신론1리는 양평군 최북동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덕분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마을은 서울-홍천간 44번 국도에 접해 있으며, 서울에서 약 80분 정도의 시간 거리를 갖고 있다.

그림 5-13에서 보여지듯이, 신론1리, 신론2리, 그리고 도원리에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흑천을 중심으로 협소한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마을 주변은 가파른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로 잣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

---

124) 한글지명학회, 1985, 전계서, pp.556~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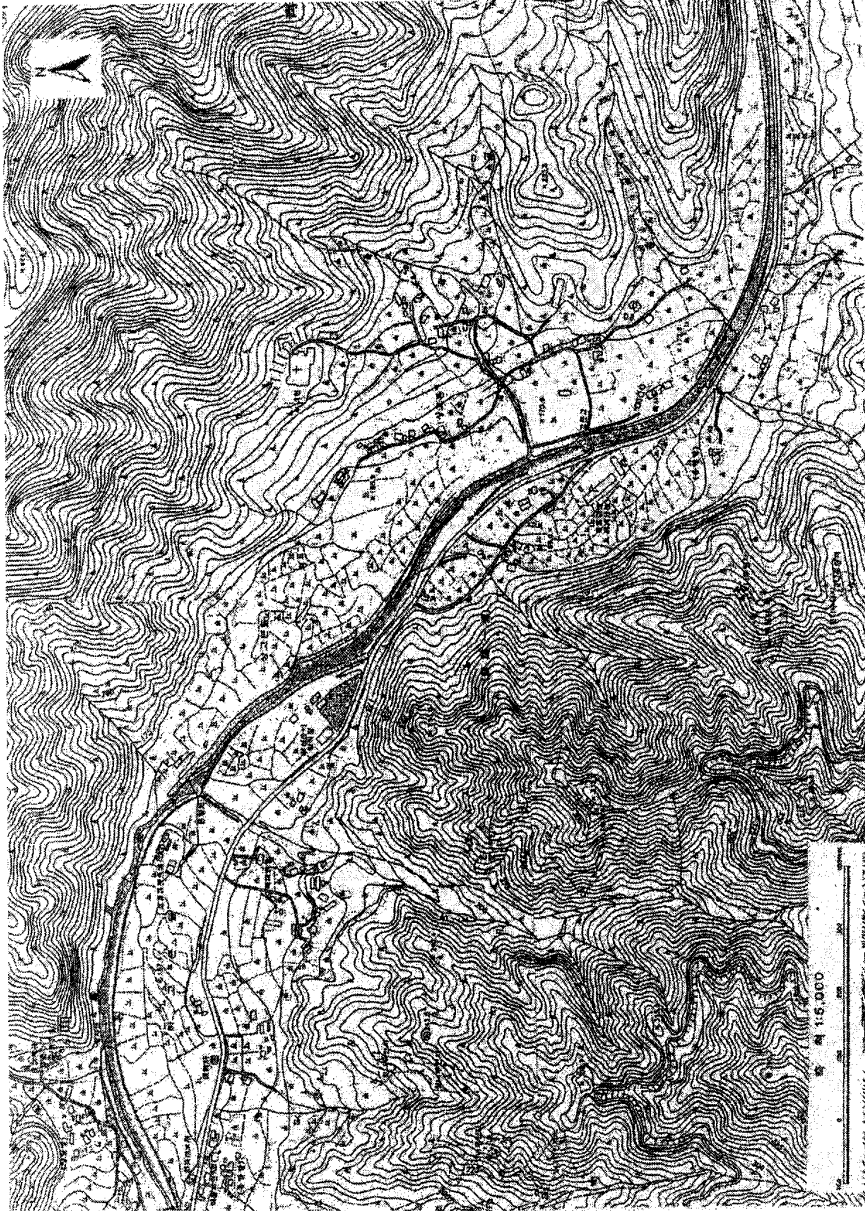


그림 5-13 신문1리 지형환경과 토지이용

2) 주민 구성의 특징과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등장

1985년 신문1리와 2리로 행정리가 나뉘면서 신문1리의 인구수가 급감하는

듯 보이는 것이다. 1985년 이래 인구수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다가 2000년 들어 미비한 수치이지만 다소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가구수의 유지와 인구수의 변화가 이 마을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5-14, 표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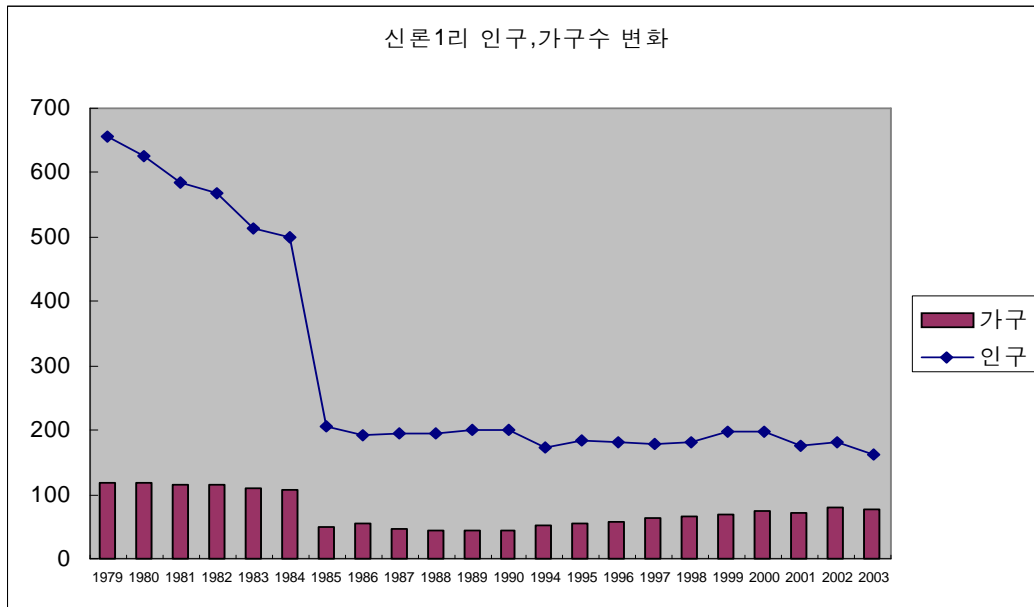


그림 5-14. 신론1리 인구·가구수 변화

출처: 양평군, 각 연도, 양평통계연보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표 5-7. 신론1리 인구·가구수 변화  
단위: 호, 명

연도	가구(호)	증감	인구(명)	증감
1979	119	-	657	-
1980	118	-1	627	-30
1981	116	-2	586	-41
1982	114	-2	569	-17
1983	110	-4	514	-55
1984	108	-2	499	-15
1985	50	-42	206	-294
1986	54	+4	192	-14
1987	47	-3	196	+4
1988	44	-3	196	-
1989	45	+1	200	+4
1990	45	-	200	-
1994	53	+8	173	-27
1995	55	+2	184	+11
1996	59	+4	180	-4
1997	62	+3	178	-2
1998	65	+3	181	+3
1999	68	+3	198	+17
2000	73	+5	198	-
2001	71	-2	175	-23
2002	80	+9	182	-13
2003	78	-2	163	-19

출처 : 통계연보(1979~2004), 양평군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신론 1리는 인접한 신론 2리, 도원리와 함께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꾸려 나가고 있다. 세 개 행정리를 모두 합한 가구가 163호, 인구는 379명으로 매우 낮은 인구·가구수를 갖고 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로 지역 변화 혹은 혁신 등 새로운 작업의 시도가 어렵다. 생산성의 한계는 물론 감소하는 인구로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될 위험이 내재한 마을이었다.

표 5-8. 연령별 인구 구성

계(명)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388	47	40	69	65	108

표 5-9. 행정리별 인구·가구수

대상 마을			가구 및 인구수	
읍면동	행정리	마을명	가구(호)	인구(명)
청운면	신론1리	상고론	83	173
	신론2리	하고론	62	153
	도원리	도원	18	53

그러나 새로운 지역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태산촌마을사업, 녹색농촌체험 마을 사업, 자방자치제 사업 등 각종 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활성화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전기의 바탕에는 마을 주민들끼리의 단합과 협동심이 매우 강하고 상호 깊은 신뢰를 확보하고 있던 것에 지역리더집단의 긍정적 역할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3) 산촌 청정자연의 상품화

청운향토마을축제는 매년 4월에 열리는 양평군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이다. 매년 5,000명 이상의 도시민과 농촌 거주자들이 모이는 도농교류의 장으로서 2005년 을 해로 6회를 맞이하였다

청운향토정보화 마을(신론리, 도원리)은 청정 자연과 농촌생활문화를 재현하여 녹색소비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적극적인 농촌공간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있다.

표 5-10은 자연의 사회적 구성과 농촌공간의 사회적 재현 과정이 국지적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예이다. 크게 월별, 체험형태별로 체험프로그램이 4가지 큰 테마로 -농촌생활체험, 놀이체험, 자연생태체험, 전통음식체험-로 나뉘어 그 안에 세부프로그램이 구

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농촌공간의 상품화 과정에서 한적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 창출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와 새로운 연대를 통해 도농 공생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 3, 농촌사회구성의 재편 흐름

오늘날 우리 농촌사회구성은 매우 다차원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생활공동체로서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생산공간이 소비공간으로 확장함에 따라 단순한 겸업이 아닌 복합영농을 위한 개인 생활사의 설계를 시작하고 있다.

더불어 혼주화로 인한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경관상의 차별화가 확인되는 동시에 새로운 농촌성 구현에 필요한 지역민 네트워크를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다.

표 5-10. 청운향도정보화마을 자연과 농촌생활 체험 프로그램

구분	세부 프로그램	시기
농촌 생활 체험	*산나물 뜯기 : 이른 봄 마을 주변 산과 들에 돌아난 쑥, 냉이, 달래 등을 채취하기	3-5월
	*각종 농산물 수확 : 감자캐기, 옥수수따기, 표고버섯따기, 토마토 등 각종 농산물을 수확해서 직접 먹어보기	6-11월
	*짚공예 : 짚풀을 이용해 새끼꼬기, 여치집 만들기 등의 공예품 만들기	12-2월
	*농사체험 : 모내기(들밥먹기), 오리방사, 추수하기	5월
	*초가집, 귀틀집 짓기	3-11월
놀이 체험	*국궁(활쏘기)	연중
	*물놀이, 대나무뗏목타기 : 마을 앞 흑천에서 신나는 물놀이 체험하기	6-9월
	*꽃마차 시골여행 : 하천변 테마길을 따라 꽃마차를 타보는 체험하기	연중
자연 생태 체험	*송어잡기 : 마을앞 흑천에서 맨손으로 송어 잡고 소금구이도 해먹는 체험하기	6-9월
	*등산하기	연중
	*개구리, 올챙이, 우렁이 관찰 : 마을 논에서 자라는 다양한 생태계 관찰하기	3-8월
	*오디, 앵두 따먹기 : 자연속의 나무 열매를 따 먹어보고 이름도 배우는 생태프로그램	5-8월
전통 음식 체험	*손두부 만들기	연중
	*막국수 만들기(분들 누르기)	연중
	*찰쌀떡 만들기(전통방아 찧기)	연중
	*아궁이불 밥짓기(아궁이 불떼기)	연중
	*된장(고추장)담그기, 메주만들기	2-3월
	*화전만들기	3-5월
	*장아찌 담그기	6-8월
*김장 담그기	12-1월	

출처: 고른영농조합법인 지역활성화센터, 2004, 고른지역특화농정사업  
계획서(농촌관광부문) p.10의 내용을 인용함

## VI. 결론

오늘날 농촌공간을 단순히 도시와 대비하는 이원론적 시각은 쇠퇴하고 있다. 도시와의 차이보다 농촌공간내의 차별화가 더욱 뚜렷하다. 도시와의 연장선상에서 도시화 공업화되어야 할 전근대적 공간도 아니다. 도시와 농촌은 공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근대적 공간의 한계가 각종 사회문제로 노출되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간에 대한 관심이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이 과정에서 농촌성과 농촌공간에 대한 인식 논리도 기능론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다시 구성하고 재현된다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국토의 농촌공간에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농촌성은 무엇이며, 농촌공간을 변화시키는 동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연구 목적은 오늘날 농촌공간 변화가 농업생산양식과 농촌사회구성의 재편을 통해 새로운 농촌성을 재현해 가는 과정을 구명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공간의 인식논리 변화는 국지적 공간, 로컬리티와 지역문화를 접점으로 하여 사회적 재구성이 농업·농촌정책에 반영되고, 현실적으로 농촌공간에 투영되고 있었다.

둘째, 생산주의에서 탈생산주의로의 변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조와 함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셋째, 친환경농업공간의 발생은 1970년대 중반 소수의 유기농업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실천 초기에는 환경규제지역(경기도 양평 지역)이나 낙후지역(영남내륙 북부지역)에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혹은 지역의 제한된 상황에서 그들이 차선책으로 실천되었다. 이때, 개발규제로 인한 환경보전은 역설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탈생산주의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의 전개 과정속에서 자연과 환경이 지역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환경 정치화로 이어지고 있다. 깨끗하게 보존된 자연과 환경이 지역 자산으로 가치를 부여받으면서, 지역이미지를 재형성하고 지역정체감을 돈독하게 하는 구실을 하였다.

넷째, 친환경경농산물 품질인증 면적 및 비중은 2000년에 들어서 급증세를 보이며 공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1999년 전체경지면적에 대한 인증면적이 0.05%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4년 현재 1.60%까지 상승하였다.

다섯째, 전국 차원에서 입지계수에 의한 친환경농업 집중도를 보면, 논벼는 경기도가, 과수류는 강원과 전북이, 채소류와 특용작물류는 경기도가 2.10이상의 수치를 보여 평균의 2배 이상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양평지역은 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제공처로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각종 환경규제가 중첩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시되어왔고, 공업 입지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 국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평의 국지적 맥락이 친환경농업을 일찍 수용할 수 있었던 긍정적 동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역 주민들과의 심층면담 및 환경농업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일곱째, 양평지역의 친환경농업은 서울과 인접한 서종, 양서, 강하, 양평읍을 중심으로 채소류가, 옥천면, 용문면 남부와 지제, 개군, 양동면은 지형적 배경에 기초하여 논벼가, 동부의 청운면은 과수 중심의 친환경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양평지역 내부에서 농작물 재배의 공간 분화가 진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평지역에서 ㄹ단위의 2개 마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m)와 친환경농업정책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농촌성 구현 과정을 국지적 맥락에서 확인하였다. 용문면 화전2리는 친환경농업의 수용과 농촌사회구성 재편 사례로, 친환경농업 선도마을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로의 변화에 주목하였고, 청운면 신문1리는 녹색소비

공간 창출과 농촌사회구성의 재편 사례로, 전형적인 밭작물 재배 중심의 한적한 산지촌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의 이행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두 사례 마을의 현지 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선택과 수용과정 및 소비공간 창출을 통한 새로운 농촌성 창출에 있어, 마을 리더들의 역할과 주민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 아울러 농촌공간의 전통 경관과 청정한 자연이 사회적으로 재현됨으로써 새로운 농촌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맥락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우리 국토 농촌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농촌공간의 사회적 구성 논리를 더욱 질적으로 구명하고, 국지적 마을의 전통 경관을 사회적 재현 이론에 기초해 재조명하는 연구 과제를 지속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1997, 경기2020: 비전과 전략 - 21세기 경기발전구상.
- 강희경, 2002, 지역사회의 상징 구성과 지역정체성 만들기, 호산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엮음, 진단과 대응의 사회학, 박영사, 3-33.
- 경기개발연구원, 1999, 수도권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 2000, 수도권의 지역구조 및 생활권 분석과 개편전략 연구.  
-----, 2002, 양평지역연구.
- 고론영농조합법인·지역활성화센터, 2004.7, 고론 지역특화농정사업계획서:  
농촌관광부문 최종보고서.
- 구동희, 1997,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수도권 전원  
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권용우 외 공저, 1998, 도시의 이해, 박영사.  
-----, 2002, 수도권 공간연구, 한올아카데미.
- 김관식, 2002, 전원주택 개발에 따른 지역환경 변화 연구-양평군 강상면을  
사례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혁, 1999.1, 영국의 환경농업정책과 농민의 태도 연구, 1996년도 한국학술  
진흥재단지원 대학해외파견교수 연구보고논문.
- , 1999, 영국의 농업정책이 지리적 전문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지역지  
리학회지 5(1), 101-120.
- , 2002, 농업·촌락 지리학, 한국의 학술연구-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  
원, 169-212.
- , 2003, 부산 김해평야 농업지역 친환경농업의 행위자-연결망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3), 276-296.

- 김대수, 2004, 친환경농업과 지역활성화 방안-양평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과 지역활성화 심포지엄 자료.
- 김병택, 2002, 한국의 농업정책: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한올아카데미.
- 김일철, 1989, 한국사회의 재구조화과정, 서울대출판부.
- , 1994, 일본농촌과 지역활성화운동, 나남출판.
- , 1998, 종족마을의 전통과 변화, 백산서당.
- , 1999, 한국의 사회구조와 지역사회, 서울대출판부.
- 김정섭, 2001, 농촌개발과 어메니티: 국제적 논의동향과 함의, 농어촌과 환경  
11(4), 83, 21-32.
- 김종덕, 2002, 농업의 세계화와 대안농업운동, 농촌사회 12(1), 133-159.
- 김창길, 2004,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주요 실천과제, 농정연구 9,  
-----, 2005.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향,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 외 7인, 2004.12,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 · 신용광 · 김태영, 2005.1, 친환경농업의 현실과 비전, 농업전망 2005  
( I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5-142.
- 김태현, 2001,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 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5-40.
- 김형국, 2002, 고장의 문화관측: 세계화시대에 지방이 살 길, 학교재.
- 농림부, 1996,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
- , 2004.12, 농업 · 농촌 발전 기본계획.
- 다쓰오나루세 지음, 백옥인 옮김, 1988, 생활양식론, 민글.
- 문순철, 1992, 농촌주민의 존재양상과 농촌개발의 리더에 관한 연구-연기군  
의 한 촌락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 1998, 「국토」에는 왜 ‘농촌’이 없나, 월간 국토.

- 문옥표 외 4인 공저, 1994, 근교농촌의 해체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문옥표, 1991,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농촌의 위상, 농촌사회 창간호, 211-251.
- , 1994, 일본의 농촌사회: 관광산업과 문화변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 2000, 관광을 통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 한국문화인류학 33(2), 79-110.
- 민병채, 1999, 지방정부의 발전전략 21: 양평군 편-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 건설, 자치공론 56, 109-125.
- 박 경, 1999, 지역개발전략으로서 내발적 발전론: 일본의 연구동향과 과제,  
공간과 사회 11, 240-264.
- 박길성, 2003,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고려대학교출판부.
- 박성준, 2003, 지역사회 연결망과 환경농업, 환경사회학연구 ECO 5,  
한국환경사회학회, 40-65.
- 박영민, 1995, 자치시대 지역운동과 장소의 정치, 공간과 사회 5(2), 171-195.
- , 1997, 르페브르의 실천전략과 사회공간, 공간과 사회 9, 194-217.
- 박영한 · 조영국, 2004, 산업화 · 탈산업화가 농촌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가?, 박삼욱 외,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 한울아카데미, 146-151.
- 박현태 · 정은미, 2000, 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 · 유통활동 실태, 농민과  
사회 22, 88-102.
- 박호균, 2001,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증진방안, 농어촌과 환경,  
11(4), 73, 3-11.
- 방한영, 2003, 농촌활성화를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구, 청주  
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성주인 · 송미령, 2003, 지역유형 구분과 농촌지역의 유형별 특징, 농촌경제  
26(2), 1-22.
- 손명철 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를 위하여,  
명보문화사.
- 신은정, 2003, 환경농업기술에 관한 지역 차원의 학습 네트워크 연구 - 경기도

- 양평군 환경농업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19, 한국 공간환경학회편, 163-187.
- 심승희, 2000, 문화관광의 대중화를 통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강진·해남 지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박사학위논문.
- 안승택, 1999, 양수리에서의 지역의 시공간적 구성-기술의 도입과 문화적 전유에 대한 역사인류학적 접근, 서울대학교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평군, 양평군 관광안내도 팜플렛.
- , 1991, 양평군지.
- , 2000,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권역별 보고서)
- , 2000.2, 양평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 , 2001, 양평-21세기 환경농업의 중심.
- 양평애향동지회, 2001.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토론회 자료집, 양평군.
- 엄서호 외, 2004, 농촌관광의 이론과 실제, (주)명진씨앤비.
- 오세일·김동원·박혜진,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OECD 저, 오현석·김정섭 공역, 2002,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
- 오호성, 1999, 국토이용계획과 친환경농업의 육성, 국토연구원.
- 왕인근, 1987, 농촌사회학 개론, 박영사.
- , 1983, 현대 농촌사회학, 박영사.
- 유덕기·윤주이, 1999, 환경농업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 양평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7, 303-320.
- 윤근섭, 1993,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전북 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농촌사회 3, 9-37.
- 윤주이, 200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구조와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농업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관규, 2001, 농촌의 변화와 미래상: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의 사례, 도시와 빈곤 51, 52-77.
- 이문중, 1984, 동족촌의 인구이동과 촌락의 변모, 지리학 30, 77-89.
- 이상현, 2000, 자연의 합리적 재마법화를 위하여, 공간과 사회 14, 185-212.
- 이성우 · 조중구 · 임형백, 2004, 친환경농업의 결정요인과 지역간 차이, 농촌경제 27(1), 41-61.
- 이양주 · 박경미, 1999, 상수원 주민의 환경의식 조사-양평군을 사례로, 경기연구 4, 137-153.
-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지리학적 연구주체의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 , 2001, 대안적 지역발전 모색과 농촌주민환경운동의 역할에 관한 연구 -팔당상수원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농민과 사회, 160-177.
- 이영민 · 허남혁, 2001, 농촌지역 환경갈등과 농촌주민 환경운동의 역할과 의미: 양평군 팔당지역 유기농업운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18-32.
- 이재덕, 2003,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 연구성과의 검토, 서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0, 210-230.
- 이진아, 2000,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창기, 1976, 동족집단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창기, 1991, 한국동족집단의 구성원리-형성요인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창간호, 한국농촌사회학회, 39-59.
- 이한기 · 박덕병 · 박은식, 2002, 전통문화와 전통지식을 통한 농촌의 내생적 발전 요인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2(2), 51-74.
- 임형백 · 이성우, 2003, 농촌과 도시의 공존을 위한 인식론적 전환: 근대화론

- 비판, 농촌사회 13(2), 41-73.
- , 2004,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형백·조중구, 2004, 생산양식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계획 10(1), 41-55.
- 장보웅, 1983, 전남지방 동쪽부락의 구조와 기능, 지리학 27, 15-30.
- 정근식, 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 30, 140-166.
- 정명채·오내원·최경환·박대식·이상문, 1996.9,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 변화와 발전-근교마을의 사회경제 변화 : 대전시 기성동 증촌마을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부매·최기엽, 1994, 서울 근교 전통 농촌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29(3), 340-359.
- 정상묵, 2003, 상수원지역의 환경농업 성공사례와 문제점, 지방의 국제화 포럼 76, 32-35. .
- 정희선, 2003, 한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3), 329-348.
- 조명래, 1997, 도시 농촌 통합의 정치경제학적 독해, 공간과 사회 8, 10-35.
- , 2003, 도시화의 흐름과 전망: 한국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 경제와 사회 60, 한국산업사회학회, 한울, 10-39.
- 조영국, 1998, 농가 재생산의 공간분화, 지리학연구 32(4), 87-106.
- 조옥라·최봉영·신경아, 2003,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내재된 전통과 근대의 문제: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6(1), 3-42.
- 존 배리 지음, 허남혁·추선영 옮김, 2004, 녹색사상사, 이매진.
- 최기엽 외 3인, 1992, 우리나라 촌락환경의 종합적 진단연구, 응용지리 15,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 최병두·홍인옥·강현수·안영진, 2004,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도시화-개념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39(1), 70-89.

- 최병두, 2002, 국지적 사회공간의 발전과 한계, 현대사회지리학, 한울아카데미, 141-151.
- ,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 최양부 · 이정환, 1989, 산업사회의 농촌개발전략-새로운 농촌지역 종합개발 방식의 선택, 한국농촌개발연구원, 106-116.
- 최양부, 2001, 친환경농업의 철학적 기초: 자연과 농업, 인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 진안환경농업대학 특강자료.
- 최재석, 1998,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일지사.
- 최지용, 1998,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방안, 팔당상수원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혁재, 1998,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 한경혜 · 윤순덕, 2000, 떠난 장남, 남은 장남: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농촌노인의 거주유형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 가을호, 649-66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1, 농업전망 2005( I ).
- 한국문화관광연구소, 2005.3, 농촌전통테마마을 양평 용달샘 꽃누름 마을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2리 - 기본계획 · 프로그램 용역보고서.
- 한글학회, 1985, 한글지명총람 17 - 경기편.
- 한도현, 1996, 농촌문제: 정보사회, 글로벌 사회 그리고 한국의 농업, 권태환 외, 전환기 한국의 사회문제, 민음사, 95-126.
- 한택수, 2003, 지역주민의 힘이 맑은 물을 만든다, 지방의 국제화 포럼 76, 26-28.
- 허장 · 정기환, 2003, 농촌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리더십, 농촌사회 13(1), 51-83.
- 홍동식, 1988,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국외문헌>

- Brian Ilbery ed., 1998, *The Geography of Rural Change*, Longman.
- Brian Ilbery and Ian Bowler, 1998, From agricultural productivism to post-productivism, Ilbery, B., eds, *The Geography of Rural Change*, Longman, 57-81.
- Carol Moris and Nick Evans, 2003, Agriculture turns, geographical turns: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ural Studies* 20, 95-111.
- Catherine E. Kelly and Brian W. Ilbery, 1995, Defining and Examining Rural Diversification: a framework for analysis, *TESG* 85(2), 175-185.
- Christopher R. Bryant, 1995, The Role of Local Actors in Transforming the Urban Fringe, *Journal of Rural Studies* 11(3), 255-267.
- Cloke, P., 1989, Rural Geography and Political Economy, in R. Peir and N. Thrift(eds) : *New Models in Geography: the Political-economy Perspective*, Unwin Hyman, 164-197.
- , 1994, (En)culturing Political Economy: a Life in the Day of a 'Rural Geographer', in P. Cloke, M. Doel, D. Mathless, M. Phillips and N. Thrift: *Writing the Rural: Five Cultural Geographers*, Paul Chapman Publishing, 149-190.
- , 1985, Whither Rural Geography, *Journal of Rural Studies* 1(1), 1-9.
- , 1996, Rural Geography Trend Report: The Social and Political Bases of Rural Restructuring,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 246-258.
- , 1997, Country Backwater to Virtual Village? Rural Studies and 'the Cultural Turn', *Journal of Rural Studies* 13, 367-375.

- Cloke, p. and Goodwin, M., 1992, Conceptualizing countryside change: from *Fordism* to post-*Fordism*, *Trans Inst Geogr NS* 17, 321-336.
- , 1993a, Rural Change: Structured Coherence or Unstructured Incoherence? *Terra* 105, 166-174.
- Cloke P. and Milbourne, 1992, Deprivation and Lifestyles in Rural Wales-II: Rurality and the Cultural Dimen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8(4), 359-371.
- Cloke, P. and Thrift, N., 1994, Refiguring the 'Rural'. in P. Cloke, M. Doel, D. Mathless, M. Phillips and N. Thrift: *Writing the Rural: Five Cultural Geographers*, Paul Chapman Publishing, 1-5.
- Clout, H., 1977, Rural Settle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 475-480.
- Copp J. H., 1972, Rural Sociology and Rural Development, *Rural Sociology* 37, 159-165.
- Duncan, S., 1989, What is Locality, in R. Peet and N. Thrift(eds.), *New Models on Geography*, Unwin Hyman, 221-252.
- Geoff A. Willson, 2001, From productivism to post-productivism...and back again? Exploring the (un)changed natural and mental landscape of European agriculture, *Trans Inst Geogr NS* 26, 77-102.
- Halfacree, K. H., 1993, Locality and Social Representation: Space, Discourse and Alternative Definitions of the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9, 23-37.
- Hannah Chaplin, Sophia Davidova and Mattew Gorton, 2004, Agriculture adjustment and the diversification of farm households and corporate farms in Central Europe, *Journal of Rural Studies* 20, 61-77.
- Hannigan, J., 1995, *Environmental Sociology: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London and NY, Routledge.

- Hoggart, K., 1990, Let's Do Away with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6, 245-257.
- John Allan, Doreen Massey and Allan, 1998, *Rethinking the region*, Routledge.
- John Cater and Trevor Jones, 1987, Contemporary Rural Society, in *Social Geography -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issues*, Edward Arnold, 194-247.
- Jonas, A., 1988, A New Regional Geography of Localities?, *Area*, 20-2, 30-39.
- Jonathan Rigg and Mark Ritchie, 2002, Production, consumption and imagination in rural Thailand, *Journal of Rural Studies* 18, 359-371.
- Jonathan Murdoch, 2000, Network - a new paradigm of rural development?, *Journal of Rural Studies* 16, 407-419.
- Jonathan Murdoch and Terry Marsden, 1995, The spatialization of politics: local national actor - spaces in environmental conflict, *Trans Inst Geogr NS* 20, 368-380.
- Jonathan T. Pierce, 1996, The Conservation Challenges in Sustaining Rural Environments, *Journal of Rural Studies* 12(3), 215-229.
- Judith Gerber, 1997, Beyond dualism - the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and the nature and social construction of human being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1) 1-17.
- Ki-Hyuk KIM, 2001, Korean Agri-Environmental Schemes: A Preliminary Review, in K. Kim, I. Bowler and C. Bryant eds., *Developing Sustainable Rural Systems*, PNU PRESS, 115-124.
- Keith Hoggart and Angel Paniagua, 2001, What rural restructuring?, *Journal of Rural Studies* 18, 373-384.
- Lise Saugeres, 2002, The cultural representation of farming landscape: masculinity, power and nature, *Journal of Rural Studies* 18, 373-384.

- Makoto TAKAHASHI, 2001, Changing Ruralities and the Post-Productivist Countryside of Japan: Policy Chang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1990s, in K. Kim, I. Bowler and C. Bryant eds., *Developing Sustainable Rural Systems*, PNU PRESS, 163-174.
- Marsden, T., 1994, Opening the Boundaries of the Rural Experience: progressing Critical Tensio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 523-531.
- Martine Phillips, 1998, The Restructuring of Social Imaginations in Rural Geography, *Journal of Rural Studies* 14(2), 121-153.
- Matt Lobley and Clive Potter, 2004, Agriculture change and restructuring: recent evidence from a survey of agricultural households in England, *Journal of Rural Studies* 20, 499-510.
- Mctaggart, W. D., 1993, Bioregionalism and Regional Geography: Place, People, and Networks., *Canadian Geographer*, 37(4), 307-319.
- Mormont, M., 1990, Who is Rural? or How to be Rural: towards a Sociology of the Rural in T. Marsden, P. Lowe and S. Whatmore eds., *Rural Restructuring: Global Processes and their Responses*, David Fulton, 21-44.
- Newby, H., 1986, locality and Rurality: The Restructuring of Rural Social Relations. *Regional Studies* 20, 209-215.
- Pual Cloke, 1996, Rural Life-style: Material Opportunity, Cultural Experience, and How Theory can Undermine Policy, *Economy Geography* 72, 433-499.
- Paul Cloke, Paul Mibourne and Chris Thomas, 1996, The English National Forest: local reactions to plans for renegotiated nature-society relation in the countryside, *Trans Inst Geogr* NS 21, 552-571.
- Phillip Cooke, 2001, *LOCALITIES*, Unwin Hyman Ltd.

- Pred A., 1985, The social becomes the spatial, the spatial becomes the social, *Social Relation and Spatial Structure*, Macmillan.
- Rebecca Rovers, 1995, Agency Regional Differentiation and Environment in Rural Conflict and Change, *Journal of Rural Studies* 11(3), 239-242.
- Sarah Whatmore and Susan Boucher, 1992, Bargaining with nature: the discourse and practice of 'environmental planning gains', *Trans Inst Geogr NS* 18, 166-178.
- Terry Marsden and Jonathan Murdoch, 1998, Editorial: The Shifting Nature of Rural Governance and Community Particip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14(1), 1-4.
- Urry, J., 1984, Capitalist Restructuring, Recomposition and the Region, in T. Bradley and P. Lowe eds., *Locality and Rurality: Economy and Society in Rural Regions*, Geo Books.
- 高橋 誠 1991, 都市近郊農村の社會變化に関する地理學的研究, 人文地理 43(1), 47-66.
- , 1997, 近郊農村の地域社會變動, 古今書院.
- , 1998, 空間としての「農村」から農村空間の社會的表象-農村性の社會的構築に関するノート(1), 情報文化研究 7, 97-117.
- 金料哲, 1994, 過疎政策と住民組織-日本と比較して, 古今書院.
- 今里悟之, 2002, 日本村落の空間テクスト論の視覚と課題, 人文地理 54(4), 1-20.
- 島津俊之, 1989, 村落空間の社會地理學的考察, 人文地理 41(3), 1-21.
- 山本正三, 2000, 最近における農業・農村地域の變化に関する研究の視點, 地理學評論 73A(3), 147-160.
- 山本正三・北村吉弘・田林 明 共編, 1998, 日本の農村空間-變貌する日本農村の地域構造, 古今書院.
- 善生永助, 1935, 朝鮮の聚落, 朝鮮總督府.
- 荒木一視, 1991, 都市-農村關係からみた村落地域集團の變遷, 人文地理 43(3), 82-97. .

<지도, 통계류 및 주요 관련 웹사이트>

1:50,000 지형도

1:25,000 지형도

1:5,000 지형도

1:1,400 지적도

2000년도 농어업총조사 결과보고서(2001)

양평군 통계연보(1961-2004)

양평군 사업체기초조사보고서(각 연도.)

경기통계연보(각 연도)

농림부 <http://www.maf.go.kr/>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양평군청 <http://yp21.net/>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http://www.ypatc.net/>

경기도넷 <http://www.gg.go.kr/>

농촌관광포털사이트 <http://www.greentour.or.kr/>

화전2리 옹달샘꽃누름마을 <http://ongdalsam.go2vil.org/>

신론1리 녹색농촌체험마을 <http://ypht.invil.org/>

Rural space has experienced serious change of the social structure by ever expanding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ince 1960's. Through these processes, rural space has perceived the backward or alienated region. But now the countryside can no longer be viewed as being the margins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hange. Recently rural space is at the center of interest and debate. The countryside is not the fixed site but the flexible object.

In other words, rural space is socially constructed and represented by re-evaluated the traditional culture, rural amenity and the nature, etc. So rural space is increasingly an area consumption as well as production.

Agricultural transition to post-productivism from a productivist philosophy means that farmers and other primary producers are looking for new ways of generating incomes. Alternative uses of rural space are promot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s to grasp the major viewpoints about the change of rural space on the rural social geography. Inde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agricultural transition to the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or the organic farming) from the conventional agriculture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 In addition, it selected as case region Yangpyeong-gun(including two villages:Hwajeon2-ri, Shilon1-ri)) and identified how the rural space is socially constructed, also how the rurality is re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sed as follows:

1) The major viewpoints about the change of rural space on the rural

social geography has changed to the political economic from the functional and descriptive approach and then to the social constructivism and the theory of social representation.

2) According to the social constructivism and the theory of social representation, the rurality can be changing constantly. With this, the rural space can be creating the consumptive space and regarded as a commodity.

So, the backward country has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 terms of own traditional culture including all crop's production process, rural amenity and the nature.

3) After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992), it is important for harmony betwee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And the social attention for safe food has grown. In response to customers' needs and the change of farmer's own attitude, the conventional agriculture has been substituted to the alternative farming.

Agri-environmentalism in Korea originated in the late 1970s as several organic farmers' association('Jeongnonghoe') started to be formed. Since 1994, the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has increased at the national level, its certification program arranged, 1999.

4) A case region Yangpyeong is regarded as the Mecca of the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or the organic farming. In spite of Seoul Metropolitan Suburbs, Yangpyeong is an under-developed area. Because this region is the environment restricted area, the agriculture has located the center of regional economic activity. In this specific situation, Yangpyeong can be accepted more earlier than other region. In addition, the preserved environment formed the regional identity and become the important asset for the growth in this region. The politic of environment

and the value of green discourse are realizing in Yangpyeong.

5) At local level, it selected as two case villages for the concrete investigation how the rural space is socially constructed, also how the rurality is represented.

Hwajeon2-ri is the traditional rice farming village. Because rice fields are cohered at the center of village as a production complex and irrigated through the underground water into the field complex, it has been choiced as the leading village for promoting the agri-environmentalism in Yangpyeong. Also It is a traditional clan village constituted of clan family Hong(洪). The traditional landscapes associated with Hong's family has played as place identity, recently re-evaluated the value and then represented to the asset for alternative tourism with farming processes.

Shilon1-ri is the typical mountain village. It is creating the village's value as commodity through a clear nature.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at 'social nature' is realized process in this village.

<부 록>

- 부탁의 말씀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 정부매입니다. 저는 「양평 지역의 친환경농업공간과 농촌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설문지를 제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삼아, 양평 지역의 특성을 올바르게 읽어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지는 학문적 목적이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정부매 올림 연락처: 016-201-5971

1. 귀하의 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양평군 \_\_\_\_\_읍/면 \_\_\_\_\_리 \_\_\_\_\_번지/호 \_\_\_\_\_마을

(거주시작은 \_\_\_\_\_년부터 혹은 \_\_\_\_\_대째 거주)

2. 귀하의 가족 구성과 농사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연령(만)	직업(*보기)	학력	직장(학교)소재지 시/군-구/읍·면-동/리	농사참여정도 (○ △ ×)
세대주					
배우자					
자녀 1	성별				
자녀 2					
자녀 3					
자녀 4					
조부					
조모					

**직업(\*보기)** ①농림축산업·수산업 ②서비스·상업 ③생산직 ④행상, 단순노동자 (일용직) ⑤판매직 ⑥개인자영업(5인 이하 고용업체) ⑦개인자영업(5인 이상 고용업체) ⑧전업주부 ⑨부업을 하는 주부 ⑩일반사무직(대리급 이하 회사원 및 6급 이하 공무원) ⑪공무원 및 행정관리직(과장급 이상~부장급 이하) ⑫고위행정관리직(국장, 이사급 이상) ⑬예능계종사자 ⑭전문직(교사, 변호사, 의사, 교수, 연구원) ⑮군인 ⑯은퇴 ⑰무직 ⑱기타 ( )

※ 2종 겸업의 경우에는 ① + 해당직업번호 (예:①+②)와 같이 표시해 주십시오.

농사참여정도는 전담=○, 부분적으로 참여=△, 전혀 참여하지 않음=×로 표시해 주십시오.

3. 귀하의 미혼 직계가족 중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역은 \_\_\_\_\_ 이고, 이유는 \_\_\_\_\_ 때문이다.

4.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으로 이주하기 바로 직전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_\_\_\_\_시/도/군 \_\_\_\_\_구/읍·면 \_\_\_\_\_리/동

5. 귀하께서 ‘양평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하시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고향이라서 ②이웃관계(친지 또는 친구) ③직장(직업) ④저렴한 집값(땅값)
- ⑤쾌적한 전원 환경 ⑥서울과 가까워서 ⑦생활비가 저렴해서
- ⑧앞으로의 발전 전망 때문에
- ⑨기타 \_\_\_\_\_

6. 귀하께서 양평 지역에 대해 갖고 계신 ‘지역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가장 강한 이미지부터 순위를 적어 주시고, 제시되지 않은 이미지가 있으면 기타에 직접 써주십시오.

- ①친환경농업의 메카/본고장( ) ②전원주택입지의 최적지( ) ③상수원보전구역( )
- ④환경규제가 많아 개발이 더딘 곳( ) ⑤ 자연과 환경이 잘 보존된 곳( )
- ⑥지역경제가 낙후된 곳( )
- ⑦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살기좋은 고장이 될 곳( )
- ⑧수도권 주민이 가까이 찾는 관광휴양지( ) ⑧역사와 전통문화가 숨쉬는 곳( )
- ⑨기타 \_\_\_\_\_

7. 양평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이 갖는 가치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를 해주세요.

구분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작다	매우 작다
개인의 생계 수단으로서의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가치					
농촌체험관광지와 연계되는 가치					
환경보전에 미치는 가치					
안전한 먹거리 제공면에서의 가치					
도농교류 측면에서의 가치					

그밖에 꼭 언급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아래에 직접 적어주십시오.

---

8. 귀하의 농사 경력은 몇 년째입니까? \_\_\_\_\_년째(            대째)

9. 귀하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였습니까? \_\_\_\_\_년 부터

10. 환경농업대학 수강은 어떤경로/필요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예) 같은 마을 농업인의 권유로

11. 현재 귀하께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12. 귀하께서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_\_\_\_\_년 부터

13. 귀하께서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또는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  
입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위를 ( )안에 직접 적어 주십시오.

①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 ②농산물의 높은 가격을 기대해서( )

③환경오염감소를 위해( )

④ 환경규제가 많은 지역내에서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

⑤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

⑥ 기타 -----

14.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농경지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논\_\_\_\_\_평, 밭\_\_\_\_\_평, 기타\_\_\_\_\_평, 기타\_\_\_\_\_평

15.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농경지의 필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논\_\_\_\_\_필지, 밭\_\_\_\_\_필지, 기타\_\_\_\_\_필지, 기타\_\_\_\_\_필지

16. 귀하께서 경작하고 계신 농경지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논\_\_\_\_\_평, 밭\_\_\_\_\_평, 기타\_\_\_\_\_평, 기타\_\_\_\_\_평

17. 농경지 경작 형태는 어떠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골라 □안에 √표시를 해주세요.

□논 자작 □논 소작(임대) □논 소작(임차) □논 휴경

□밭 자작 □밭 소작(임대) □밭 소작(임차) □밭 휴경

□기타 \_\_\_\_\_

참고 : 임대지(빌려준 땅), 임차지(빌린 땅)

18. 경작하고 계신 모든 농작물의 종류와 재배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1) 논작물 : 벼 ( )평, \_\_\_\_\_( )평

2) 밭작물 : \_\_\_\_\_( )평, \_\_\_\_\_( )평, \_\_\_\_\_( )평

3) 기타 과수작물 등 : \_\_\_\_\_( )평, \_\_\_\_\_( )평, --- ( )평

19. 경작하고 계신 농작물 중,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작물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인증받은 작물 \_\_\_\_\_( ~ 년)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20. 농산물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하십니까? \_\_\_\_\_

21. 귀하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그렇다            ②임차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

22. 귀하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농업경영에 관한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①규모를 늘려 농사만 하고 싶다.  
②농사도 짓고 다른 직업(            )도 갖되 농사에 더 비중을 두겠다.  
③농사와 다른 직업(            )을 비슷하게 하겠다.  
④농사도 짓고 다른 직업(            )도 갖되 다른 직업에 더 비중을 두겠다.  
⑤농사와 농촌체험관광 운영을 함께 병행하겠다.

참고 : 다른 직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            )안에 직접 적어주세요.

23.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신 농업관련 생산조직·공동체(작목반 포함)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 1) 생산조직·공동체명 \_\_\_\_\_ 2) 참여 시작은 \_\_\_\_\_년부터  
3) 생산조직·공동체의 규모 \_\_\_\_\_명  
4) 도움받고 있는 내용은 \_\_\_\_\_

24. 귀하께서 최근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농작물은 무엇입니까?

\_\_\_\_\_

25. 다음은 귀하의 양평지역 거주 만족 및 지역 정체감 형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1) 나는 양평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확실히 그렇다 ②그런 것 같다 ③잘 모르겠다 ④아닌 것 같다 ⑤확실히 아니다  
2) 나는 나의 자녀들도 가능하다면 계속 양평에 살기를 바란다.  
①확실히 그렇다 ②그런 것 같다 ③잘 모르겠다 ④아닌 것 같다 ⑤확실히 아니다  
3) 나는 양평지역 또는 우리 마을의 정기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확실히 그렇다 ②그런 것 같다 ③잘 모르겠다 ④아닌 것 같다 ⑤확실히 아니다  
4) 나는 계속해서 양평에 살 것이다.  
①확실히 그렇다 ②그런 것 같다 ③잘 모르겠다 ④아닌 것 같다 ⑤확실히 아니다  
5) 나는 농번기에 마을 주민과 서로 일손을 돕는다.  
①확실히 그렇다 ②그런 것 같다 ③잘 모르겠다 ④아닌 것 같다 ⑤확실히 아니다  
6) 나는 양평이 거주하기에 쾌적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①확실히 그렇다 ②그런 것 같다 ③잘 모르겠다 ④아닌 것 같다 ⑤확실히 아니다

7) 나는 양평이 앞으로 더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확실히 그렇다 ②그런 것 같다 ③잘 모르겠다 ④아닌 것 같다 ⑤확실히 아니다

8) 나는 양평이 도시보다 살기좋다고 생각한다

①확실히 그렇다 ②그런 것 같다 ③잘 모르겠다 ④아닌 것 같다 ⑤확실히 아니다

9) 나는 양평의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해 한 가지 이상 알고 있다.

①확실히 그렇다 ②그런 것 같다 ③잘 모르겠다 ④아닌 것 같다 ⑤확실히 아니다

26. 아래 표에 귀하의 한 해(작년 기준)동안의 농사 기간은 ↔로, 재배하신 작물의 종류는 직접 써주십시오. 또한 농사 이외에 하셨던 부업(겸업)이나 특별한 활동이 있으시면,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논농사	←---	-----	-----→									
논 작물												
밭농사												
밭작물												
과수원												
과수 작물												
부업/ 겸업												
부업/ 겸업종류												
기타												
기타활동												

27.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단독주택(한옥) ②단독주택(양옥) ③다세대(다가구) ④연립주택 ⑤아파트  
 ⑥전원주택 ⑦비거주용건물내 주택 ⑧ 기타\_\_\_\_\_

28.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신축 혹은 개축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29.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소유관계는 어떠합니까?

- ①자기집 ②전세 ③월세 ④무상대여 ⑤기타\_\_\_\_\_

30. 한 해 동안의 평균소득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연평균 \_\_\_\_\_ 원

31. 소득원은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_\_\_\_\_

32. 귀하의 직업과 거주 경력을 중심으로 한 생활사(生活史) 내용을 아래[제시된 예]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여러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각 지역을 옮기신 순서대로 모두 써 주십시오.

(예)

구분	1~13세	14~19세	20세~결혼 전		결혼 후~현재	미래
양평지역의 경우 읍면/리 까지 모두 써주세요	양평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다님	부모님 직장관계로 이천으로 이사후, 학업계속	직장에 취직함 부모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에 종사	- 30세 에 결혼	부모님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이음	계속 농업과 관광민박을 병행하며 고향을 지키고자 함
거주지 이동	단월면 덕촌리 퇴촌마을	이천시	이천시 (현대전자 생산직 근무)		단월면 덕촌리 퇴촌마을	단월면 덕촌리 퇴촌마을

구분	1~13세	14~19세	20세~결혼 전		결혼 후~현재	장래
학업 및 직업 변화 등	출생지=			세에 결혼		
거주지 이동						

☞ 아래의 33~38번까지의 설문 문항은 귀농하신분께만 부탁드립니다.

33. 귀하께서 귀농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년

34. 귀하께서 귀농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가족부양을 위해서 ②도시적응이 힘들어서 ③쾌적한 전원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④상업적 작물 재배를 위해서 ⑤기타 \_\_\_\_\_

35. 귀농지역으로 양평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본인 또는 부모님의 고향이라서 ②이웃관계(친지 또는 친구의 소개로)  
③직장(직업)때문 ④저렴한 집값(땅값) ⑤쾌적한 전원 환경  
⑥서울과 가까워서 ⑦생활비가 저렴해서  
⑧앞으로의 발전 전망 때문에 ⑨친환경농업을 실현할 이상적인 지역이라서  
⑩기타 \_\_\_\_\_

36. 귀농당시에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경제적 어려움 ②열악한 생활환경 ③과도한 노동 ④마을 주민과의 의사소통  
⑤서울과의 교통편 ⑥앞으로의 발전 전망 불투명 ⑦없음  
⑧기타 \_\_\_\_\_

37. 귀농 당시 및 현재 귀하의 농업경영 규모는 어떠합니까?

구분	귀농당시		현재	
	자경농지	임차농지	자경농지	임차농지
논	평	평	평	평
밭	평	평	평	평
과수원	평	평	평	평
임야	평	평	평	평
기타	평	평	평	평

참고] 귀농당시의 자경농지는 부모의 소유경지도 포함해 주십시오.

38. 귀농 당시 및 현재 귀하의 재배작물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귀농 당시			현재		
미작	시설작물	채소류, 기타	미작	시설작물	채소류, 기타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 귀하께서 희망하는 양평지역에서 생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또한 양평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